초록 눈의 아가씨

La Demoiselle aux yeux verts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7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 Demoiselle aux yeux verts » (1927)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 Demoiselle aux yeux verts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라울 드 리메지는 부두를 거닐고 있었다. 그는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가볍고 경쾌했다.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삶의 아름다움과, 빛이 가득한 4월의 어느 날 파리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활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키는 평균적이었지만, 그의 실루엣은 가늘면서도 힘차 보였다. 상의 소매는 이두근 부위에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가슴은 가늘고 유연한 허리선 위로 단단히 드러났다. 옷감의 재단과 색감은 그가 옷차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그가 지나는 길, 지메나즈 극장 앞이었다. 그때 그는 옆을 걷는 한 남자가 한 부인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느낌이 정확한지 곧장 확인했다.

라울에게 어떤 신사가 어떤 부인을 뒤따르는 모습보다 더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사를 뒤쫓았고, 세 사람

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늘어선 채, 소란스러운 대로변을 천천히 거닐었다.

리메지 남작의 풍부한 경험 없이는, 그 신사가 그 부인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그 신사는 신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품위를 잃지 않으려, 부인이 자신에게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울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중했다. 그는 산책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두 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등으로 본 그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 올린 검은 머리와 정장 차림새가 돋보였다. 머리카락은 매끄럽게 갈라졌고, 옷차림은 어깨를 넓게 드러내며 키가 큰 체격을 잘 살려주었다.

얼굴을 보니 단정하고 깔끔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피부는 생기가 돌며 붉게 빛났다. 나이는 서른쯤 되어 보였다.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동작 하나하나에 위엄이 느껴졌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만은 다소 평범해 보였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어 있었고, 피우는 담배에는 금장식이 달려 있었다.

라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단호했으며, 품위 있는 자태로 거리를 걸었다. 영국식 구두를 단단히 디딘 발은 우아한 다리와 고운 발목이 상쇄해 주

었다.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고, 훌륭한 푸른 눈과 무성한 금발이 얼굴을 빛내고 있었다.

길가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중이 저절로 보내는 찬사에 무관심해 보였다.

'세상에, 정말 귀부인 같군.' 라울은 생각했다. '그녀를 뒤따르는 기름진 머리의 남자는 어울리지 않아. 대체 뭘 원한다는 거지? 질투심 많은 남편일까, 아니면 밀려난 구애자일까. 아니면 모험을 노리는 미녀일까. 아마도 그럴 거야. 그 남자는 분명히 바람기를 타고 스스로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타입이지.'

그녀는 오페라 광장을 건넜다. 빽빽이 끼어든 차량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트럭이 그녀를 막아 서려 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멈춰 세웠다. 화가 난 운전사가 자리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욕을 퍼부었다. 그녀는 그의 코에 가볍게 주먹을 날랐다. 피가 튀어나왔다. 경찰 한 명이 해명을 요구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는 평온하게 그 자리를 떴다.

오베르 거리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옷깃을 잡고 열 발자국쯤 떨어진 곳으로 굴려 보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금화 두 개를 던져 주었다.

오스만 대로에서 그녀는 제과점에 들어섰다. 라울은 멀리서 그녀가 테이블 앞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뒤따르던 신사는 들어오지 않았

다. 라울은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차와 토스트 네 개를 주문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이빨로 그토록 맛있게 삼켜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연자약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토스트 네 개를 더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더 멀리 앉아 있는 다른 한 젊은 여성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영국 여인처럼 금발이었고, 물결치는 앞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파리 여인다운 세련된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난하게 차려입은 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쿠키와 석류 시럽 음료를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기쁨에 보답했다. 아이들이 기쁨에 눈이 빛나는 모습, 입가에 크림이 번진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목이 터져라 먹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그녀는 무척 즐거워했다. 아이들을 위해 혼자서 수다를 떨었다.

"아가씨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더 크게 말해 봐요… 안 들렸어요… 아니, 나는 마담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미스'라고 해야 해요."

라울 드 리메지는 단번에 그녀에게 반했다. 먼저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활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두 빛에 금빛 줄무늬가 섞인 두 개의 크고 푸른 눈동자가 그를 사로잡았다. 한 번 그 눈빛에 시선이 고정되면, 결코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는 마력 같은 눈이었다.

보통 그런 눈은 기이하거나, 우울하거나, 사색에 잠긴 듯하다. 아마도 그녀 눈의 평소 표정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얼굴 전체와 같은 생명의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장난기 어린 입매, 떨리는 콧날, 미소가 번지는 볼의 오목함까지 모두 같은 기운으로 빛나고 있었다.

라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극도의 기쁨이든, 지독한 고통이든, 이런 종류의 인간에게는 중간 단계가 없다.' 그는 문득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충동을 느꼈다. 이 기쁨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고통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올랐다.

그가 영국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균형과 비례, 그리고 고요함이 어우러진, 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그가 '초록 눈의 아가씨'라고 부른 그 여자는 그를 더 깊이 매료시켰다. 한쪽을 찬미하면, 다른 한쪽을 알아가고 그녀의 삶 속 비밀을 파고들고 싶어진다.

그는 망설였다. 계산서를 내고 세 아이와 함께 떠난 후였다. 그를 따라갈까, 아니면 남을까? 누가 이길까? 초록 눈일까, 파란 눈일까?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 한 푼을 카운터에 던져 놓고 밖으로 나갔다. 초록 눈이 이겼다.

갑작스러운 광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초록 눈의 아가씨가 보행로에서 한 미남자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반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줍은 연인이나 질투심 많은 남편처럼 영국 여자를 바짝 따라다니던 인물이었다.

서로 격앙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오가는 대화는 오히려 논쟁에 가까웠다. 젊은 여자가 지나가려 하는데 미남자가 막고 있는 것이 훤했다. 너무 뚜렷해서 라울은 매너를 무시하고 끼어들까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파티세리 앞을 택시가 멈췄다. 내린 한 신사가 보행로의 장면을 보고 달려와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휘두르는 힘으로 유분수 바른 미남자의 모자를 날려 버렸다.

미남자는 깜짝 놀라 물러서더니, 모여드는 군중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다시 돌진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그가 소리쳤다.

새로 나타난 남자는 키가 작고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그는 방어 태세를 취하며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외쳤다.

"저 젊은 여자에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소. 나는 그녀의 아버지요, 당신 같은 것은 비열한 놈일 뿐이라고 말하오. 네, 바로 비열한 놈!"

두 사람 모두에게서 증오의 떨림이 일었다.

우아한 외모의 남자는 모욕을 받자 몸을 웅크리며, 새로 나타난 이에게 덤벼들 태세를整폈다. 그새 젊은 여자가 그의 팔을 잡고 택시 쪽으로 끌고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오른쪽 눈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는 기이한 표정, 그리고 비웃는 듯한 찌푸린 입가에 담배를 물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들을 떼어놓은 뒤, 남자의 지팡이를 빼앗으려던 찰나였다.

그것이 바로 라울이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불 좀 빌려주실래요?"

정말 타이밍이 안 맞는 요청이었다. 이 낯선 자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우아한 남자는 다시 몸을 비틀며 말했다.

"나를 내버려 둬요! 불이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담배를 피우시던데요." 낯선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대는 격분하며 그를 밀어냈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팔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장애물이 자신을 묶고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이 되었다.

그 남자의 두 손이 그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정도로 단단히 조여 있었기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철제 족쇄로 묶여도 이보다 더 마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낯선 남자는 끈질기고 집요한 어조로 계속 반복했다.

"불 좀 빌려주십시오. 불 한 개비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일이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잘생긴 남자는 격분해서 외쳤다.

"미친 척하냐? 내 말은 불이 없다는 거야."

그 남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정말 무례하네요! 이렇게 정중하게 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다니.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며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꽉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해방된 미남자는 재빨리 도망치듯 달렸다. 하지만 차는 이미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그를

공격했던 남자와 초록 눈의 아가씨가 함께였다. 기름칠한 머리 모양의 남자가 얼마나 애를 써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라울은 달리는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초록 눈의 아름다운 미지녀를 위해 돈키호테 행세를 했는데, 그녀는 내 이름을 묻지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다. 그녀를 다시 찾을 길이 없다. 그럼 어쩔 것인가?"

그때 라울은 결심했다. 영국 여자를 다시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아마刚才의 소동을 지켜보았을 터였다. 라울은 그녀가 멀어져 가는 뒤를 바짝 따라갔다.

라울 드 리메지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삶이 잠시 멈춰 선 듯한, 그런 시간 속에 서 있었다. 그에게 과거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래 역시 비슷할 것이 분명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삼십 사 살이라는 나이에, 운명의 열쇠는 여자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록 눈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는 푸른 눈의 빛에 맞춰 불확실한 발걸음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거의 즉시, 그는 다른 길을 간다고 가장했다가 되돌아오는 순간, 머리에 펌프질을 한 미남자가 다시 쫓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쪽에서 밀려난 그는 라울처럼 다른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다시 한 번 거리를 거닐었지만, 영국 여자는 자신에게 구애하는 두 남자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북적거리는 보도를 천천히 걸었다. 진열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도, 지나가는 남자들의 경례 같은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마들 광장에 도착한 그녀는 로얄 거리를 지나 생토노레 가까지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큰 콘코르디아 호텔로 향했다.

아름다운 청년은 잠시 멈춰 서서 안절부절못했다. 담배 한 갑을 사고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라울은 그가 문지기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삼 분 뒤, 청년이 다시 나갔다. 라울도 그제야 문지기에게 푸른 눈을 가진 그 영국 소녀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그때였다. 소녀가 현관을 지나 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작은 여행 가방이 이미 차에 실려 있었다.

그녀는 여행을 떠나는 걸까?

"차량, 저 차를 따라가."

라울은 택시를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영국 여자는 쇼핑을 마치고 여덟 시가 되자 파리 리용 역 앞에 내려, 뷔페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았다.

라울은 구석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담배 두 대를 피웠다. 그리고 아홉 시 삼십 분쯤 되자, 철도 회사 직원과 함께 대문 앞에서 다시 만났다. 직원은 그녀에게 티켓과 수하물 표를 건넸다. 그 후 그녀는 아홉 시 사십육 분 발 급행 열차로 향했다.

라울은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오십 프랑을 드리죠."

"레이디 베이크필드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몬테카를로입니다, 선생님. 그녀는 다섯 번째 차실에 타고 있습니다."

라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심을 했다. 푸른 눈은 그다지 멀리 갈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푸른 눈을 따라가서야 그는 초록 눈의 아가씨를 알게 되었으니, 이 영국 여자를 통해 그 미남자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초록 눈의 아가씨에 닿을 수도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 몬테카를로행 티켓을 끊으러 돌아갔고, 플랫폼으로 내달렸다.

그는 계단 위에 서 있는 영국 여자를 발견했다. 그는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고, 창문 너머로 그녀가 다시 보였다. 그녀는 서서 외투를 벗고 있었다.

인파는 드물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몇 해 전, 사월 말의 일이었다. 이 급행열차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침대차도 식당차도 없었다. 1등석 승객은 드물게 남을 뿐이었다. 라울은 단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 5호차의 가장 앞부분에 자리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플랫폼을 거닐었다. 차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나갔다. 베개 두 개를 빌렸다. 이동 도서관에서 신문과 소책자를 챙겼다. 호각 소리가 울리자, 그는 가볍게 도약해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사람처럼 3호차 안으로 들어섰다.

영국인 여성은 창가 옆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반대편 벤치, 하지만 복도 쪽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방이나 소포도 없이 나타난 낯선 남자를, 그녀는 놀라지 않은 듯이 흘겨보더니, 무릎 위에 벌려 놓은 큰 상자에서 거대한 초콜릿을 하나 집어 들며 다시 먹기 시작했다.

역무원이 지나가며 표에 구멍을 뚫었다. 열차는 교외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파리의 불빛들은 점점 멀어졌다. 라울은 지루한 듯 신문을 펼쳤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 그는 곧 그것을 치워 버렸다.

'별일 없군.' 그는 생각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 소식도 없다. 이 젊은 여성이야말로 훨씬 더 매력적이다!'

혼자서 작은 방에 갇혀, 특히 아름다운 낯선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거의 옆에서 잠을 청한다는 건, 그에게 늘 이상한 사교계의 관습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런 상황을 매우 재미있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독

서나 사색, 혹은 슬쩍 쳐다보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가 그녀 쪽으로 다가섰다. 영국 여자는 분명히 동행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말을 걸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라울 혼자서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 행동이 무례할지라도, 당신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초콜릿 한 개를 고르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 말씀이라면, 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마담……"

그녀가 바로잡았다.

"미스……"

"이렇게 말씀드리죠, 미스.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오늘 하루 종일 한 남자가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수상한 방식으로, 당신을 숨어서 말입니다."

라울의 말을 끊으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행동은 정말 무례합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기엔 놀라울 정도예요. 당신에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감시하라는 임무가 있나요?"

"그 남자가 수상하게 보여서요……"

"저기, 마레스칼 씨가 있군. 그분은 작년에 소개도 받았고, 내게 예의가 바르다. 내 칸으로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따라올 뿐이지."

라울은 자극을 받아 고개를 숙였다.

"잘했다, 미스. 명쾌한 반박이야. 나는 이제 입을 다물어야겠군."

"그렇다. 다음 역까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음 역에서는 내릴 것을 권한다."

"유감이다. 내 용무가 몬테카를로에 있어."

"그건 내가 그곳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의 일 아닌가?"

"아닙니다, 미스." 라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오늘 아침 오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에서 그분을 보게 된 이후부터의 일이지."

반격은 즉각이었다.

"틀렸어요, monsieur." 영국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초록 눈의 아름다운 소녀에게 반해 그녀를 쫓았으리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 스캔들 이후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니, 당신은 제 뒤를 쫓기 시작했죠. 먼저 콘

코르디아 호텔까지, 그리고 당신이 고발한 그 인물이 갔던 곳까지. 그 후엔 기차역 구내식당까지."

라울은 솔직하게 웃었다.

"제 행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니 기쁩니다, mademoiselle."

"저에게 놓치는 것은 없습니다, monsieur."

"그걸 알겠네요. 조금만 더라면 제 이름까지 말씀하시겠네요."

"라울 드 리메지. 탐험가, 티베트와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온."

라울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점점 더 기쁘군요. 그런데 저는 무슨 수사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수사는 필요 없소. 하지만 한 여인이 마지막 순간, 짐도 없이 자신의 객차로 뛰어 들어오는 남자를 본다면, 스스로를 위해 관찰해야 마땅하오. 그런데 당신, 브로슈어에서 두세 페이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명함을 끼워 넣었소. 그 명함을 읽고 나서, 라울 드 리메지가 최근 자신의 마지막 원정을 회상했던 인터뷰 기사를 떠올렸소. 아주 간단하오."

"정말 간단하오. 하지만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지."

"내 눈은 아주 훌륭하오."

"그런데 당신은 초콜릿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소. 열여덟 번째 초콜릿을 손에 쥐고 있구려."

"볼 필요 없이 보고, 생각할 필요 없이 추리할 수 있소."

"무엇을 추리했다는 것이오?"

"당신의 진정한 이름이 라울 드 리메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으면, monsieur, 모자 밑바닥에 적힌 이니셜은 H와 V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의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요."

라울은 점점 성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이 끊임없이 도전받는 상황을 싫어했다.

"그 H와 V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녀는 열아홉 번째 초콜릿을 쪼물쪼물 씹으며, 여전히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이 이니셜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저는 이 이니셜과 제가 한 번 주목했던 두 사람의 이름 이니셜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곤 합니다."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낯선 이름이니까요."

"그래도 말입니다……"

"호라스 벨몽."

"그 호라스 벨몽트는 대체 누구예요?"

"호라스 벨몽트는 숨어 있는 인물의 수많은 가명 중 하나예요."

"숨어 있는 인물이라니요?"

"아르센 뤼팽이죠."

라울이 폭소를 터뜨렸다.

"내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고?"

그녀가 반박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냥 당신의 모자에 적힌 이니셜이 저에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건데, 당신의 아름다운 성씨인 라울 드 리메지가 아르센 뤼팽이曾用했던 라울 다르데시라는 이름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훌륭한 답변이네요, 미스. 하지만 만약 제가 진짜 아르센 뤼팽이라면, 당신 앞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연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고한 리메지를 당신처럼 능숙하게 조롱하다니!"

그녀는 그에게 상자를 건넸다.

"당신의 패배를 위로할 초콜릿 한 개, 그리고 저를 자게 해 주시죠."

"하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무죄한 리메지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늘 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다소 비뚤어진 호기심이라 할까요."

"백필드 가문이라면 그런 호기심도 허용될 수 있겠네요." 그가 다소 무겁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보시다시피, 미스. 저도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쿡의 직원도 알고 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자, 라울이 말했다. "저는 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기회는 찾을 때보다, 찾지 않을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영국 여자가 결론을 내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향해 정면에서, 거리낌 없이 푸른 눈의 아름다운 미소를 건넸다. 그는 몸을 살짝 떨었다.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워."

그가 중얼거렸다.

"신비롭다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내 이름은 콘스탄스 베이크필드야. 몬테카를로에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해. 로드 베이크필드 경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같이 골프를 치자고."

그녀는 모든 운동에 열정적이듯 골프에도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신문사에 기사를 썼다. '보도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그녀는 정계 인사나 장군, 산업계의 거장, 유명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도둑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명 인사들의 일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monsieur."

그녀는 이미 두 손으로 스카프 끝을 얼굴 위로 끌어올렸다. 금발 머리를 베개 구멍에 파묻고, 어깨에 담요를 덮은 뒤, 벤치 위로 다리를 뻗었다.

'절도범'이라는 그 짧은 말에 소름이 돋았던 라울은 몇 마디 건네보았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그는 닫힌 문에 부딪힌 셈이었다. 더 이상 말없이 그녀의 반격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는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 사건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품 있고 매력적인, 신비롭고도 솔직한 그 아름다운 여인! 그녀의 관찰력은 얼마나 날카로웠던가. 그가 자신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았는지. 위험을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저지르곤 했던 작은 실수들을 어떻게 정확히 짚어냈는지. 그러니까, 그 두 글자 이니셜은……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실크로 된 모자 안감을 뜯어내어 복도 창문 너머로 던졌다. 그리고 다시 차실 안으로 돌아와 가운데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두 베개 사이에 몸을 파묻고, 게으른 듯 꿈결에 잠겼다.

세상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아직 젊었다. 지갑 안에는 손쉽게 벌어들인 지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영리한 머리속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고 큰 이익을 남길 스무 가지 구상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눈부신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깨어나는 그 매혹적이고도 아찔한 순간을 말이다.

그는 그 생각에 만족하며 잠에 빠졌다. 반쯤 깨어 있는 꿈속에서, 그는 하늘빛처럼 아름다운 푸른 눈빛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점차 예상치 못한 색으로 물들더니 초록빛, 즉 파도 빛깔로 변해갔다. 그는 그 눈이 영국 여자의 것인지, 파리의 여자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흐릿한 빛속에서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의 소녀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결국, 그 옆에서 잠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음이 평온해진 그는 그대로 잠들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위장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의 꿈은 언제나 즐겁다. 기차의 요동도 그 즐거움을 반감시키지 못한다.

라울은 흐릿한 나라들 사이로 흐느적거렸다. 그곳에는 파란 눈과 초록 눈이 반짝였다. 여행이 너무 즐거워, 그는 평소처럼 정신의 일부를 바깥으로 내보내 경계해 두지 않았다.

그건 실수였다. 기차 안에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특히 손님이 드물 때일수록 더 그렇다.

그는 앞차(네 번째 객차)와 연결된 통로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회색 긴 가운을 입고 얼굴을 가린 세 사람이 발소리 하나 없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또 다른 실수는 전구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커튼으로 전구를 가렸다면, 그 무리들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불을 켜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라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 남자는 권총을 쥐고 그대로 서성이며 감시병처럼 자리 지켰다. 나머지 두 남자는 손짓 몇 가지로 일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한 명은 첫 번째 여행자를 때릴 차례였고, 다른 한 명은 이불 아래에서 자고 있는 이에게 가기로 했다.

공격 명령은 낮게, 그러나 분명히 내려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낮았지만, 라울은 그 속삭임을 알아챈다. 그는 순식간에 깨어나 팔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몽둥이가 그의 이마를 강타했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느낄 수 있던 것은 목을 잡히는 감각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미스 베이크필드에게 달려드는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밤이 깊었고, 어둠은 짙어만 갔다. 그는 익사하는 사람처럼 발을 잃었다. 뒤늦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일관성 없고 고통스러운 감각들만이 남았다. 그 감각들로 비로소 현실이 전체로 재구성된다.

그는 단단히 묶였다. 입도 꽉 막혔고, 거친 천으로 머리까지 감겼다. 지폐는 모두 빼앗겼다.

"좋은 수확이군."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건 그저 입맛 돋우는 안주일 뿐이야. 저쪽은 잘 묶었나?"

"봉으로 한 대 때렸으니 기절했을 거야."

아마도 그 '다른 쪽'은 충분히 기절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묶여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했다. 욕설이 터져 나왔고, 몸싸움 소리가 들렸으며, 좌석 전체를 뒤흔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더니 비명이 들려왔다. 여자의 비명이었다.

"젠장, 이 년아!" 한 목소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발톱도 쓰고, 물기도 해. 그런데, 너 이 여자 알아?"

"당연히 너한테 묻는 거지."

"일단 입 다물게 해야겠군!"

그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 그녀는 점점 침묵했다. 비명은 잦아들었고, 헛기침과 신음소리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항했다. 그 모든 것이 림지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악몽이라도 꾼 듯, 공격과 저항의 모든 노력을 피부로 느끼며 서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복도에서 들려온 제3의 목소리, 분명 파수꾼의 목소리였다. 그는 억눌린 어조로 명령했다.

"멈춰! …하지만 제발 놔주게!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 응?"

"음,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수색은 해볼 수 있겠네요."

"멈춰! 그리고 조용히 해, 감히…"

두 공격자가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는 싸움질과 논쟁이 이어졌다.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라울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래… 더 멀리… 끝칸으로. 그리고 서둘러! 차장이 올 수도 있어…"

세 명의 도둑 중 한 명이 라울 위로 몸을 굽혔다.

"너, 움직이면 죽는다. 가만 있어."

세 사람은 반대편 끝으로 사라졌다. 라울은 그곳에 두 명의 여행자가 있다는 걸 눈치챈 곳이었다. 그는 이미 묶인 끈을 풀려 애썼고, 턱을 움직여 입에 막힌 것을 빼내려 했다.

그 옆에서 영국 여성이 점점 약해지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 불쌍한 여자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 봐, 온 힘을 다해 몸의 구속을 풀려 애썼다. 하지만 끈은 단단했고 매듭도 치밀었다.

그때, 그의 시야를 가리던 천이 느슨하게 매여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좌석에 짚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먼저 총성이 울렸다. 눈 가린 도둑 세 명과 두 여행자가 열차 끝칸에서 맞서고 있었다. 곧이어 한 도둑이 작은 가방을 든 채 허둥지둥 뛰어왔다.

기차는 이미 한두 분 전부터 속도를 늦췄다. 선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 지연된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공격이었다.

라울은 절망에 빠졌다. 잔인하게 묶인 밧줄에 몸을 부딪치며 간신히 말을 건넸다.

"참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둑들이 소녀의 목을 너무 세게 조랐나 보다. 목이 부러진 듯했다. 얼굴은 검은 반점으로 얼룩져 있고 경련이 일고 있었다. 질식사 직전의 증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라울은 그녀가 곧 죽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고 있었다.

그녀의 상체가 라울 쪽으로 굽혀졌다. 그는 거친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갈된 신음 소리 사이로, 그녀가 영어로 더듬어 내는 몇 마디가 들렸다.

"선생님…… 선생님…… 제 말 들어주세요. 저는 끝장났어요."

"아니야." 라울은 당황하며 말했다. "일어나 봐. 비상벨을 누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힘을 잃고 있었다. 라울이 몸을 풀 기회를 얻으리라는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평소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좌우해 왔기에, 이 끔찍한 죽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일어난 일들은 그의 통제력을 벗어나 버렸고, 폭풍우 같은 어지러움 속에 그를 휘감아 돌았다.

두 번째 가면을 쓴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권총을 든 채 다시 지나갔다.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고 있었다. 저쪽에서 두 여행자가 이미 쓰러진 모양이었다. 공사 현장 한가운데를 더디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살인자들이, 곧 조용히 도망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리메지의 큰 놀람에, 그들은 차일 compartment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마치 무서운 장애물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라울은 누군가가 통로를 지나가는 입구에서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마 순찰 중이던 역무원일지도 모른다.

곧이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는 그 무기를 손에서 놓아버렸다. 제복을 입은 한 직원이 그를 습격했고, 두 사람은 모두 카펫 위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동맹자, 즉 회색 조끼에 피 얼룩이 있는 작은 남자는 그의 머리를 너무 큰 모자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

모자에는 검은색 루스트린 가면을 달고 있었다. 그는 동료를 구하려고 애썼다.

"힘내라, 검표원!" 라울이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검표원은 이미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의 한 손은 동생 격인 범인에게 붙잡혀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의 범인이 다시 우위를 점하며 검표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난타했다.

그때 작은 키의 범인이 몸을 일으켰다. 일어서는 순간, 그의 가면이 걸려 떨어졌고, 함께 너무 큰 모자도 벗겨졌다. 그는 재빠르게 두 가지를 다시 얼굴에 덮으려 했지만, 이미 라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후에 오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에서 마주쳤던, 초록 눈의 아가씨였다. 금발에, 놀람과 창백함이 섞인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라울은 또렷이 보았다.

비극이 막을 내렸다. 공범 두 명은 도망쳤다.

라울은 경악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검표원이 결국 차장실 바깥의 작은 공간으로 올라가 비상 신호를 당기는 그 순간까지.

영국 여인은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헛된 소리를 중얼거렸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저를 들어주세요… 반드시… 반드시…"

"무엇을요? 제가 약속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반드시 가방을… 서류를 꺼내야 해요. 맹세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죽었다.

열차가 멈췄다.

제2장

미스 베이크필드의 죽음, 세 명의 가면 쓴 자들이 저지른 야만적인 습격, 두 여행자의 살해 가능성, 그리고 지폐를 잃어버린 일. 이런 일들은 라울의 마음속에서 그리 큰 무게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충격을 받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경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초록 눈의 아가씨!

그는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여성보다도 우아하고 매혹적인 그녀가,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빛나는 이미지가, 도둑이자 살인자의 추악한 가면 아래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첫 순간부터 남성으로서의 본능에 이끌려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녀는 피투성이 옷을 입고, 놀란 표정을 짓고, 두 명의 끔찍한 살인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약탈하고, 죽이고, 죽음과 공포를 뿌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모험가의 삶을 살아왔다. 수많은 공포와 추악함에 휘말리며, 그는 가장 끔찍한 광경에도 이미 단단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라울은 한 가지 앞에서는 혼란에 빠졌다. 계속 그를 라울이라 부르자. 아르센 뤼팽이 이 비극에서 이 이름을 빌려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라울 드 리메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잡을 수도 없는 현실 앞에 서서 당황했다.

사실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바깥은 소란스러웠다. 가까운 보쿠르 역에서 직원들이 달려나왔고, 선로 수리를 하던 노동자들도 합류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찾았다.

역무원이 라울의 묶인 줄을 끊었다. 라울의 설명을 듣는 사이였다. 그 후 역무원이 복도 창문을 열고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여기로! 여기로!"

라울을 돌아본 그는 물었다.

"저 젊은 여자, 죽었죠?"

"네.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대편 끝자리에도 여행객 두 명이요."

그들은 복도 끝으로 재빨리 걸었다.

마지막 칸에는 시체 두 구가 누워 있었다. 아무런 어수선한 흔적도 없었다. 선반 위는 텅 비어 있었다. 가방도, 짐도 없었다.

그때 역무원들이 이쪽 차문을 열려 애쓰고 있었다.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본 라울은 이제야 이해했다. 세 명의 도둑이 복도 끝으로 되돌아와 첫 번째 문으로 도망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이들은 배기구 통로를 따라 내려왔고, 이미 두 칸의 객차 안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위압적인 어조로 울려 퍼졌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아니, 이 총은 그대로 두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품입니다. 그리고 모두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객차는 곧 분리되고, 기차는 바로 다시 출발합니다. 맞죠, 역장님?"

혼란스러운 순간, 누군가 단호하게 말하고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 흩어진 의지들이 그 지도자의 에너지처럼 보이는 힘에 순종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강렬하게 표현했다.

라울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놀랍게도 미스 베이크필드를 따라다녔고, 초록 눈의 아가씨에게 다가갔던 남자를 알아챘다. 라울이 성냥

을 빌렸던, 즉 머리에 펌프질을 한 그 미남자를 말이다. 영국인이 마레스칼 씨라고 부르던 인물이었다.

그는 소녀가 누워 있는 차실 입구에 서서, 다른 승객들의 진입을 막고 그들을 열린 문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차장님, 작업 현장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가장 가까운 헌병대에 전화해 의사를 부르시고, 로미오 검찰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세 건의 살인입니다." 검표원이 바로잡았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도망쳤고, 그 두 남자가 저를 습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르스카르가 말했다. "선로 작업원들이 그림자를 보고 쫓고 있습니다. 절토 위쪽에는 작은 숲이 있고, 사방과 국도 따라 수색이 한창입니다. 누구라도 잡히면 여기서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짧고 강경한 제스처를 취하며 권위 있는 태도로 말을 이었다.

라울은 점점 더 놀랐다. 그러자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 뽀송거리는 남자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토록 놀랄 만큼 당당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보통 이런 인물들의 당당함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마레스칼이 미스 베이크필드를 오후 내내 쫓아다녔다는 사실, 출발 시간 전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도 네 번째 차에 타고 있어 살인이 자행되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차와 차를 잇는 다리. 바로 그 다리를 통해 세 명의 가면 쓴 강도가 나타났고, 그중 한 명, 첫 번째 강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나설 줄 알고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 안의 승객들은 모두 내렸다. 남은 건 검표원뿐이었다. 라울은 제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막혔다.

"저기요, 선생님!" 라울이 말했다. 마레스칼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저기요! 제가 원래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마레스칼이 거들었다. "범죄가 저질러진 장소는 모두 사법의 영역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검표원이 나섰다.

"이 승객은 공격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그를 묶고 모든 것을 털어갔습니다."

"유감스럽군요." 마레스칼이 말했다. "하지만 지시는 명확합니다."

“어떤 지시죠?” 라울이 성내며 물었다.

“내 지시입니다.”

라울은 팔짱을 꼈다.

“도대체 누구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당신 같은 자가 다른 이들은 참아 줄지언정, 나는 감당할 기운이 없습니다. 법을 정하듯 굴다니, 그 무례함은 도가 지나쳤소.”

아름다운 외모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로돌프 마레스칼. 국제 수사국 소속. 내무부 소속 직원이오.”

그 표정은 마치 ‘이런 직급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듯했다. 이어 그는 덧붙였다.

“사건 수사를 내가 주도한 것은 역무원과 상의한 결과요. 또한 나의 전문적 역량이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오.”

라울은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마레칼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못했지만, 갑자기 그의 기억을 건드렸다. 그 이름은 그 동안의 사건들에서 이 위임장이 놀라운 식견과 능력을 보였다는 흐릿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쨌든 그에게 반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내 탓이야,' 라울은 생각했다.

영국 여인을 찾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데 집중했어야 했는데, 가면을 쓴 소녀와 감정을 나누느라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괜찮다. 그 자존심 강한 놈을 반드시 다시 붙잡아 보겠다. 그가 어떻게 이 기차에, 정확히 이 타이밍에, 방금 본 두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주인공인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는지 꼭 알아내리라.

그때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자.

존경하는 어조로, 높은 지위의 위엄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말투였다.

"실례합니다, 각하. 저는 파리 생활이 짧고 대부분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각하의 명성이 제게까지 전해진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화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귀걸이 사건이 기억나네요."

마레스칼은 가슴을 쭉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로랑티니 공작부인의 귀걸이 사건 말이지요. 그건 정말 잘 처리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헌병대, 특히 조사판사의 도착 전에,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까지 왔군요." 라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분들은 결론만 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 presence가 도움이 된다면, 내일까지 여행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만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말을 마치고는 다시 떠나야 했다. 차는 측선으로 들어가고, 기차는 멀리 사라졌다.

마레스카는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라울을 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라울에게 역으로 가서 시체들을 덮을 이불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라울은 재빨리 내려서 차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복도 쪽 세 번째 창문 높이까지 몸을 올렸다.

'맞아. 내가 생각한 대로였군.' 라울이 생각했다. '그 뽀드득거리는 녀석은 혼자 남고 싶었어. 뭔가 prelimenary한 계략을 꾸미려는 거지.'

마레스칼은 실제로 젊은 영국인 여성의 시체를 살짝 들어 올리고 여행용 코트를 살짝 열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작은 빨간 가죽 파우치가 있었다. 그는 버클을 풀고 파우치를 꺼내 곧장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라울은 마레스칼의 뒷모습만 보고 있어, 그의 표정으로 봐서 그가 그 서류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중얼거리며 나섰다.

"얼른 한다고 해서 소용없어, 친구. 나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거야. 이 서류들은 나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거고, 나 외에는 누구도 그 권리를 가질 수 없어."

그는 맡은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역장 부인과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밤을 새워 고인을 지킬 참이었다. 마레스칼은 그에게 숲속에서 두 명의 남자를 포위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덤불 한가운데 숨어 있었다.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라울이 물었다.

"없습니다." 마레스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절뚝거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두 뿌리 사이에 낀 구두 뒤꿈치 조각을 주웠죠. 하지만 그것은 여성용 구두 뒤꿈치였습니다."

"즉, 아무런 상관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영국인 여자의 시신을 널었다. 라울은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불행한 동행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스 베이크필드, 당신을 갚아주겠소. 당신을 지켜주고 구해내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당신의 살인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는 초록 눈의 아가씨를 떠올리며, 그 수수께끼의 여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맹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러곤 소녀의 눈꺼풀을 내리고, 창백한 얼굴 위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정말 아름다웠소. 그녀의 이름이라도 아시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마레스칼은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 가방이 하나 있구려."

"그것은 검찰단 앞이 아니면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마레스칼이 가방을 어깨에 메며 말했다. "도둑들이 이 가방을 훔치지 않은 게 오히려 신기하군요."

"안에는 서류 같은 것이 들어 있겠지요."

"우리는 검찰청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총감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을 강탈한 도둑들은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손목시계도, 브로치도, 목걸이도요."

라울은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매우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왜곡하게 되었고, 그는 세 번째 공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외모만 설명했을 뿐, 그들 사이에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숨겼다.

마레스칼은 경청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한 명의 경관을 남겨두고 다른 한 명을 데리고 두 남자가 누워 있는 승객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외모가 닮았다. 하나는 훨씬 어렸지만, 둘 다 평범한 얼굴 생김새, 굵은 눈썹, 그리고 핏줄이 맞지 않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젊은 쪽은 정강이에 총알이 박혔고, 다른 쪽은 목을 맞았다.

가장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마레스칼은 그들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살폈다. 그다음 주머니를 뒤졌고, 결국 같은 천으로 그들을 덮어주었다.

"소장님." 라울이 말했다. 마레스칼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눈치챈 그는 계속했다. "진실의 길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장인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잠깐만요, 몇 마디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안 되겠어요?" 마레스칼이 라울을 다른 칸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헌병대가 곧 올 테고, 의사도 오겠지요. 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하고, 그 이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제가 처음 조사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 잘난 체하는 녀석아.' 라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다 더 나은 동행자를 어디 구하겠어.'

그는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게 어색한 듯했다. 정말 영광이고 기쁜 일이었다. 총경은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을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일부 모순에 휩쓸리거나 디테일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핵심 사실을 반드시 부각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이 두 가지가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죠.

첫째, 이겁니다. 당신이 '젊은 영국인 여자'라고 부른 그분은 오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네, 오해죠. 놀라지 마십시오. 제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차가 의도적으로 감속하던 시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칸에 있던 강도들이 당신을 습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엿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세 명쯤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털고, 옆자리의 그 여성을 공격해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더 멀리, 차체의 끝 칸으로 사라져 버렸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지? 왜?"

"그들이 잘못 본 거야. 그 젊은 여자가 이불 속에 숨어 있었거든. 그들은 두 남자를 향해 돌진할 줄 알았는데, 정작 나타난 건 여자였어. 그래서 놀란 거지."

"'젠장, 이런 괘씸한 년이!' 하고는 급히 물러났지. 그리고 복도를 뒤져서 그들이 찾고 있던 두 남자를 발견했어. 바로 그 두 사람이야. 그런데 그 두 남자는 끝까지 저항했지. 총으로 그들을 쏴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지갑도 모자도 남김없이."

"짐도, 가방도, 모자까지 모두 사라졌지. 첫 번째 단서가 명확하게 정립된 거야, 그렇지?"

라울은 놀랐다. 그 가설 자체는 처음부터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레스칼이 그토록 날카로운 통찰력과 논리로 그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는 점이 더 놀라울 뿐이었다.

"두 번째 점입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상대방의 찬사가 그를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라울에게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은제 상자를 건넸다.

"벤치 뒤에서 주웠습니다."

"담배갑인가요?"

"네, 오래된 담배갑이지만 지금은 담배 케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담배가 딱 일곱 개 있네요. 금발 담배, 여성용입니다."

"남성용일 수도 있죠." 라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결국 여기에는 남자들만 있었으니까요."

"여성용이라고 강조합니다."

"말도 안 돼!"

"상자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가 상자를 라울 코앞에 가져갔다. 라울은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맞아요… 여성 향수 냄새가 납니다. 손수건, 분, 휴대용 분무기 가방과 함께 담배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여자의 향이죠. 냄새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여기에서 발견된 두 명의 시체와, 살인 후 도주한 두 명의 공격자. 그게 전부야."

"남자와 여자 한 명씩은 아닐까?"

"뭐라고? 여자라니? 그 도둑 중 한 명이 여자라고?"

"그리고 이 담배갑은?"

"증거가 부족해."

"나한테는 다른 증거가 있어."

"무슨?"

"구두 굽이야. 숲속, 두 뿌리 사이에 떨어져 있던 구두 굽 말이지. 이걸로 내가 말한 두 번째 결론, 즉 '공격자 두 명 중 한 명은 여자'라는 주장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마레스칼의 통찰력이 라울을 짜증나게 했다. 그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치아 사이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정말 대단하군."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그게 다야? 다른 건 없나?"

"에이, 웃으며 말했지. 숨 좀 돌릴 시간을 줘!"

"당신은 밤새도록 일할 셈인가?"

"두 피고인이 붙잡힐 때까지는 최소한 그래야지. 내 지시를 따랐다면 곧 끝날 일일세."

라울은 마레스칼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니 복잡한 일은 남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신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품을 하며 말했다.

"즐겁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로서는 이런 긴장감이 제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두 시간쯤 쉬는 게……"

"그걸로 충분하오. 어느 칸이든 잠자리로 쓰실 수 있소. 이쪽 칸을 쓰게. 내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겠소. 내가 다 끝내고 나면, 나도 여기서 쉬러 올 테니."

라울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당겼다. 그리고 밝은 전구를 가리는 덮개를 씌웠다.

그때까지 라울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어난 일들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 신중하게 고민

할 해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마르스칼의 의도를 엿보고, 그의 행동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자네, 내 기름칠한 친구여. 이제 내가 자네를 잡았네. 자네는 우화 속 까마귀와 똑같아. 칭찬을 하면 입이 벌려지거든. 눈치가 빨고 식견도 있군. 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 알 수 없는 여자와 그 공범을 감금하다니, 그건 내가 직접 해야겠어. 다른 사람이 하려니 너무 아깝지.'

그때였다. 역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금세 소동이 일기 시작했다. 라울이 귀를 기울였다. 마레스칼이 복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 아, 완벽하군. 헌병들이로군…… 내가 착각한 게 아니지?"

그가 대답했다.

"역장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총감님."

"자네가 소대장이군? 체포라도 한 건가?"

"한 명만 잡았습니다, 치안국장님. 추적이 한창이던 중 한 명이 지쳐서 이 곳에서 일 킬로미터쯤 떨어진 대로변에 쓰러졌거든요. 나머지 한 명은 도망쳤습니다."

"의사는요?"

"우리가 지나가는 틈을 타 말에 탈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길에서 다른 진료를 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사십 분 안으로 올 것입니다."

"잡은 그 두 명 중 더 작은 아이였습니까, 병장?"

"얼굴이 하얗게 질린 작은 아이였습니다…… 모자도 얼굴에 비해 너무 크고요. 울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속을 하더군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에게만요. 판사님은 어디 계신가요?'라고요."

"그 아이를 역에 그대로 두었습니까?"

"철저한 감시 하에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

"차장님, 괜찮으시다면, 먼저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장이 경관 한 명을 데리고 계단을 올랐다. 마레스칼은 계단 꼭대기에서 그를 맞았으며, 곧장 젊은 영국 여자의 시체 옆으로 그를 안내했다.

"다 잘 돼." 라울은 두 사람의 대화를 한 마디도 놓치지 않았기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른 머리 한 남자가 설명을 시작하면,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정신이 어지럽게 얽힌 속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도대체 어떤 숨은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뜻밖의 의도들을 뚜렷이 구분해 낼 수 있었다.

그는 큰 유리창을 내리고 레일 두 줄 사이로 몸을 굽혔다. 사람은 없었다. 빛도 없었다.

그가 뛰어내렸다.

제3장

보쿠르 역은 한적한 시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한 채 없는 외진 곳이었다.

철로와 직각으로 뻗은 길이 역을 연결했다. 그 길은 보쿠르 마을을 거쳐 로미오로 이어졌고, 거기에 군대 주둔지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세르까지, 그곳에서 판사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도 5번이 철로를 따라 5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어졌고, 역은 그 길과 직각으로 마주했다.

역 플랫폼 위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불빛을 모아 놓았다. 전등, 촛불, 등불, 횃불까지. 그래서 라울은 발걸음을 매우 조심스럽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역장은 직원 한 명, 노동자 한 명과 함께 파견된 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군인은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다. 그는 화물실 문 앞

에 서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화물 처리를 위한 공간이었다.

방 안은 반쯤 어둑했다. 바구니와 작은 상자 더미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온갖 종류의 소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라울이 가까이 다가가자, 물건 더미 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일 거야. 초록 눈의 아가씨지.'

라울은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뒷문 자물쇠를 돌리면 감옥은 완성돼. 간수들은 유일한 출구만 지키고 있으니까.'

상황은 유리해 보였다. 다만 마레스칼이나 병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했다. 그는 우회로를 뛰어가 역 뒷면으로 향했다. 사람 한 명 만나지 않은 채였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다. 더 이상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승강기에서 수군거리는 작은 무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등록실로 들어갔다. 왼쪽에는 문이 하나, 중앙에는 계단이 있는 현관이 있었고, 현관 오른쪽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장소의 배치로 보아 그곳이 맞을 것이다.

라울에게 자물쇠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는 늘 주머니에 네다섯 개의 작은 도구들을 지니고 다녔고, 그 도구들로 가장 고집 센 문도 손쉽게 열었다. 첫 시도만으로도 자물쇠는 순종했다.

문을 살짝 벌리자,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고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방 안의 포로가 울부짖는 소리조차 그의 발걸음을 가릴 뿐이었다.

그 노동자는 숲속을 쫓아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등불 빛이 쏟아지는 수풀 속에서 '사냥감'을 발견한 장본인이었다.

그가 부르는 다른 동조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그는 토끼처럼 달아났지만, 이내 발길을 돌려 어린 아이를 끌고 돌아왔다.

다만 밤이 너무 어두워 사냥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노동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여자의 그것처럼 기이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외쳤죠. '판사는 어디 있느냐… 내가 다 말할 테다… 판사 앞으로 나를 데려가라!'"

청중들이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라울은 그 틈을 타 두 줄로 쌓인 빈 상자 사이로 고개를 쑥 밀어 넣었다. 그는 이제 포박된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우체국 소포 더미 뒤쪽에 서 있게 되었다.

이번엔 분명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갑자기 멈췄기 때문이다.

라울이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기욤?"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다.

라울은 그녀가 다른 도망자를 묻는 줄 알고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경찰관들로부터 구해 줄 사람입니다."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함정일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하지만 라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사법 기구에 잡힌 상태입니다. 저를 따르지 않으면 감옥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는 저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두 명이 죽었잖아. 당신의 가운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어서 와. 잠시라도 망설이면 안 돼. 어서 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속삭였다.

"손이 묶여 있어요."

그는 여전히 쪼그리고 앉은 채 칼로 묶인 끈을 잘랐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있나?"

"경관만 볼 수 있어요. 그가 돌아설 때요. 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왼쪽에 있어서요."

"괜찮아. 잠깐만. 들어봐."

승강기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마레스칼의 목소리를 알아봤다. 그러자 그는 명령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자, 그들이 오고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어. 들리나?"

"오, 무서워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목소리가…… 주님, 정말일까요?"

"네, 마레스칼의 목소리야. 네 원수의 소리지."

"하지만 두렵지 않아야 해. 기억해, 방금 전 대로에서 그와 네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었잖아. 바로 나였어. 그러니 겁내지 말아."

"하지만 그가 들어올 거야…"

"그건 장담할 수 없지."

"만약 들어온다면?"

"잠든 척, 혹은 기절해 있는 척해. 팔을 꼬아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마."

"만약 나를 보려고 하거나, 나를 알아본다면?"

"대답하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단 한 마디도 하지 마. 마레스칼은 당장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할 거고, 그러면…"

라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레스칼이 자신의 착오가 아닌지, 그리고 그 도적이 정말로 여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일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그래서 그는 즉각 심문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그는, 직접 감옥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실, 경찰서장은 곧장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역장님, 새로운 소식입니다! 당신 역에 죄수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죄수라니요! 보쿠르 역이 이제 유명해지겠군요. 반장, 이 장소는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첫 번째부터 정면으로 목표에 접근했다. 라울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끔찍한 대결이 이 남자와 이 소녀 사이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몇 가지 동작과 몇 마디 말만으로도 초록 눈의 아가씨는 돌이킬 수 없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울은 잠시 후퇴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적들의 무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결국 운에 맡기기로 했다.

마레스칼은 밖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만 바라보고 싶은 그 움직이지 않는 형상을 숨기려 했다. 라울은 상자들 뒤에 숨어 충분히 보호받고 있었기에, 마레스칼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commissaire는 멈춰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자고 있는 것 같군… 어이, 동지, 잠깐 수다 떨 수 있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버튼을 누르고 빛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모자만 두 개, 그리고 팔뚝 두 개가 보였다. 그는 팔을 밀쳐내고 모자를 들어 올렸다.

"이제 됐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자다… 금발 여자다! 자, 애야. 예쁜 얼굴 좀 보여다오."

그가 억지로 머리를 돌려 얼굴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너무도 기이해서, 믿기 힘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다른 동료가 다가오지 않도록 입구를 살폈다. 그러곤 초조하게 모자를 벗어 던졌다. 얼굴이 드러났고, 빛이 고스란히 비쳤다.

"에일! 에일!" 그가 속삭였다. "내가 미쳤나 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여기? 살인자라니? 그녀가!"

그는 몸을 더 기울였다. 포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마레스칼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이에요! 무슨 기적인가요? 그러니 당신도 사람을 죽였군요. 그리고 헌병들이 당신을 데려왔고,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자고 있는 듯했다. 마레스칼은 말을 멈췄다. 혹시 정말 잠든 걸까?

"그렇군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치우고 다시 올게요. 한 시간 후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요. 음, 이제부터는 조용히 해야겠네요, 우리 작은 친구여."

그는 무슨 뜻이었을까? 끔찍한 거래를 제안하려는 걸까?

속으로는 라울이 직감했듯, 그에게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건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금발 머리 위에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모두 정리했다. 그러고는 블라우스 단추를 살짝 풀고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그는 몸을 일으켰고, 당황한 나머지 방과 문에 대한 조사는 잊어버렸다.

"이상한 애군."

그가 무리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확실히 스무 살도 안 됐어… 동료가 꾀어낸 어린 도둑일 거야."

그는 말을 이었지만, 생각이 어딘가로 흩어진 듯했다. 그의 말투에서는 혼란과 깊은 사색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잠시 preliminary 조사 결과를 검사청 형사분들께 보고드리면, 그분들이 꽤 흥미로워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서 제가 경비를 서겠습니다, 반장님. 아니,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당신도 좀 쉬세요."

라울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소포 더미에서 끈으로 동여맨 세 개의 주머니를 집어 들었다. 천의 색은 포로가 남자 아이 복장을 숨기고 입었던 작업복과 거의 비슷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 하나를 들어 올리고 속삭였다.

"다리를 저 쪽으로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죠. 원래 자리 대신요. 하지만 너무 움직이지는 마세요. 그다음에는 몸을 저쪽으로, 그리고 머리를 저쪽으로 기울이세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소녀가 움직이지 않자, 라울은 다시 한 번 지시를 반복했다.

"제발, 따라해 주세요. 마레스칼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를 모욕했잖아요. 그는 당신을 손아귀에 넣었으니,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제 쪽으로 다리를 조금씩 당겨 주세요."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작은 동작으로 몸을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느리게. 그 동작을 끝내는 데 최소 삼 사 분은 걸렸다.

작전이 끝나자, 그녀 앞에는 조금 높은 곳에 회색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형체는 그녀와 똑같은 윤곽을 띠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경관과 마레스칼이 눈길만 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고 믿을 만했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소리를 높여 대화하는 사이를 노려보세요. 몸을 미끄러뜨리듯 내려가세요."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허리를 굽힌 채로 끌어당겼다. 현관문에 살짝 비껴난 틈새로. 복도 안에서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그들은 수하물실을 지나쳤다.

하지만 역 앞의 넓은 공간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녀는 기절할 듯 쓰러져 거의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절대… 나는 할 수 없어." 그녀가 신음했다. "절대…"

힘들지 않게 그 여자를 어깨에 메고, 그는 로미오와 오세르로 이어지는 길을 표시하는 나무 무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감을 붙잡았다는 생각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미스 베이크필드를 살해한 여자는 이제 다시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행동이 사회의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는 무엇을 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혹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정의에 대한 강한 갈망이 그를 이끌고 있으며, 처벌은 상황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이백 걸음쯤 더 나아간 곳에서 그는 멈춰 섰다. 숨이 차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나뭇잎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나 밤의 작은 동물들이 슬쩍 지나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거대한 침묵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에요?" 소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일은 없어. 오히려 좋아. 말 한 마리가 지나가는 소리였어. 아주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소리였지. 정말 다행이야. 이 소리가 당신을 구원할 거야."

그는 어깨에서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를 안듯 두 팔로 그녀를 받쳐 들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삼사백 미터를 이동했고, 그 결과 그들은 나무들의 어두운 가지들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국도의 교차점에 도착했다.

그들은 언덕 가장자리에 앉아 쉬었다. 풀잎이 젖어 있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무릎에 누워 있어.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들리는 차 소리는 부른 의사 차야. 그 노인을 나무에 단단히 묶어 치워 버릴 거야. 우리는 그 차에 올라 다른 노선의 어느 역까지 밤새 달릴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가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워져 있었다. 그녀는 혼돈에 빠진 듯 중얼거렸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다고…"

"잠깐이나 해." 라울이 날카롭게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잠든 시골의 넓은 평화는 그들 주변으로 고요함과 안전의 공간을 넓게 펼쳤다. 어둠 속에서 가끔씩 말의 발굽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어딘지 모를 먼 곳에서, 마차의 등불이 두세 번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크게 뜬 눈처럼 빛났다. 역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아무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라울은 기이한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수수께끼의 살인자,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탓에 그 리듬이 그의 가슴속까지 전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여덟 시간 전, 아홉 시간 전쯤 목격한 파리 여인이 떠올랐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듯했다.

서로 완전히 달랐던 두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섞여 들어갔다. 눈부신 그 여인의 기억은 그가 영국 여성을 죽인 여자에 대해 품고 있던 증오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정말로 증오가 있었을까? 그는 그 단어를 붙잡고 냉정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증오한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살인자다. 영국 여성은 그녀의 탓, 그리고 그녀의 동조자들의 탓으로 죽었다. 나는 그녀를 증오한다. 베이크필드 여사의 복수를 반드시 이루겠다."

하지만 라울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부드러운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불행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곤 하죠.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문득 범죄가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잘 해결됩니다. 당신을 저에게 맡기세요. 일이 순조롭게 풀릴 테니까요."

그는 그녀가 점차 깊은 평온에 잠겨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떨게 하던 열병 같은 발작에서 벗어났다. 악몽과 불안, 공포, 밤과 죽음의 끔찍한 세계들이 모두 가라앉았다.

라울은 자신의 영향력과 마력 같은 힘이 어떤 이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circumstance가 흔들린 그들에게 평온을 되찾아 주고 끔찍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그 힘을, 격렬한 쾌감으로 음미하고 있었다.

라울도 역시 그 비극에서 눈을 돌렸다. 죽은 영국 여인의 모습은 그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그가 가슴에 꼭 껴안은 이는 피투성이에 절뚝이는 여자가 아니라, 파리에서 빛나던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내가 반드시 그녀를 응징할 거야. 그녀가 고통을 느끼게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지만, 어떻게 가까운 입술에서 느껴지는 상쾌한 숨결을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등불의 빛이 점점 더 커졌다. 의사가 도착하기까지 단 여덟 분, 많아야 열 분만 남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울이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떨어지고, 움직여야 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이 순간처럼, 이렇게 밀도 깊고 친밀한 순간을 다시는 그녀와 나 사이에 되찾지 못할 거야.'

그는 몸을 더 기울였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자신의 보호에 몸을 맡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금의 상황이 가장 좋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위험이 멀어졌으니까.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는 약하게 몸부림쳤지만, 한숨만 내쉬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 다정함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뒤로 젖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스의 부드러움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은 몇 초 동안 이어졌다. 그러자 반발심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팔을 굳게 쥐고, 갑자기 솟은 기운으로 몸을 빼냈다. 신음하며 소리쳤다.

"아! 정말 끔찍해요! 아, 치욕이요! 나를 놓아줘! 나를 놓아줘! … 당신이 하는 일은 비열해요."

그는 비웃으려 했지만, 그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를 욕설로 공격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밀쳐내고 밤속으로 도망치는 사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쨌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성역을 범한 줄 아는 거야?"

그는 다시 일어나 성토를 넘나들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 있을까? 두꺼운 수풀이 그녀의 도주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를 따라잡을 희망은 전혀 없었다.

그는 욕을 내뱉으며 저주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모욕당한 남자의 증오와 원한만 가득했다. 그는 기차역으로 돌아가 경보를 울리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도로에서 나왔고, 아마도 언덕 뒤에 숨겨진 곳, 그가 차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던 지점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실제로 두 개의 등불을 보았다. 하지만 등불은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차는 멀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평온한 말의 trot이 아니었다. 채찍질에 흥분한 짐승의 gallop이었다.

두 분 후, 라울은 비명 소리에 이끌려 어둠 속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덤불과 가시덤불 사이에서 손발을 벌리며 몸짓하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알아챘다.

"당신은 로미요의 의사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역에서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했죠…… 당신을 습격당하셨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길을 묻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멈춰 서자, 그가 목을 조르더니 묶어서 가시덤불 속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까?"

"혼자서요?"

"아닙니다. 누군가와 합류했죠. 그걸 보고 제가 소리친 겁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하지도, 아주 낮게만 수군거렸죠. 그들이 떠난 직후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울은 그를 설득하듯 이끌며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제 손수건으로요."

"목을 조르는 방법도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죠." 라울이 말하며 수건을 집어 들었다. 그는 의사를 뒤로 밀쳐 눕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일 채비를 했다.

그 수업 뒤에는 또 다른 작업이 이어졌다. 기마용 담요와 윌리엄이 사용했던 고삐로, 정교하게 몸을 묶는 작업이었다. 공격자가 윌리엄이라는 점, 그리고 그 소녀가 그를 따라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시나 쐐기풀도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라울은 포로를 이끌며 말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밤을 보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이끼가 햇볕에 말라버린 듯하군요. 건조하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박사님. 제가 만약 어쩔 수 없이…"

리메지는 이때 두 도망자를 반드시 붙잡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는데도, 목을 조르는 대신 입맞춤을 하고 다니다니.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이 맑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날 밤, 리메지의 마음속 계획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마다 어긋났다.

의사를 떠난 뒤에도 그는 처음의 계획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구상을 떠올렸다. 군용 기마대 기병의 말에 올라타, 그 말로 자신의 작전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군용 기마대 말 세 마리가 역 앞 차고에 묶여 있고, 그 앞에 한 명의 직원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본 바 있었다. 그는 그 차고로 다가가서 직원을 찾았다. 직원은 작은 등불 불빛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다.

라울은 칼을 빼서 말의 끈 중 하나를 자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세 마리의 말에 묶인 끈을 모두 느슨하게 풀고, 안장 끈과 고삐 끈을 조심스럽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씩 잘라냈다.

이제 초록 눈의 아가씨를 쫓는 일은, 그녀의 실체가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불가능해졌다.

라울은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악녀가 눈에 밟혀 죽는다. 그녀를 법정에 세우고 복수의 맹세를 지키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텐데. 그런데 내 모든 노력은 오히려 그녀를 구하는 데로 향하고 있다. 대체 왜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자색 눈동자를 가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이제 그녀가 자신의 품에 기댈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녀를 지키지 않을 리 없었다. 입맞춤을 나눈 여인을 어찌 팔아넘기겠는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손길에 전율했고, 그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있어 그 밤의 뜨겁고도 간절한 입맞춤은 모든 사건과,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 명령하는 모든 결단을 압도했다.

그래서 그는 마레스칼과 다시 연락해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내고, 동시에 콘스탄스 베이크필드가 건넨 그 작은 가방과 젊은 영국 소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두 시간 후, 마레스칼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라울이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던 차실의 벤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깜짝 놀라 깬 라울은 불을 켜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머리 위쪽 빗결은 흐트러졌으며, 수염은 축 처진 형사의 모습을 보고 외쳤다.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 정말 알아볼 수가 없네요!"

마레스칼은 더듬거렸다.

"모르세요? 소문도 못 들으셨나요?"

"아무것도요. 이 문이 저에게 닫힌 이후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도망쳤어요!"

"살인자가!"

"그녀를 붙잡았다는 말인가?"

"누구를? 두 사람 중 누구를?"

"그 여자 말이다."

"정말 여자였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녀를 붙잡지 못한 건가?"

"붙잡기는 했다. 다만……"

"다만, 뭐?"

"그건 의상 더미였지."

추적을 포기한 라울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즉각적인 복수심에서 행동했다. 모욕을 당한 그는 이제 다른 이를 모욕하며 장난치려 했다. 바로 마레스칼이 그 대상이었다. 마레스칼은 쉽게 무너졌고, 라울은 그 모습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재앙이군." 라울이 말했다.

"맞습니다. 재앙입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서 하나도 없는 건가?"

"전혀 없다."

"공범의 흔적도?"

"공범이라고?"

"도주 계획을 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의 신발 자국을 이미 알고 있어. 숲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찍혀 있던 자국들이지. 그런데 역을 나온 직후,

진흙 웅덩이에서 발heel 없는 신발 자국 옆에 완전히 다른 자국들이 발견됐어. 발 크기가 더 작고, 밑창 끝이 뾰족한 자국들이야."

라울은 진흙투성이인 자신의 구두를 벤치 아래로 최대한 숨기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외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인가?"

"물론이지. 그리고 내 생각엔, 그 누군가가 살인자와 함께 의사의 차를 타고 도망쳤을 거야."

"의사의 차?"

"그렇지 않으면, 그 의사가 눈에 띄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건, 그가 차에서 떨어뜨려져 어딘가의 구덩이에 묻혀버렸다는 뜻이야."

"차라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헌병대 말들이요."

라울은 말들이 피신해 있던 창고 쪽으로 달려가, 그중 한 마리에 올라탔다. 하지만 안장이 순식간에 빙글 돌더니, 그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지키고 있던 자가 잠든 사이, 누군가 안장의 고삐와 배대를 모두 벗겨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추격 따위 불가능했습니다."

라울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천만에, 정말 당신을 상대할 만한 상대군요."

"장인입니다, 선생님. 전 아르센 뤼팽과 가니마르 형사가 맞붙었던 한 사건을 면밀히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의 수법은 그와 같은 장인적 솜씨로 꾸며졌죠."

라울은 냉정하게 말했다.

"정말 재앙이군요. 결국, 당신의 앞날을 위해 이 체포에 많은 걸 기대했던 거죠?"

"네, 정말요." 마레스칼은 패배감에 마음이 풀렸는지 점점 더 털어놓게 되었다. "부처에 강력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말하자면 즉각적인 체포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의 파장이라든가. 위장하고, 젊고, 예쁜 이 범죄자의 스캔들이라든가. 그날부터 다음 날까지, 저는 온통 빛속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마레스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는 말을 하고 영혼의 깊은 곳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 비록 그 후로 후회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마음을 열었다.

"게다가 그건 내가 적진 한복판에서 거둔 승리의 가치를 두 배, 세 배로 높여주었어!"

"두 번째 승리라니요?"

라울이 감탄하며 물었다.

"그래, 이번 건 완전히 끝난 승리지."

"완전히?"

"당연하지. 이제 누가 뭐래도 그 승리를 빼앗아갈 사람은 없어. 상대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젊은 영국 여자를 말하는 건가?"

"맞아, 그 젊은 영국 여자를."

라울은 여전히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주로 동행자의 기개를 칭찬하고 싶어 하는 듯이 물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안 되지? 당신도 판사들보다 두 시간 먼저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다야."

피곤으로 지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마레스칼은 평소와 달리 실수했다. 그는 어리석은 초보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라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영국 여자를 아느냐?"

"경감님, 그분을 아셨습니까?"

"물론이지! 우리 사이는 친구쯤 됐어. 지난 여섯 달 동안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behind her back 지내며 그녀를 감시했지. 그녀를 잡을 증거를 모으려 애썼는데, 끝내 모아내지 못했어!"

"그녀를? 왜?"

"그래, 바로 그녀야! 레이디 베이크필드를 말이지. 한쪽으로는 영국 귀족이자 백만장자 베이크필드 경의 딸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국제적인 도둑, 호텔 도둑, 그리고 조직의 두목이었어. 그냥 재미로, 취미로 말이지. 그리고 그 녀석도 나를 간파했어.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비웃는 눈빛으로, 자신만만하게 나를 대했지. 그녀는 분명 도둑이었어. 나는 상부에 그 사실을 이미 보고했어."

"하지만 어떻게 잡았단 말인가?"

"그건 어제부터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다. 우리 쪽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내게 전언을 전했다. 미스 베이크필드가 어제 니스에서 한 건물의 도면, 즉 'B빌라'라고 불리던 곳의 도면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을 수상쩍은 문서 더미와 함께 작은 가죽 가방에 챙겨 넣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다."

"남쪽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리라 생각했다. 현행범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 서류를 확보하는 것. 하지만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다. 그 무리들이 그녀를 내게 건네준 셈이다."

"그리고 가방은?"

"그녀는 그걸 옷 안에 숨겨두고, 가죽 끈으로 매달아 뒀어요." 마레스칼이 허리춤을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도 여기 있죠."

"잠시만 본 게 다였지만, 확실한 단서는 볼 수 있었어요. B 빌라의 평면도 같은 거요."

"그 평면도에는 그녀가 파란 연필로 날짜를 적어 뒀죠. '4월 28일'이라고."

"4월 28일은 모레 수요일입니다."

라울은 속이 상했다. 하룻밤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여자가, 도둑이라니. 그 실망감은 더욱 컸다. 수많은 정황이 그녀의 혐의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 정황들은 라울이 영국 여성에게 비친 모습을 설명해 주었다.

그 여자는 국제 도둑 무리와 결탁해 있었다. 그녀는 각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라울 드 리메지라는 인물 뒤에 아르센 뤼팽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죽는 순간, 억지로라도 말하려던 마지막 말들이 자백과 빌미였다고 믿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뤼팽을 향한 죄인의 간절한 호소였다.

"제 기억을 지켜주세요… 제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세요… 제 서류들은 모두 불태워 버리세요…"

"그렇군요, 총감님. 베이크필드 가문은 명성을 완전히 잃는 셈이군요?"

"어쩔 수 없지." 마레스칼이 말했다.

라울이 다시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괴로우신 건 아니죠? 그리고 방금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 그 젊은 여성을 법정에 세우자는 생각도요. 그녀는 정말 어리잖아요, 맞죠?"

"정말 어리고, 아주 예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감님, 그 어떤 고려 사항이 있더라도, 저는 제 의무를 다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듯한 태도로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업적 양심이 모든 생각을 압도하고 있었다.

"잘했소, 형사." 라울이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마레스칼이 자신의 의무를 다른 것들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 다른 것들에는 원한과 야망이 크게 섞여 있었다.

마레스칼은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검사단이 오기까지 쉴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확인한 그는, 몸을 뒤로 반쯤 기댄 뒤 작은 메모장에 몇 가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곧 그 메모장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마레스칼 형사는 잠들고 만 것이다.

라울은 그에게로 시선을 고정하며 몇 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기차 안에서 처음 마주친 이후로, 그의 기억은 마레스칼에 관한 더 선명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되살려 내고 있었다.

그는 마레스칼을 흥미진진한 형사라기보다는, 취미와 재미로 형사 일을 하는 부유한 아마추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과 열정을 위해 그 일을 활용하는 자이기도 했다.

라울은 그 남자가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여성을 좇는 사나이가었고, 항상 신중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여성들이 그의 급진적인 승진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의 장관 집안에도 드나들며, 장관의 부인이 그의 부당한 특혜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라울은 메모장을 들고 형사를 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적기 시작했다.

「로돌프 마레스칼 관련 소견」

「뛰어난 요원이다. 주도권도 있고 통찰력도 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다. 상대방의 이름도 묻지 않고, 신발 상태도 확인하지 않으며,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인상까지 꼼꼼히 기록하지도 않는다.

」

예의도 부족하다. 오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에서 아는 소녀를 만나면, 소녀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 말을 건넨다.

몇 시간 뒤, 변장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군경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나면, 문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가 한 칸의 좌석에 남겨둔 낯선 남자가, 우편물 상자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낯선 남자가 그토록 grossière한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귀중한 정체를 숨긴 채 증인 역할을 거부하며 비열한 고발자의 자리는 내려놓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이 기묘한 사건을 직접 손에 쥐고, 가방 속 문서들을 무기로 가엾은 콘스탄스의 명성과 베이크필드 가문의 명예를 힘차게 옹호했다. 그리고 초록 눈의 미녀를 엄중히 책벌하기 위해 모든 정력을 쏟았다. 그에게 있어 그녀의 금발 한 올도 건드리

지 못하게 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손에 묻은 피에 대해 아무도 따져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명 대신, 라울은 제과점 앞에서 마레스칼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리며, 안경을 쓰고 입에 담배를 문 남자의 머리를 스케치했다. 그 아래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불 좀 빌려주시오, 로돌프?"

경위가 코를 골고 있었다. 라울은 그에게 메모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마개를 따자 클로로포름의 강렬한 냄새가 퍼졌다. 마레스칼의 머리가 더 깊이 숙여졌다.

그때 라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코트를 벗겨냈다. 가방의 끈을 풀고는 자신의 허리춤에 감아, 재킷 아래로 숨겼다.

그때 마침 천천히 지나가는 화물 열차가 보였다. 창문을 내리고, 남몰래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점프해 내렸다. 그리고는 사과가 가득 실린 화차의 천막 아래로 들어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죽은 도둑과, 내가 혐오하는 살인자. 내가 보호해 주는 건 이런 훌륭한 분들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일에 뛰어든 거지?"

제4장

"제가 늘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뤼팽이 말했다.

수년이 지난 뒤, 그가 '초록 눈의 아가씨'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일이었다.

"문제가 해결될 시간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풀려면, 운이나 당신의 재주가 충분한 현실의 단서를 가져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사건의 진행과 함께 맞춰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했다.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뿐이었다. 통일된 흐름도,

guiding principle(주도적인 생각)도 없었다. 각자 제 갈 길만 가고 있었다.

라울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추리도, 직관도, 분석도, 검토도 모두 함정일 수 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는 하루 종일 화차의 천막 아래에 숨어 지냈다. 화물열차는 햇살 가득한 시골 마을들을 지나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꿈을 꾸며 사과를 갉아먹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예쁜 아가씨, 그녀의 죄악, 그리고 어두운 영혼에 대해 약한 추측을 세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입술이 맞댔던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정교한 입술의 기억을 음미했다.

그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이 사실뿐이었다.

영국인을 위한 복수, 유죄자를 향한 처벌, 세 번째 공범의 색출, 그리고 훔친 수표의 회수. 물론 이런 일들은 흥미진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록빛 눈과 순종하는 입술을 다시 찾는 것. 그 얼마나 큰 쾌감이었는가!

가방 속을 뒤져봤자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공범자 명단, 각국 조직원들과의 서신들……. 비참하게도, 미스 베이크필드는 명백한 도둑이었다. 가장 교활한 도둑들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증거들이 그곳에 널려 있었으니까.

그 옆에는 베이크필드 경의 편지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의 다정한 마음과 성실한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건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젊은 영국 여인의 사건과 세 명의 강도 살인 사건(즉, 미스 베이크필드와 살인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일하게 단서가 된 것은 마레스칼이 언급했던 한 통의 편지였다. 그 편지는 영국 여인에게 보낸 것으로, B 빌라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니스에서 시미에로 가는 도로 오른쪽에 B 가문의 빌라가 있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 너머에 있죠.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에 우뚝 선 거대한 건물입니다.

"매달 네 번째 수요일이 되면, B 가문의 노령 백성은 마차 뒷자리에 앉고, 하인과 하녀 두 명, 식량 바구니를 실은 채 니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원 담장을 한 바퀴 돌아, 파용 계곡을 내려다보는 곳까지 가십시오. 썩어 문드러진 작은 나무문이 있는데, 열쇠는 같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 백작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는 아내가 숨겨둔 증서 더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고인이 친구에게 쓴 편지 한 통이 있다. 그 편지에는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작은 전망대에, 부서진 바이올린 케이스가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왜 하필 그런 말이 나왔을까? 별다른 근거도 없는 말이다.

그 편지를 받은 친구는 바로 그날 죽었다. 편지는 분실되었고, 나는 이듬해 이듬해가 지나서야 우연히 그 편지를 손에 넣게 되었다.

함께 보낸 것은 정원 평면도와 집 평면도였다. 계단 꼭대기에는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전망대가 서 있었다.

이 작전에는 두 사람이 필요했다. 한 명은 경계를 서야 했다. 세탁부인 이웃 여자가 자주 들이닥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오는데, 그 문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고 열쇠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

날짜를 정해 나에게 알려다오. 함께 같은 호텔에서 만나기 위해서다.

사후보. 내가 말한 그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내 조사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막대한 보물일까, 과학적 비밀일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이번 여행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 네가 개입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라울은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이상한 후주를 무시했다. 그는 그걸, 자신이 자주 쓰던 표현대로, '위험한 추측과 해석을 거듭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미로'라고 불렀다.

하지만 빌라 B의 절도 사건은 달랐다.

이 사건은 라울에게 점점 특별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물론 본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채 요리가 주요리만큼 가치 있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라울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만약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밤, 마르세유 역. 라울은 화물 열차에서 털썩 내려서 니스로 향하는 급행 열차에 올랐다. 그리고 4월 28일 수요일 아침, 그는 니스 역에 내렸다.

그는 어느 순진한 상인으로부터 몇 장의 지폐를 털어냈다. 그 돈으로 그는 여행 가방과 옷, 속옷을 장만했다. 그리고 시미에 언덕 아래에 자리 잡은 매직스 팔리스 호텔을 선택했다.

그는 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며, 현지 신문을 훑어보았다. 급행 열차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 줄줄이 실려 있었다. 내용은 제각각 과장되기도 하고 허구적이기도 했다.

오후 2시, 그는 호텔을 나섰다. 옷차림도 얼굴도 완전히 변장한 상태였다. 마레스칼이라면 그를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레스칼은 어찌나 자신의 장난감이, announced된 저택 도난 사건에서 미스 베이크필드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의 대담함을 부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까.

"과일이 익으면 따는 법이지." 라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딱 제격인 것 같은데, 그냥 썩게 내버려두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베이크필드 양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파라도니 빌라는 도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은 넓게 펼쳐진 구릉지대였고, 올리브나무가 가득했다. 성벽의 나머지 세 면은 바위가 섞인 길이 감싸고 있었으며, 그 길은 거의 항상 한산했다.

라울은 그 주변을 살폈다. 썩어 문드러진 작은 나무 문, 멀리서 보이는 철제 문, 그리고 근처 밭에 있는 빨래방 아줌마의 오두막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큰길 근처로 돌아왔다.

그때 낡은 마차가 니스 쪽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파라도니 백작과 직원들이 식재료를 사러 간 참이었다. 시각은 오후 3시였다.

'빈 집이군.' 라울은 생각했다. '현재 자신의 공범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베이크필드 미스의 연락자가 이런 모험을 감행할 리 없다. 그렇다면 이 망친 바이올린은 내 것이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작은 문 쪽으로 돌아갔다. 벽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 오르기 쉽다는 것을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손쉽게 그 벽을 넘었고, 거의 관리되지 않은 작은 길들을 따라 집

으로 향했다. 1층의 모든 창문문은 열려 있었다. 현관문이 그를 계단으로 이끌었고, 그 계단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전기 벨이 울려 퍼졌다.

'젠장,'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에 무언가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 백작이 경계하고 있는 걸까?'

현관 복도에서 울려 퍼지던 초인종 소리가, 라울이 몸을 움직이자마자 갑자기 그쳤다. 그는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천장 근처에 고정된 초인종 장치를 살펴보고, 벽장식 장식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전선을 따라갔다. 전선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이 소음은 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외부의 개입 때문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전선은 꽤 높은 공중을 흐르고 있었다.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으며, 그가 들어올 때 취했던 방향과 일치했다. 그의 확신은 즉시 굳어졌다.

"작고 썩어 문든 작은 문을 열면 초인종이 울린다. 그러니 누군가가 들어오려다, 멀리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는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라울은 왼쪽으로 살짝 몸을 돌려 수풀이 우거진 작은 언덕 꼭대기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저택 전체와 올리브밭, 그리고 나무문 근처의 담장 일부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두 번째 시도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남자가 담장을 넘었다. 라울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담장 꼭대기를 넘고 줄 끝을 떼어낸 뒤 몸을 떨어졌다.

문이 밖에서 밀려 열렸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모험가들의 삶, 특히 그들의 모험이 막 시작될 무렵에는 우연이 진정한 협력자처럼 작용하곤 한다. 하지만 그토록 기이한 일이었다. 초록 눈의 아가씨가 그곳에 있었고, 그녀와 함께한 남성이 오직 기욤 씨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우연일까?

그들이 도망친 속도와 여행의 빠름, 그리고 4월 28일 오후의 그 시간, 그 정원에 갑자기 나타난 것. 이 모든 것이 그들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그리고 나처럼 확실한 목표直指로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라울이 찾고 있던 것과 같은, 희생자인 영국 여사와 살인자인 프랑스 여사 사이의 기업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명한 연관성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파리에서 표를 끊고 짐을 부친 뒤,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계획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올리브나무 숲 사이를 지나오고 있었다.

한 남자는 체격이 마른 편이었다. 면도기질을 하고 있어 얼굴이 매끈했고, 눈매가 조금은 불친절해 보이는 배우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손에 지도를 든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젊은 여성…… 정말로, 그는 그녀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지만, 라울은 그녀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하우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에서 며칠 전에 그가 그렇게나 감탄했던, 행복하고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것은 급행 열차의 복도에서 본 비극적인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보는 이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찡그리고 고통스러우며 두려워하는 초라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장식이 없는 회색의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금발을 가리는 짚모자의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뭇잎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을 엿보고 있던 언덕을 돌아다닐 때, 라울은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한 장면을 보았다. 벽 너머로 머리가 하나 올라왔던 것이다. 항상 같은 위치에서, 모자를 쓴 남자의 머리였다.

부스스한 검은 머리카락…… 평범한 인상…… 그것은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세 번째 동료가 골목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

부부는 언덕 너머, 문길과 대문길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욤은 집 쪽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여성을 혼자 남겨둔 채였다.

라울은 오십 보쯤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숨어 있는 남자의 시선 역시 썩은 문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를 경고해야 할까? 보쿠르 때처럼 그녀를 데려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호기심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는 알고 싶었다.

서로 다른 발상이 얽히고설키고, 공격이 교차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실마리가 드러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어느 순간, 자비로운 충동이나 복수심에 휩쓸려 무작정 행동하는 대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쓸 휘슬을 무심코 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라울은 그녀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무 살은 족히 되어 보이는 나이지만, 얼굴은 거의 아이 같았다.

약간 들어간 갓 밑으로 나온 머리카락은 금속 고리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그녀를 환한 기운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철제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라울은 자신의 언덕 너머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평범한 복장의 여인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팔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초록 눈의 아가씨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대더니, 결국 땅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빨래 부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길을 계속 걸었다. 나뭇가지 무리 뒤에 숨어 쓰러진 그녀의 실체는, 교차로를 표시하던 그 덤불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두려운 시간이 흘렀다. Guillaume는 공중에서 방해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침입자와 마주치게 되면?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빨래 부인은 뒷문으로 집에 들어왔고,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Guillaume는 원정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신문에 싸인 한 다발을 안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바이올린 상자처럼 보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그것을 숨어 있던 미녀는 바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동료가 잔디 위를 살며시 다가오는 동안, 그녀는 미스 Bakefield와 두 남자를 죽인 후 Beaucourt의 공포스러운 얼굴을 유지했다. Raoul은 그녀를 증오했다.

짧은 설명이 있었다. 그 설명으로 기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도 뒤로 휘청거렸다. 둘은 언덕을 따라 걸었지만,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서로 기대지 않으면서도 비틀거렸다. 공포에 질린 상태였다.

'그래, 그래.' 라울은 경멸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 벽 뒤에 마레스칼이나 그의 동조자가 숨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둘 다 붙잡아 감옥에 넣어야 해.'

그날만큼은 모든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라울은 거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정확히 말해 생각할 새도 없이 행동해야 했다.

문에서 스무 걸음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그가 예상했던 매복 지점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담 너머로 보였던 남자의 머리가 수풀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단숨에 도망쳐 온 길에 서 있던 기욤을 주먹으로 턱에 내려쳐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소녀를 낚아채 팔 아래로 끼워 안았다. 바이올린 케이스까지 주워 들더니, 올리브 숲을 가로질러 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라울은 즉각 몸을 날렸다.

가벼운 발걸음에 튼튼한 체격을 가진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우 빠르게 달아났다. 그는 자신은 결코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오직 목적지만 향해 질주했다.

그는 레몬나무가 심어진 안마당을 지나, 벽이 밖으로 성토처럼 솟아오른 작은 곳에 다다랐다. 벽은 높아야 1미터 정도였다.

그곳에서 그는 소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목을 잡고 밖으로 미끄러지듯 내보냈다. 그 후 그는 바이올린을 던져 놓고는 자신도 내려왔다.

'정말 잘됐군.' 라울은 혼자 중얼거렸다.

남자는 정원을 끼고 있는 외딴 길 어딘가에 차를 숨겨뒀을 거다. 그리고는 잠시 뒤를 지켜보다가, 조금 더 늦게 소녀를 납치한 뒤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저항도 없이 기절해 있는 소녀를 차 안으로 실었을 것이다.

다가가 보니 라울의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넓은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출발은 즉각이었다. 크랭크를 두 번 돌리자, 남자는 사냥감 옆자리에 올라타고 차를 힘차게 몰아냈다.

땅은 울퉁불퉁했다. 돌투성이였다. 엔진은 힘겹게, 숨을 헐떡이며 굴렀다.

라울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손쉽게 차에 다가갔고, 차양을 넘어섰다. 그리고 뒷좌석 앞, 의자에 걸린 코트 뒤로 몸을 숨겼다.

혼란스러운 출발 과정 중, 공격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차들은 성벽 바깥 길로 나섰다. 그리고 곧 큰 도로로 나섰다.

길을 돌기 전, 남자는 젊은 소녀의 목에 주먹을 쥐고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움직이면 끝장이다. 다른 애처럼 목을 조르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는 비웃듯 덧붙였다.

"게다가, 나처럼 너도 도움을 부르지는 않겠지? 알았지?"

농부들과 산책객들이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자동차는 니스를 떠나 산맥을 향해 달렸다. 피해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라울은 사실이나 말에서 그 이치를 읽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어떤 사건도 이전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남자는 열차의 세 번째 강도범이었고, 바로 '다른 한 사람', 즉 베이크필드 미녀의 목을 조른 자였다는 것이다.

'맞아, 그냥 결론만 내면 돼. 복잡한 추리 따위 필요 없어.'

그는 생각했다. '이건 베이크필드 사건과 세 명의 도둑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야. 마레스칼은 영국 여성이 실수로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니스로 향하고 있었지. 바로 B 저택 습격. 그리고 그 습격을策划한 사람은 기욤이야.'

'G.로 서명한 편지의 작성자, 기욤. 그는 두 무리에 모두 속해 있었어. 영국 여성을 이용한 습격과, 그가 편지의 추신에서 말한 '거대한 수수께끼'의 해결을 동시에 추구했지. 분명해.'

'그런데 영국 여성이 죽자, 기욤은 계획했던 습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어. 두 명이 필요했으니 녹색 눈의 여성을 데려갔지. 그리고 습격은 성공할 뻔했다. 하지만 동료를 감시하던 세 번째 도둑이 재물을 되찾는 동시에, 기회를 틈타 '녹색 눈'의 여성을 납치했어.'

'도대체 왜? 두 남자 사이에 연애 경쟁이 있었을까? 지금은 더 이상 묻지 말자.'

차량은 몇 킬로미터를 더 달려 우회전했다. 급하게 그려진 듯한 급커브를 연이어 내려가더니, 르방 도로로 향했다. 그곳에서 발르 협곡으로 갈 수도, 고산 지대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다음엔?'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이 탐험이 무법자들의 은신처로 이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초록 눈을 빼앗으려 들 반쯤 미친 자들 여섯 명과 혼자 맞서 싸우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시도 하나가 그의 마음을 굳혔다. 절망에 찬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냉혹한 손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장난하지 마! 네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해야 해. 기차 안에서 내가 했던 말, 윌리엄과 네가 두 형제를 처리하기 전에 내가 했던 말, 다 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하나 해 주고 싶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두 번의 굴곡길을 지나던 중, 그는 젊은 여자 뒤에서 자신과 그녀를 가로막는 한 사람의 머리와 상체를 보았다. 그 사람은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덩치 큰 몸으로 그를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비웃듯 들려왔다.

"잘 지내, 옛 동지?"

그 남자는 깜짝 놀랐다. 차가 급선회하며 세 사람 모두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세상에, 이 자식은 대체 누구야? 어디서 나타난 거지?"

"뭐라고! 너 내 얼굴도 못 알아봐? 급행 열차 얘기 나오니까 기억나겠지? 처음부터 때려눕혔던 그 자식, 기억나? 그 불쌍한 놈한테 너 지갑 털어서 스물세 장이나 갈취했잖아."

라울이 물었다.

"미스, 제 얼굴 기억나시죠? 그렇죠? 미스, 그날 밤 당신을 품에 안고 데려갔다가, 좀 심하게 내쫓았던 그 남자 기억나시죠?"

젊은 여자는 모자 챙을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채로 말문이 막혔다. 남자는 여전히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이 새끼는 대체 누구야? 어디서 나타났는데?"

"파라도니 저택에서요. 제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던 곳이지요. 이제 미스가 내려야 하니,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악당 행세를 하느냐? 그건 잘못됐군, 동지. 신문에서 내가 너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봤을 거야. 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 그 결과, 이제 그 무리의 두목이라고 누명을 쓰는 건 나야. 나처럼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여행자, 온 세상을 구하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야. 자, 동지.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라."

도로는 협곡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졌다. 절벽 벽면에 매달린 듯했고, 옆으로는 시내가 굽이치는 자락을 따라 낮은 담장이 놓여 있었다. 도로가 매우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는 트램 선로가 나 있어 공간은 더 좁아졌다.

라울은 이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켜, 매번 돌아갈 때마다 펼쳐지는 좁은 시야를 주시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방향을 틀고 양팔을 벌렸다. 그리고 적의 양 옆으로 팔을 돌려 감싼 뒤, 정말로 그 위에 몸을 던졌다. 어깨 너머로 그는 핸들을 양손으로 꽉 쥐었다.

남자는 당황해하며 힘을 빼버렸다. 그러면서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미쳤나 봐! 천벌을 받아라, 우리 모두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 놔, 멍청이!"

그는 몸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두 팔은 집게처럼 그를 꽉 조였다.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선택은 하나뿐이야, 친애하는 당신.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트램에 치여 으깨지거나. 보세요, 바로 저 트램이 당신을 향해 미끄러져 오고 있어요. 멈춰야 해요, 옛 동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대한 전차 기계가 불과 오십 미터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달리는 속도로는 즉시 정차해야 했다. 남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울은 핸들을 꽉 쥐고 차를 두 레일 위, 정확히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두 차량은 코앞까지 바짝 다가가 멈췄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젠장, 대체 저 녀석은 뭐란 말인가? 아, 네가 이걸 값비싸게 치르게 해 주마!"

"당신의 계산대로 하세요. 볼펜이라도 있으신가요? 없다면요? 그렇다면, 전차 앞에 누워 자고 싶지 않다면 레일을 치우시죠."

그는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려와 도로 위에서 기다렸다.

그사이 승객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소리쳤다.

레일이 곧장 비자마자, 전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울은 남자를 도와 차를 밀며, 명령조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다시 저 아가씨를 괴롭히면, 너를 경찰에 넘기겠어. 급행 열차 사건을 꾸민 것도, 영국 여자를 질질 죽인 것도 다 너야."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는 거친 털 사이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떨리는 입술을 비틀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거짓말… 난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너야. 증거는 다 내 손에 있어. 잡히면 교수형이야. 그러니 당장 사라져. 차는 내게 줘. 내가 이 소녀와 함께 니스로 가져가겠어. 어서 꺼져!"

라울은 거침없이 어깨로 남자를 밀쳤다. 그는 차에 뛰어올라 싸여 있던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곧 비명을 지르듯 욕설이 터져 나왔다.

"젠장! 저 녀석이 도망쳤군."

초록 눈의 아가씨는 이미 길 위에 없었다. 멀리서 트램이 사라져 갔다. 두 대립자가 서로 다투는 틈을 타, 그녀가 트램을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울의 분노는 다시 그 남자에게로 쏟아졌다.

"너 누구냐? 어이, 그 여자를 알아?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은 뭐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남자도 분해서 라울에게서 바이올린을 빼앗으려 했다. 싸움이 시작되려던 그때, 두 번째 트램이 지나갔다. 라울은 트램으로 뛰어올랐다. 반면 도둑은 시동을 걸려 했지만 실패했다.

라울은 화가 난 채 호텔로 돌아왔다. 다행히 그는 기분 좋은 보상처럼, 파라도니 백작부인의 증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풀었다. 손잡이도, 기타 부속품도 모두 빠져 있었지만, 바이올린은 제법 무거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검증 결과, 라울은 한쪽 판자가 정교하게 잘려 다시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바이올린 안에는 낡은 신문 더미만 들어 있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작 부인이 재산을 다른 곳에 숨겼거나, 혹은 백작이

그 숨겨진 곳을 발견해 부인이 막으려던 수입을 평온하게 누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군." 라울이 투덜거렸다. "아, 그 초록 눈의 아가씨가 점점 짜증나. 게다가 내 청혼까지 거절하다니. 도대체 왜? 내가 그녀의 입술을 털어간 탓에 화가 난 걸까? 참으로 교만한 여자가!"

제5장

라울은 일주일 내내 어디서 공세를 퍼부어야 할지 몰라, 급행열차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꼼꼼히 읽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니, 대중이 품었던 추측이나 경찰의 실수, 그리고 쫓아갔던 단서들에 대해 깊게 논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온 사건이 오늘날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오직 아르센 뤼팽이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우리가 이제야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루한 세부 사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사실들에 빛을 비출 이유도 없다.

뤼팽, 혹은 라울 드 리메지였다. 그는 곧장 이 수사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만 남기는지 깨달았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록했다.

세 번째 공범, 즉 내가 방금 초록 눈의 아가씨를 빼앗아 온 그 무식한 녀석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의 눈에는 이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미지의 여행자, 다시 말해 나인 내가 되었다.

마레스칼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한 듯했다. 내가 그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들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테니까. 나는 악마적이고 전지전능한 인물로 변모했다. 음모를 꾸미고 전체 드라마를 조종하는 자로 말이다.

동료들의 눈에 나는 그들의 희생양처럼 보였다. 묶이고 입에 휴지가 막힌 채였지만, 나는 그들을 지휘했다. 그들의 안전을 챙겼고, 마지막에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남긴 흔적은 내 작은 구두 발자국뿐이었다.

다른 공범들은 의사의 증언에 따라, 의사의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 갔을까? 새벽녘, 말은 들판을 가로질러 차를 끌고 돌아왔다. 마레스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젊은 강도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한 젊은이와 아름다운 여자를 가차 없이 지목했다. 다만 그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곧 다가올 sensationnel한 체포의 영광을 자신에게 남겨두려 한 것이었다.

살해당한 두 남자는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아르투르와 가스통 루보 형제였다. 그들은 샴페인 브랜드의 판촉 사업을 함께하던 파트너였으며, 센 강변의 뉴이유에 거주하고 있었다.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두 형제를 쏴 죽인 권총, 그리고 복도에서 발견된 그 권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 권총은 열흘 전,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자에게 팔렸다. 그의 동행자, 베일을 쓴 젊은 여인은 그를 ‘ Guillame(기욤)’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으로 베이크필드 양이다. 그녀에게는 어떤 혐의도 없다. 마레스칼은 증거가 없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여행자다. 런던과 리비에라에서 널리 알려진 사교계 명사로서, 몬테카를로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뿐이다. 그뿐이다. 그녀를 실수로 살해한 걸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왜 두 루보 형제가 죽임을 당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암흑과 모순만 가득하다.

“나도 더 이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기분이 아니야.” 라울이 결론을 내렸다. “이건 경찰이 알아서 더듬거리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자.”

라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야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저명한 손님인 베이커피드 경은 불행한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 습관대로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몬테카를로의 ‘벨뷔’ 호텔에서 보낼 예정이다.”

그날 밤, 라울 드 리메지는 '벨뷔' 호텔에서 영국인 방과 이어진 방을 하나 잡았다. 이 방들뿐 아니라 1층의 다른 방들도 모두 큰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각 방마다 정원으로 나가는 발코니와 출입구가 있었고, 정원은 호텔 입구와 반대쪽 건물을 마주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라울은 영국인이 방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외모는 거무튀튀했다. 그의 슬픔과 절망은 긴장된 동작으로 드러났는데, 그 움직임에는 불안과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이틀 후, 라울이 비밀 회의를 요청하며 명함을 전달하려던 차에, 복도에서 누군가 옆 방 문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바로 마레스칼이었다.

그 일로 그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본인이 이미 저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니, 마레스칼이 콘스탄스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내려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인접한 방과 구분하던 이중 문 중 한쪽 패드를 여미는 두꺼운 천을 벗겨 열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다른 대화가 이어졌다. 라울은 이미 영국인의 방에 숨어들어 빗장을 풀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커튼으로 가려진 두 번째 문짝을 살짝 열었다. 하지만 또 실패였다. 두 사람은 너무 낮게 말해서 단 한 마디도 캐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이 흘렀다. 이 사흘 동안 영국인 경호원과 경찰은 서로 비밀 회의를 가졌다. 그 회의가 뤼팽을 몹시 궁금하게 만들었다. 마레스칼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마흔다섯 살의 영국 귀부인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백작에게 고하겠다는 건, 분명히 마레스칼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회의를 통해 그는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뜻일까?

어느 아침, 라울은 드디어 경호원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라울은 경호원이 아파트의 더 안쪽 방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귀를 기울였지만,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대화의 끝부분이 그의 귀에 들어온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세 시에 호텔 정원에서 만나죠. 돈은 준비되어 있고, 제 비서가 말씀하신 네 통의 편지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네 통의 편지, 그리고 돈." 라울이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협박이군. 그렇다면 협박꾼은 기욤 씨일 거야. 그는 분명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 테고, 베이크필드 양과 공모 관계에 있겠지. 오늘 그는 그녀와의 서신을 돈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셈이야."

라울의 이런 추론은 마레스칼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없이 적절해 보였다. 기욤이 베이크필드 경을 협박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베이크필드 경의 부름을 받고 매복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함정에 젊은 악당 기욤이 필연적으로 걸려들게 될 것이다.

좋아. 라울은 이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녹색 눈의 아가씨가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그날 오후, 베이커피드 경이 가니마르를 점심 식사에 머물게 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신나게 수다를 떨며 정원을 몇 바퀴나 돌았다.

오후 두 시 사십 분쯤, 경찰은 집 안으로 돌아갔다. 베이커피드 경은 정문과 통하는 열린 철문 근처, 시야가 좋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라울은 방 안의 창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오면, 그건 그녀 탓이야!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그가 안도한 것은, 기욤이 혼자 나타나 조심스럽게 철문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두 남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사전에 조건이 정해져 있었기에 만남은 짧았다.

그들은 곧장 아파트 쪽으로 향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사정은 달랐다. 기욤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베이크필드 경은 신경질적인 떨림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계단 위에 서서 영국인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비서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지 내용이 맞다면, 그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취를 감췄다.

라울은 패딩이 씌어진 문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극적인 반전을 기다렸지만, 곧 Guillaume이 Marescal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Marescal은 그에게 Lord Bakefield의 비서로 비쳤을 터였다.

사실 경찰관인 Guillaume은 거울을 통해 라울이 엿볼 수 있는 위치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일천 프랑권 지폐 오십 장과, 런던에서 유효한 같은 액수의 수표가 있습니다. 편지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Guillaume이 말했다.

"어떻게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은 거다. 내 지시는 명확하다. 거래는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해."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 합니까?"

Guillaume은 결심을 굳혔다.

"편지는 있습니다. 다만 내 곁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내 친구가 지키고 있는 거요."

"어디 있소?"

"호텔 안에요. 제가 데려올게요."

"필요 없소." 마레스칼이 말했다. 상황의 실상을 간파한 그는 서둘러 일을 처리했다.

그는 종을 불렀다. 하녀가 들어오자 마레스칼이 명령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여자를 데려오시오. 기욤 씨가 보내셨다고 전하시오."

기욤이 깜짝 놀랐다.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이오? 이는 베이크필드 경과의 내 약속에 위배되는 행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곳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나가려 했다. 하지만 마르스카가 재빠르게 가로막더니 문을 열었다. 초록 눈의 아가씨가 들어섰다. 발걸음이 흔들렸다. 문이 그녀 뒤에서 세게 닫혔다. 자물쇠에 열쇠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 순간, 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마르스카!"

그녀가 그 무서운 이름을 입에 담기도 전에, 기욤은 혼란을 틈타 정원으로 달아났다. 마르스카는 그를 돌보지 않았다.

commissaire는 오직 그 소녀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정신이 없으며, 방 한가운데로 넘어져 갔다. commissaire는 그녀의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다.

"아, 너 같은 여자는 이번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완전히 함정에 빠졌지, 그래?"

그는 가방을 뒤지며 투덜거렸다.

"편지가 어디 있지?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야? 정말 창피할 줄 알아!"

소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는 그녀를 때렸다.

"편지! 당장 보여줘! 어디 숨겼어? 가슴 속에 있나?"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옷감을 잡아 찢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손으로는 뒤져 들어가려던 순간, 그는 멈춰 섰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 것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한쪽 눈이 비틀거리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담배가 들려 있었다.

"로돌프, 불 좀 붙여 줘?"

"로돌프, 불 좀 가져?"

이 말은 이미 파리에서 들었던, 그리고 자신의 비밀 노트에 적어두었던 충격적인 문구였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런 반말은 또 왜? 그리고 그 눈빛은 왜 저렇게 번쩍이는 걸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급행열차의 남자? 세 번째 공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마레스칼은 겁쟁이가 아니었다. 여러 차례의 사건에서 그는 남다른 용기를 보였으며, 두세 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맞서 있는 상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类型的적 존재였다. 그는 특이한 수단을 사용해 왔고, 마레스칼은 늘 열세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마레스칼은 방어 태세를 취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반면 라울은 매우 차분한 표정으로, 젊은 여자에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벽난로 옆에 있는 네 통의 편지를 놓아두게. 봉투 안에 정말 네 통이 들어있는 걸까? 하나, 둘, 셋, 넷…… 좋군. 이제 빨리 복도로 빠져나가. 잘 가. 우리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잘 가. 행운을 빌어."

소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라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보게, 로돌프. 난 이 초록 눈의 여자를 잘 모르네. 네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여자의 공범도, 살인자도 아니야. 그냥, 네가 기름칠한 얼굴을 보고 첫눈에 싫증이 난 평범한 여행자일 뿐이지. 그래서 네가 지키려던 여자를 빼앗아 놀려주기로 한 거야. 난 이제 그 여자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것도 원치 않아. 각자의 길을 가자. 너는 오른쪽으로, 그녀는 왼쪽으로, 나는 가운데로. 내 뜻이 이해가 가나, 로돌프?"

로돌프는 권총이 든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라울이 이미 자신의 권총을 빼들었고, 그 눈빛에는 용감하면서도 냉혹한 기개가 서려 있었다. 로돌프는 조용히 자리만 지켰다.

"옆 방으로 가자, 로돌프. 거기서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권총을 손에 쥔 그는 주사를 집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갑자기 식탁 위의 카펫을 벗겨 마레스칼의 머리 위로 후두둑 던졌다.

마레스칼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 괴상한 남자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도움을 부르거나, 종을 울리거나, 몸부림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반격이 즉각적이고 치명적일 것임을 그는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이불과 시트로 뒤엉켜 반쯤 질식할 지경이 되었고, 온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당했다.

"이제 됐습니다." 라울이 마무리를 하며 말했다. "우리 의견이 딱 맞습니다. 내일 아침 아홉 시쯤에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가씨와 기욤, 그리고 저는 각자 도피할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는 여유 있게 가방을 싸서 잠갔다. 그리고 성냥을 하나 켜서 영국 여성이 보낸 네 통의 편지를 태워 버렸다.

"한 마디 더 하죠, 로돌프. 베이커필드 경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딸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구원자 행세를 하세요. 제가 노란 가죽 가방에서 건져 낸 미스 베이커필드의 일기를 건네주십시오. 아버지는 딸이 가장 정직하고 고결한 여성이었음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한 셈이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윌리엄과 그의 공범에 대해서는 영국인에게 잘못되었음을 알리십시오. 이는 일반적 협박일 뿐, 급행열차 살인 사건과는 무관하며, 그들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테니 말입니다. 잘 가요, 로돌프."

라울은 열쇠를 챙겨 호텔로 돌아가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요금 정산을 요청하며 말했다.

"내 방은 내일까지 그대로 비워두세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대비해 미리 결제해 두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일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칭찬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끝난 셈이었다.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길 바랄 뿐, 더 이상 그의 일은 아니었다.

그의 결심은 이미 굳혀져 있었다. 그는 오후 3시 50분 출발하는 파리행 급행 열차 안에서 그녀를 발견했지만,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숨겼다.

마르세유에 도착하자 그녀는 방향을 바꿔 툴루즈행 열차에 올랐다. 그곳에는 그녀가 방금 알게 된, 마치 배우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기우욤이 나타나 그들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었다.

"잘 가라." 라울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저 예쁜 부부랑 엮일 일도 없으니, 그들끼리 다른 데서 잘 해결하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객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 소녀와 같은 열차를 탔다. 다음 날 아침, 그 역시 툴루즈에서 내렸다.

신속 열차 사건에 이어, 파라도니 저택 절도와 벨뷔 파리스 저택에서의 협박 미수는 갑작스럽고 폭력적이며 광기 어린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어졌다. 마치 제대로 쓰인 연극이 아닌 듯한 장면들처럼, 관객에게 사건들을 이해하고 서로 연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뤼팽이 나중에 '구원자의 삼부작'이라고 부른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장면은, 다른 두 장면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잔인한 성격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에피소드는 몇 시간 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심리학이나 겉보기에는 논리도 없는 시나리오처럼만 표현될 수 있었다.

라울은 호텔에서 이 젊은이가 동행자들과 함께 묵던 곳을 알아냈다. 그 여행자들은 오페레타 가수 레오니드 발리의 순회 공연단에 속한 이들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시립 극장에서 '베로니크'를 공연했다.

라울은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오후 세 시, 젊은이가 나왔다. 얼굴은 몹시 초조해 보였고, 뒤를 돌아보는 눈치였다. 혹시 누군가 따라 나와 자신을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녀는 동조자 기용을 의심한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세 번이나 다시 쓰며 전보 편지를 급하게 적었다.

그녀가 떠난 뒤, 라울은 구겨진 쪽지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읽었다.

미라마르 호텔, 루(오트피레네). — 내일 첫 기차로 도착할 테니 집에 알려라.

"도대체 그 여자가 왜 이 시기에 산속까지 간단 말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집에 알린다고? 그 여자 가족이 루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추적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시립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극단의 연습에 참석하려는 모양이었다.

남은 낮 동안 그는 극장 주변을 감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동조자 기욤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라울은 극장 로열석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곧 경악의 신음을 터뜨렸다. '베로니크'를 노래하는 여배우는 바로 초록 눈의 아가씨였다.

'레오니드 발리…' 그가 생각했다. '이게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인가? 그리고 그녀는 지방의 오페레타 가수인가?'

라울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자석 눈의 아가씨에 대해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도,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녀가 지방 출신이든 파리 출신이든, 그녀는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배우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가수가 되었다.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고, 다정함과 유쾌함, 그리고 매혹과 수줍음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재능과 우아함을 갖추고 있었으며, 무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오히려 그녀의 매력을 더했다.

그는 오스만 대로에서의 첫인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소녀가 겪고 있던 두 가지 운명, 즉 그 얼굴에 깃든 비극적이고도 동심 어린 가면 뒤의 삶을 생각했다.

라울은 세 시간 내내 경외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처음 본 그 아름다운 모습 이후로, 공포와 절망의 순간들에서만 잠깐씩 스쳐 지나갔던 그 기이한 여인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마주했다. 그는 감탄을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다. 그녀의 모든 것에서 기쁨과 조화가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녀는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고, 끔찍한 범죄와 추악한 짓들에 가담한 여자였다. 그녀는 기욤의 공범이었다.

이 두 이미지 중 어느 쪽이 진짜일까? 라울은 헛된 시선을 보냈다. 그 두 사람 위에 또 다른 한 명의 여자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하나의 삶, 곧 베로니크의 삶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다.

다만, 몇몇 손동작이 지나치게 긴장된 듯하고, 몇몇 표정이 어색하게 어긋난 정도였다. 예리한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그제야 비로소 그 여자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심리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역할을 왜곡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라울은 생각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 모양이다. 한낮 열두 시부터 세 시 사이,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일이 조제핀을 우편국으로 급히 내몰았다. 그 사건의 여파는 때때로 그녀의 연기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갑자기 사라진 윌리엄, 그 윌리엄과 관련이 있지 않다고 누가 상상하지 않겠는가?

커튼이 내려진 후, 소녀가 관객에게 인사를 건넬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구경꾼들이 예술가 전용 출구 주변에 몰려들었다.

문 앞에는 두 필의 말이 끄는 닫힌 랜도가 멈춰 서 있었다. 루즈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피에르피트네스타르행 열차는 자정 오십 분에 출발해, 아침에 그 곳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차였다. 젊은 여성은 짐을 먼저 보낸 뒤 곧장 역으로 갈 것이 분명했다. 라울 자신도 짐을 미리 보내둔 상태였다.

자정 십오 분, 그녀는 차에 올랐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일은 그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진행되었다.

하지만 서른 초도 지나지 않아, 라울도 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뛰기 시작했다. 그는 구 불바르에서 랜도를 따라잡아, 어떻게든 차체에 매달렸다.

그가 예상한 대로 바로 일이 벌어졌다. 기차역 거리로 접어드는 순간, 마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었다. 채찍을 힘차게 휘둘러 말들을 재촉한 뒤, 고요하고 어두운 길들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랑롱과 식물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는 젊은 여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칠 수 없었다.

달리기는 길지 않았다. 곧 그랑롱에 도착했다. 거기서 갑자기 멈췄다. 마부 좌석에서 뛰어내려 차 문을 열고 라울의 마차 안으로 들어왔다.

라울은 여자의 비명을 들었지만 서둘지 않았다. 공격자가 바로 기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상황을 듣고, 다툼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곧 공격 상황이 매우 위험한 양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말해 봐!" 동조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넌 내가 도망쳐서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 맞아. 난 너를 속이려 했지. 하지만 바로 네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이유야… 자, 말해 봐… 이야기해 봐. 안 그러면…"

라울은 겁이 났다. 베이크필드 여사의 신음 소리가 기억났다. 한 번의 과격한 찌르기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동조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그를 재빨리 밖으로 끌어냈다.

상대방은 저항했다. 라울은 날카로운 동작으로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여섯 주 동안 쉬어라. 그리고 다시 그 아가씨를 괴롭히면, 나는 척추를 부러뜨릴 거야. 알아듣기 바란다면…"

그는 차까지 돌아왔다. 이미 그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뛰어, 아이야." 그가 말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잖아. 넌 내 손아귀에서逃칠 수 없어. 나는 보답도 받지 못하면서 개처럼 쫓아다니는 게 질렸어. 뤼팽은 한번 길을 정하면 끝까지 간다.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지. 그의 목표는 바로 너야. 네 초록빛 눈과, 미끈한 네 입술이."

그는 기우마를 유모차 곁에 남겨둔 채, 역으로 급히 발을 옮겼다. 기차가 도착할 참이었다. 그는 소녀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두 칸의 객차가 사람들로 가득 차 그들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루르드에서 주요 노선을 빠져나왔다. 한 시간 뒤, 피에르피트네스타라스가 종착역이었다.

그가 내리자마자, 갈색 드레스에 끝이 뾰족한 넓은 파란 리본이 달린 페들라를 입은 젊은 여자들 무리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 뒤로는 거대한 흰색 수모를 쓴 수녀가 따라왔다.

"오레리! 오레리! 여기 있네!"

여자들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다.

초록 눈의 아가씨는 한 팔에서 다른 팔로, 또 다른 팔로 옮겨지며 안겼다. 마침내 수녀 품에 안기자 수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레리야,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우리와 한 달 동안 지내게 된 거지?"

피에르피트와 루즈 사이를 오가는 여객용 브레이크가 역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초록 눈의 아가씨는 동료들과 함께 브레이크에 올랐다. 브레이크는 출발했다.

라울은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루즈까지 갈 수 있는 빅토리아마차를 한 대 빌렸다.

제6장

"아, 초록 눈의 아가씨."

라울은 중얼거렸다. 브레이크를 끄는 세 마리의 노새가 방울 소리를 울리며 첫 번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아름다운 아가씨, 이제 당신은 나의 포로야. 살인자의 동조자, 사기꾼, 협박자의 일당, 그리고 직접적인 살인자. 귀족 가문의 딸이면서 오페레타의 예술가, 수도원의 기숙생……."

"당신이 누구든, 이제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신뢰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야. 내가 당신의 입술을 가져갔다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구해 주는 사람, 당신이 절벽 가장자리에 설 때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가 자리 잡고 있어."

"우리는 심지어 한 번 물린 뉴펀들랜드 개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

"초록 눈의 아가씨.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피신해 수도원에 숨어 지내는 당신에게 저는 더 이상 죄인이나 무서운 모험가, 혹은 오페레타 여배우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레오니드 발리라는 이름도 이제 부르지 않아요. 대신 '오를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낡고 정직하며,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 같은 이름이라 좋아하거든요."

"초록 눈의 아가씨, 이제 알았습니다. 옛 동료들 외에 그들이 간절히 빼앗으려 하지만, 당신은 끝내 지키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 비밀은 언젠가 제 것이 될 겁니다. 비밀이 제 전문 분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신비롭고 열정적인 오를렐리, 저는 당신이 숨어 있는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로 라울은 마음이 놓였다. 그는 더 이상 초록 눈의 아가씨가 던진 그 묘한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결국 그는 잠들었다.

루와 그 이웃 마을 생소르브르는 이 계절에는 손님이 드문 온천 도시였다. 라울은 거의 비어 있는 호텔을 골라, 자신이 식물학과 광물학 애호가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부터 이미 주변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좁고 험한 길은 쉰 분 정도 오르면 성모 마리아 수녀원 건물에 닿는다. 예전의 수도원이 기숙사 학교로 바뀌어 쓰이는 곳이다.

험준하고 구릉이 많은 지역 한가운데, 건물과 정원은 돌출된 암반 위에 펼쳐진다. 계단식 테라스는 거대한 벽돌담으로 받쳐져 있다. 예

전에는 성모 마리아의 개울물이 이 담을 따라 격렬하게 끓어오르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개울물이 모두 지하로 숨어버렸다.

다른 쪽 경사면은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다. 두 개의 길이 십자 모양으로 숲을 가로지르며, 나무꾼들이 다니는 길로 쓰인다.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나들이를 오는 기묘한 형상의 동굴과 바위들이 여기저기 있다.

라울은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변은 한적했다. 멀리서 목수들의 도끼 소리가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의 자리에서는 정원의 고른 잔디밭과, 수양버들이 가지런히 다듬어진 길이 내려다보였다. 이 길은 수녀원 학생들의 산책로로 쓰이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수녀원의 휴식 시간과 생활 패턴을 익혔다.

점심 식사 후, 계곡 위에 놓인 길은 '큰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초록 눈의 아가씨가 나타났다. 피로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녀원 안에 머물렀다가 이 길에 나온 것이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큰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독점하려 했다. 질투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역력했다.

라울은 즉시 그녀가 변했다고 깨달았다. 마치 병에서 회복한 아이가 햇살과 산의 맑은 공기 속에서 꽃피듯, 그녀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 사이를 유영했다. 같은 옷을 입고, 활기차고 경쾌했다. 모든 이에게 다정했고, 조금씩 그들을 놀이와 달음질로 끌어들이곤 했다. 그녀는 너무도 즐거워했다. 그 큰 웃음소리는 울려 퍼져 지평선 끝까지 메아리쳤다.

'그녀가 웃고 있다!' 라울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가식적이고 거의 고통스러워 보이는 극장식의 웃음이 아니었다. 무심함과 잊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웃음이었다.

그녀가 웃고 있다.

어떤 기적인가!

그때면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 돌아왔고, 오레리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바구니에 쌓일 정도로 소나무cone을 주워 담거나, 근처 예배당 계단에 꽃을 올려놓는 식이었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했다. 종종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곁을 따라다니는 작은 개와, 발목에 비비며 애정을 표시하는 고양이와 수다를 떨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장미로 화환을 엮더니, 주머니 거울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뺨에 립스틱을 바르고 쌀가루 파우더를 뿌렸다. 곧바로 힘차게 닦아냈지만, 아마도 이는 금지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여덟째 날, 그녀는 난간을 넘어서서 나무 덤불이 끝부분을 감추고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테라스에 도착했다.

아홉째 날, 그녀는 책을 한 권 들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열째 날, 쉬는 시간 전, 라울은 결심을 한다.

그는 먼저 숲 가장자리를 두른 울창한 수풀 사이를 기어 들어가야 했다. 그 후 넓은 수면을 가로질러야 했다. 상테마리 강이 거대한 저수지처럼 흘러드는 곳으로, 그곳에서 강물은 땅속으로 숨어들었다. 썩어빠진 작은 배가 말뚝에 묶여 있었고, 그는 거친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이용해 높은 테라스 기슭, 성벽처럼 우뚝 솟은 작은 만까지 닿을 수 있었다.

벽은 평평한 돌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이었다. 돌 틈새로는 야생 식물들이 자라나 있었다. 비가 내려 모래 자국을 파고, 틈이 생기자 근처 아이들이 가끔씩 그 틈을 타고 올랐다. 라울은 어렵지 않게 벽을 올랐다.

정상에 다다른 테라스는 여름 거실처럼 쓰였다. 아우카 나무들과 무너진 격자, 돌 벤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terracotta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쉬는 시간의 웅성거림을 들었다.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몇 분 뒤 가벼운 발소리가 그의 쪽으로 다가왔다. 상큼한 목소리가 로맨스 풍의 선율을 흥얼거렸다. 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녀가 그를 보고 뭐라고 할까?

나뭇가지가 삐걱거렸다. 잎사귀가 커튼을 들어 올리듯 걷혔고, 오레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테라스 문턱에서 쑥 멈춰 섰다. 노래는 중간에 끊겼고, 놀란 듯 굳어버린 자세였다. 손에 쥐고 있던 책과 꽃으로 가득 채워 팔에 감았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한 갈색 양모 옷차림 아래, 가늘고 섬세한 실루엣만 남아 있었다.

라울을 알아본 것은 잠시 뒤였다. 그때 그녀는 온통 붉게 달아올랐고, 속삭이듯 물러서며 말했다.

"가세요… 가세요…"

그는 그 명령을 따를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는 어떤 여성을 마주했을 때도 느껴 본 적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가세요."

"싫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제가 가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수도원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녀는 도망치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는 재촉하듯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를 비틀며 팔을 뿌리쳤다.

"내 곁에 가까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의 격앙된 태도에 놀라 물었다.

"왜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싫어요."

그 대답은 너무 기이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시나요?"

"마레스칼보다도요?"

"기욤이나, 파라도니 저택의 남자에 비해서도요?"

"네, 네, 네."

"그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으셨는데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모자를 주워 얼굴 아래쪽에 꼭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그의 시선에서 자신의 입술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렇게 설명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수치스러운 일들의 목격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그가 자신의 품에 안고 입술에 키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처럼 진솔하고, 자신의 영혼과 본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자에게서 이런 기묘한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니. 라울은 억지로라도 중얼거렸다.

"잊어주십시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 그녀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뒤, 자기도 모르게 존중하는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 밤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당신도 저도, 그 밤의 기억은 남기지 않는 게 나아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잊으세요. 제가 찾아온 건 그걸 상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계속해 온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당신의 길에 마주쳤고, 우연이 처음부터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제발요. 위기의 위협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격분해 있죠. 제가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어요?"

"가세요." 그녀는 완고하게 말했다.

그녀는 테라스 입구에 서서, 마치 열린 문 앞에 선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라울의 시선을 피했고, 입술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구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 번의 키스보다 더 끔찍했던 과거의 고문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세요. 저는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요. 당신은 이 모든 일, 지옥 같은 일들에 연루되어 있어요."

"다행이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도 준비되고 있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마레스칼이 당신을 포기할 리 없죠. 지금도 그의 발걸음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 상테마리 수도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행복하게 보냈다면,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테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 태도에 젊은 여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매일 날마다 기다리겠지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통이 되거나, 끔찍했던 그 밤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질문들에 당신은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닥칠 순간, 내가 항상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말도, 고개 끄덕임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라울은 그녀가 테라스를 내려다보며 자작나무 숲 길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그녀가 떨어뜨린 꽃잎들을 몇 개 주워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임을 깨닫고는 스스로를 달랬다.

"헛! …이제 진지해지고 있군. 도대체 … 자, 자, 옛 친구 뤼팽,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는 다시 균열 난 성벽 길로 돌아섰고, 연못을 다시 건너 숲속을 거닐었다. 손에 쥔 꽃들을 하나둘 던지며, 마치 그 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초록 눈의 아가씨의 모습은 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테라스로 다시 올랐다. 오렐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튿날과 그다음 날에도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나뭇잎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라울은 그녀의 발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였다.

"아! 그분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당신이군요… 당신이에요…'"

그의 태도를 본 그는, 조금도 다가가지 말아야 하고, 그녀를 놀라게 할 만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굳어 있었다. 지배당하는 것에 반발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적에게 원한을 품은 상대처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고개를 반쯤 돌리며 그녀는 말했다.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성마리아의 수녀님들, 제 은인들에게 죄송하죠. 하지만 제가 당신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다. "무서워요. 네, 무서

워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말이 무서워요.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할게요."

"모든 것에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쿠르의 밤에는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요. 짧은 말로요, 그렇죠? 뭘 알고 싶으신 건가요?"

라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질문이 그녀가 입을 닫고 있는 한 지점을 밝히려는 것이어야 했기에, 질문을 던지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먼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오렐리… 오렐리 드 아스토."

"그럼 레오니드 발리라는 이름은 왜요? 가명인가요?"

"레오니드 발리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니스에 머물고 있었죠. 니스에서 마르세유까지 함께 여행한 그녀의 극단 동료들 중 한 명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지난해 겨울, 아마추어 공연에서 베로니크 역을 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두 저에게 레오니드 발리 자리를 대신 맡아 달라고 애원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당황하는 모습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드렸죠. 우리는 투루즈의 극단장에게 미리 연

락을 했어요. 극단장은 마지막 순간에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제가 레오니드 발리인 것처럼 보이게 했죠."

라울이 말을 맺었다.

"당신은 배우가 아니군요…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냥 생테마리의 예쁜 기숙사생으로 남는 게 더 낫습니다."

그녀가 눈썹을 찌푸렸다.

"계속해."

그가 곧이어 다시 말을 이었다.

"하오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마르스칼에게 지팡이를 들이댄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군요."

"장인어른이세요."

"이름이 뭐죠?"

"브레자크."

"브레자크?"

"네, 내무부 사법국 국장이십니다."

"그렇다면 마르스칼의 직속 상관이 되는군요?"

"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르스칼은 장관의 지지를 받아 장인어른을 제치고자 했고, 장인어른은 마르스칼을 제거하려 했죠."

"그리고 마르스칼은 당신을 좋아합니까?"

"그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요. 장인어른은 그에게 우리 집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미워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파라도니 빌라에 있던 남자의 이름은?"

"조도."

"직업은?"

"모르겠어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장모님을 만나곤 했죠."

"세 번째는요?"

"기욤 앙시벨. 우리도 그를 맞이했었어요. 그는 주식과 사업을 하더군요."

"아마도 좀 더럽고 음흉한 일들 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라울이 정리했다.

"이제 세 명의 적수를 알았군요. 다른 사람은 없겠죠?"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장모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요?"

"제 가엾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도 같군요. 당신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때문에 말입니다."

"네. 다만 마레스칼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저 복수심만 앞세우고 있을 뿐이죠."

"비밀 자체보다는, 그 비밀이 빚어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말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모두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짧고 차갑게 대답만 하던 오를리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의 사촌이셨고, 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연금과 함께, 제 외할아버지인 아스토의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연금이 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예술가이자 발명가였으며, 늘 새로운 발견과 큰 비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떠난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일들, 곧 우리의 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던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눈앞에 할아버지가 계신 듯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무릎에 앉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작은 오를리에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일하는 건 바로 너를 위해서야."

"그때 저는 여섯 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 둘, 즉 엄마와 저를 몰래 만나자고 청하셨죠. 어느 날 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이틀 동안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엄마는 할아버지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렐리야. 이틀 동안 네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는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비밀은 이제 우리와 너만의 것이야. 그리고 스무 살이 되면, 그 비밀이 너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거야."

"정말 엄청난 부요." 아스테우의 할아버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에 대해 절대 입 밖으로 새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맹세해 줘."

"누구에게도요." 엄마가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 그리고 너 자신을 믿는 것만큼 그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돼."

나는 요구하는 대로 모든 맹세를 했다. 나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브레자크와 재혼했다. 행복하지도 않았고, 오래 가지도 못한 결혼이었다. 이듬해 초, 어머니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는 나를 보며 재빨리 종이 한 조각을 건넸다. 그곳에는 내가 방문할 땅과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모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토의 할아버지도 별세하셨다. 나는 의붓아버지 브레자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나를 곧장 생마리 이 수녀원으로 보내 버렸다.

나는 매우 슬픔에 잠긴 채, 당황한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이 있었다. 바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외로운 곳을 찾아 이곳 테라스로 왔다. 어릴 적 머릿속에 그려 두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남긴 지시사항은 이미 외울 만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종이를 간직해야 했을까? 내가 그것을 간직하는 한, 세상이 끝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이 항아리 속에 태워 버렸다.

라울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단서는 다 잊어버렸나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이, 저도 모르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일, 그리고 즐거움 속에서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그곳으로 가는 철도 노선도, 내가 해야 할 일들도요. 모든 게 다 잊혔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지 않았나요?"

"다 잊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풍경과 느낌만큼은 예외입니다. 어린 소녀의 눈과 귀에 유난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들이었죠. 그 후로도 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들, 그리고 마치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 듯 지금도 또렷이 들리는 종소리 같은 소리들 말입니다."

"당신의 적들은 그런 인상과 이미지, 그러니까 당신의 기억을 알고 싶어 했군요. 당신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려 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어머니가 실수를 했거든요. 할아버지 아스토가께서 저에게 맡기신 비밀을 암시하는 편지들을 태우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 편지들을 건

네받은 브레야크는 상테 마리 수감 기간, 열 년 내내 그 일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열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시절이 될 거예요. 하지만 파리에서 돌아온 그날, 이틀 전의 일이에요. 그가 저를 심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한 말처럼, 마땅히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했지만, 그가 추측할 만한 흐릿한 기억들은 절대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끝없는 박해가 시작됐죠. 질책도, 다툼도, 심지어 격분도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할 때까지."

"혼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 Guillame Ancivel은 저에게 정중하게 구애를 했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제 호감은 얻지 못했지만 제 신뢰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도망칠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았거든요."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을 지지했겠죠?"

그는 내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준비를 도와주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석과 증권을 몇 개 팔아 자금도 마련했다.

출발 전날, 피신처가 마땅치 않던 나에게 기욤이 말했다.

"저는 니스에서 왔고, 내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모셔가도 될까요? 그 시기에 리비에라만큼 조용한 피신처는 없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물론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처럼 보였고, 헌신적이었다. 나는 승낙했다.

"무모하군요!" 라울이 말했다.

"네, 맞아요. 더구나 우리 사이에는 그런 행동을 변명해 줄 만한 친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세상에 혼자였고, 불행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동안이나마 의지할 곳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아우렐리가 잠시 망설였다가, 이야기를 급하게 이어갔다.

"여행은 끔찍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욤이 저를 의사가 훔쳐온 마차에 던져 넣었을 때, 저는 이미 기력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역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티켓을 가지고 있었기에 니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짐을 찾아냈죠."

"저는 열이 나고 환각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죠."

"그는 다음 날 저를 데리고 가서, 주민들이 없는 사이 자신의 성에서 훔쳐간 일부 가치를 되찾으려는 그의 계획에 저를 동행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데나 가는 것처럼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동적으로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그 빌라에서 저는 요도와에게 습격을 받고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을 구해 주셨죠. 그런데 당신은 도망치며 두 번째로 나를 갚으셨어요. 그만합시다. 조도도 역시 진실을 요구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그다음, 나는 호텔로 돌아갔고 기욤이 몬테카를로로 함께 가자고 간청했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라울이 반박했다.

"어떻게요? 잘 보이면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틀 동안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조도트의 습격이 그 상태를 더 악화시켰죠. 그래서 기욤을 따라나섰어요.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고, 자신의 비겁함에 수치심을 느꼈으며,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 남자의 존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모네카를로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기욤이 저에게 어떤 편지를 맡겼죠. 호텔 복도에서 그 편지를 받아서,

그가 직접 어떤 신사에게 건네라고 했어요. 어떤 편지였나요? 어떤 신사였죠? 마레스칼은 왜 거기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서 저를 구해내셨나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깨어났어요. 기욤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했죠. 그래서 모네카를로를 떠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계약을 끊고 이곳에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욤은 툴루즈까지 저를 쫓아왔고, 오후 초에 그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제 결심을 알렸을 때,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 그는, 얼굴이 굳은 채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헤어집시다. 사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어느 날, 장인인 브레야크가 당신에게 물려준 비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모든 항변과 헌신은 다 거짓이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언젠가 내가 장인에게 거절했던 비밀, 그리고 조도가 억지로 빼내려 했던 진실을 내게서 꺼내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유혹하든, 위협으로 밀어붙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라울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진실된 말을 했다. 라울은 그 사실을 깊이 느꼈다.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 인물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그게 낫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니스에서 그가 파라도니 저택에서 찾던 문서들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훔치러 간 것이죠. 몬테카를로에서는 불리할 만한 편지들을 돌려받는 대가로 십만 프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사기꾼이자 도둑,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이죠.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오레리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눈치챈 듯했고, 이제야 드러난 냉혹한 사실은 그녀를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못했다.

"그녀를 저 남자로부터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아쉽군요." 그가 말했다.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피하려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헛되이 흘렀는지요."

그녀가 떠나려던 참이었지만, 다시 입을 열었다.

"왜 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를 고발하는 마레스칼도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은

저를 모든 위험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가 비웃듯 웃었다.

"당신의 비밀도 빼앗아 보려는 뜻입니다. 그게 당신이 묻고 싶은 말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도 뭘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이삼 주 동안 저는 사방에서 그림자 같은 벽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신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보내 주었다.

그녀가 떠나는 동안(그는 다른 출구를 찾아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테라스 아래에 있는 작은 문이었고, 그는 그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 끔찍한 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베이크필드 여사는 이미 죽었다. 두 명의 남자가 살해당했고, 그녀는 변장한 채, 가면을 쓴 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에게도 모든 것이 신비롭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뿐이었다. 그녀 주변처럼, 그 주변에도 그림자 벽이 높게 쌓아 올랐다. 그 어둠 틈으로 희미한 빛이 간간이 스며드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대할 때, 베이크필드 여사의 시체 앞에서 맹세한 복수와 증오의 서약 따위를 잠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드벤처가 시작된 순간부터 그랬다. 또한 그 우아한 초록 눈의 아가씨의 이미지를 더럽힐 만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 그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사흘 연속, 그녀는 이유 없이 찾아왔다.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보호를 구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먼저 십 분, 그다음 십오 분, 서른 분을 더 머물렀다. 두 사람은 말을 별로 나누지 않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 안에서 신뢰를 쌓는 과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점점 부드럽고 가까워진 그녀는, 균열이 난 곳까지 다가가서 연못의 물결이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러 차례 그녀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몸을 피했다. 떨리는 몸으로, 보쿠르의 끔찍했던 시절을 암시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먼 과거의 일이나, 과거 생트마리에서 보냈던 삶, 그리고 이 정겹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다시 찾은 평화에 대해 말이다.

어느 날, 그녀의 손이 역방향으로 꽃병 받침대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손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 선을 살펴봤다.

"처음부터 나는 그런 걸 눈치챘어요. 두 가지 운명이 겹쳐 있는 거죠. 하나는 어둡고 비극적인 운명, 다른 하나는 행복하고 아주 평범한 운명. 둘이 교차하고 얽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 누가 이길지 말은 못 하죠. 진짜 운명은 어느 쪽인가요?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맞는 쪽은요?"

"행복한 운명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제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위기가 닥쳐도 금방 표면으로 올라와서, 지금처럼 기쁨과 잊음을 주거든요."

그는 조사를 계속했다.

"물을 조심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물은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난파나 홍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당신의 삶은 모두 잘 풀려가요. 이미 선한 요정이 악한 요정을 이기고 있죠."

그녀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다. 동시에, 그가 감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입가에 가끔씩 미소가 스치길 바랐다. 그 역시도 잊고 싶었다.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그렇게 두 주일을 보냈다. 감추려 애썼지만, 깊은 기쁨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하고, 오직 바라보고 듣는 기쁨 외에는 모든 것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는 마레스칼이나 기욤, 혹은 조도 같은 적들의 위협적인 모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 세 적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자신의 흔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그 젊은이와 함께 느꼈던 달콤한 나태함에 몸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눈을 떼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후였다. 그들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연못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연못 한가운데는 물이 거의 고요했지만, 가장자리에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급하게 밀려온 파도는 가브 강이 좁은 출구로 쏟아져 들어가는 곳으로 흘러갔다.

그때, 정원 깊은 곳에서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레리! … 오레리! … 오레리, 어디 있니?"

"세상 속이여!" 소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왜 나를 부르는 거지?"

그녀는 계단 꼭대기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작나무 길에 있는 수녀 한 명이 보이는 것을 보았다.

"여기 있어요! …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매님?"

"전보가 왔어요, 오레리."

"전보요? 자매님, 힘들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잠시 후, 그녀가 전보 한 장을 들고 여름 방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편이에요."

"브레자크?"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곧 도착할 겁니다."

"왜요?"

"저를 데려가려고요."

"말도 안 돼!"

"여기 보세요."

그가 보르도에서 온 두 줄의 전보를 읽었다.

'오후 4시 도착. 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브레자크.'

라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할아버지께 알렸나요?"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예전에 방학 때마다 이곳을 찾곤 하셨어요. 그러니 알아내셨겠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세요."

"수녀원장은 저를 머물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울이 살며시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요."

"어떻게요?"

그가 테라스 구석, 그리고 숲을 가리켰다.

그녀가 반박했다.

"도망친다? 이 수녀원 같은 감옥에서 죄수처럼 탈출한다니? 안 돼. 절대 안 돼. 나를 딸처럼,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딸처럼 여기는 이 가녀린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주겠니?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해."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담장 반대편에 놓인 돌 벤치에 주저앉았다. 라울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 느껴야 하오. 한 남자가 자신의 전부를 건 여인을

대하듯 말이오. 그리고 그 헌신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고, 나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조건이오. 이해하겠소?"

"네." 그녀가 대답했다. 그의 말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했다.

"자, 이제 내 지시를 들어라. 명령이야. 그래, 내 명령이지. 이모님을 무조건 순종해. 싸우지 마. 대화도 하지 마.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실수를 범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야. 이모님을 따라 Paris로 돌아가. 도착한 그날 밤, 무슨 핑계든 만들어서 집을 나와. 하얀 머리를 한 노인이 자동차를 타고 문에서 스무 보쯤 떨어진 곳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야. 내가 당신 둘을 프로뱅스로 데려가, 아무도 찾지 못할 은신처로 보낼 거야. 그리고 나는 곧장 떠날 거야.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오.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는 다시는 당신 곁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합의된 거야?"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 뵙죠. 제 말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보호 의지와 제 계획의 성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낙담하지 마세요. 심지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고, 집요하게 생각하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위협도 당신을 노리지 않는다고요. 필요할 때, 정확히 그 순간에 제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미모씨."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재킷의 리본을 가볍게 입맞혔다. 그러고는 낡은 격자창을 치우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옛 성문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흙길을 따라 사라졌다.

오를리에리는 돌 벤치에 앉은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반분이 지났다.

그때, 그녀는 구멍 쪽에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관목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 틀림없었다. 누군가 그곳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외치고 싶었다. 도움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 버린 것이다.

나뭇잎이 더 크게 흔들렸다. 누가 나타날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기원했다. 기우가나 조도트가 나타나길. 두 폭도 마레스칼보다는 그들을 덜 무서워했다.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레스칼이 숨어 있던 곳으로 나왔다.

아래쪽, 오른쪽에서 거대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7장

테라스는 큰 정원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산책하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며, 두꺼운 나뭇가지들이 우산을 틀어놓은 듯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 덕분에 아우렐리와 라울은 몇 주 동안 절대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마레스칼이 필요한 몇 분을 그곳에서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아우렐리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그 장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말은 그의 냉혹한 의지대로 흘러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 감정을 뚜렷이 느꼈기에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더니 멈춰 섰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단정했던 얼굴의 균형을 흐트러뜨렸고, 평소 움직이지 않던 그의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의 입꼬리 왼쪽이 올라가며 비웃는 듯한 주름이 생겼고, 그에 따라 턱수염

의 절반도 함께 움직였다. 이빨이 번들거렸다. 눈은 잔인하고 차갑게 빛났다.

그가 비웃듯 말했다.

"자, 자네. 사건이 내 편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이크르 역에서처럼 도망치지도 못하겠고, 파리에서처럼 쫓겨나지도 못하지. 하하, 이제 강자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할 판이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팔을 뻗은 채, 돌 벤치에 꽉 쥐고 있는 주먹을 드러낸 채, 오를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미친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신음 소리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이렇게 보니 당신을 보니 참으로 기분이 좋소, 아가씨. 내가 당신을 조금 과할 정도로 사랑하다 보니, 당신 앞에서는 두려움과 반항심이 느껴지는 게 오히려 싫지 않소. 그걸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더 열렬하게 사냥감을 쫓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사냥감을 말이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정말,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우니까."

그가 펴져 있는 전보를 보고는 비웃듯 말했다.

"이 훌륭한 브레야크 와인, 맛보셨습니까? 이 와인이 곧 도착할 그이를 알리고, 당신의 떠남을 예고하죠. … 알아요, 알아요. 지난 열흘 동안 저는 그이를 감시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이사님. 그이의 가장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제가 파악하고 있죠. 그이 곁에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당신의 은신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이보다 몇 시간 앞서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숲과 계곡을 살펴보며, 멀리서 당신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테라스로 급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 위로 올라가 사라져 가는 한 인물의 실루엣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죠, 맞습니까?"

그가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몸을 움찔 떨며, 벤치를 둘러싼 철조망에 가슴을 부딪쳤다.

그는 화가 났다.

"야, 이 예쁜이. 방금 전에는 그렇게 피하지도 않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어루만질 때는 말이야. 그 행복한 남자는 누구야? 약혼자? 아니, 애인이지. 어쨌든 내가 딱 좋은 타이밍에 도착했어. 내 것을 지키고, 생테마리 기숙사의 순진한 학생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러 온 거야. 상상도 못 했어! …"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 위에 몸을 숙였다.

"어쨌든, 오히려 잘된 일이야.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는군. 내가 하고 있는 이 판은 이미 훌륭해. 모든 승부수를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행운이 따랐어. 오를리가 단호한 처녀는 아니었어. 구덩이 앞에 서는 도망칠 줄도 알고, 도둑질과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여인이었지. 게다가 오를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럼 왜 내 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오를리, 저 남자보다 내가 낫지 않아? 저에게는 장점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오를리?"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적의 분노는 그 공포에 질린 침묵 때문에 오히려 격렬해졌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각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며 말했다.

"우린 장미 꽃말을 나누거나, 사소한 일들을 하나씩 건드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오해가 없도록요. 그러니 핵심부터 갑시다. 과거나 제가 겪은 수치스러운 일은 이제 묻어두겠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현재란, 급행열차 살해 사건입니다. 숲속으로의 도주, 헌병대에 잡힌 일, 그리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스무 가지 증거들. 현재는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당신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오늘. 제가 원하기만 하면 당신을 잡을 수 있고, 장인어른께까지 데려가서 증인들 앞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살인한 여자,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체포 영장은 제 주머니에 있죠. 헌병대를 부르시오!'"

그는 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말하길, 여자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더 깊고 무겁게, 공중에 매달린 위협을 다하며 그는 끝을 맺었다.

"한편으로는 공개 고발, 재판, 그리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선택하라고 한 그 합의, 즉 즉각적인 타협이야. 너도 짐작할 조건들이 있지.

나는 단순한 약속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무릎 꿇고 하는 맹세야. 파리로 돌아온 뒤, 오직 나 혼자 있을 때 내 집으로 찾아오라는 거지.

그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야. 합의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네 입술로 내 입술에 직접 남기는 거야. 혐오나 증오의 키스가 아니라, 자발적인 키스. 너는 전에 더 아름답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키스를 준 적이 있지, 오를리. 연인의 키스처럼.

하지만 대답해라, 젠장! ” 그가 분노에 휩싸여 외쳤다. “수락한다고 말해라. 더 이상 저런 저주받은 여인 같은 태도는 싫어! 대답해, 아니면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그럼 키스는 물론이고, 감옥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때, 한 손이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마레스칼의 어깨를 내려쳤다. 다른 손은 오를리를 목으로 잡아 목을 조르며 그녀의 머리를 격자에 꽉 눌러 붙였다. 입술이 내려앉으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동작은 완성되지 않았다. 마레스칼은 소녀가 자신의 몸으로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기절해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마레스칼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특별한 계획 없이, 적어도 브레자크가 도착하기 전인 한 시간 안에 엄숙한 약속과 그의 권력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계획 하나만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운명은 그를 무력하고 의식을 잃은 희생자로 내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 위에 몸을 굽혔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주변을 둘러봤다. 잎사귀로 뒤덮인 이 방은 닫혀 있었고, 은밀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간섭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그를 발코니 난간 쪽으로 이끌었다. 관목들 사이에 뚫린 틈으로 그는 고요한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나무들로 가득한 숲, 어둡고 신비로운 그곳. 지나갈 때 그는 동굴 입구를 발견한 바 있었다.

아우렐리를 그곳에 던져 넣는다. 가두어 둔다. 헌병들의 끔찍한 위협으로 그녀를 통제한다. 아우렐리가 포로가 되어 이틀, 사흘, 필요하다면 여덟 날 동안 갇혀 있다. 이는 뜻밖의 결말이 아니었는가? 승리의 엔딩이자, 이 모험의 시작이자 끝이 아니었는가?

그는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연못 건너편, 숲 가장자리에 있는 두 덤불 위에서는 두 개의 팔이 허공을 저었다. 미리 정해 둔 신호였다. 그는 자신의 음모를 위해 두 명의 남자를 그곳에 숨겨둔 상태였다. 연못 이쪽에서는 작은 배가 살랑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마레스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기회가 찰나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놓치면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테라스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리고 그 소녀가 곧 깨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움직이자.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스카프를 덮어씌웠다. 스카프의 끝 두 가닥은 그녀의 입에 묶여 목도리처럼 조여졌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안아 올랐다.

그녀는 마른 체형이었고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그는 튼튼한 체격이었다. 그에게 그 무게는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절개지에 다다라, 지반 중앙을 파헤친 폭우의 침식이 만든 절벽의 경사를 내려다보았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오를리를 절개지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급작스러운 영감이었던 걸까. 어쨌든 마레스칼의 무모함은 즉각적인 대가를 치렀다.

그를 당황하게 할 만큼의 빠른 속도와 결단력으로, 그녀는 예기치 않은 동작을 취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따지지 않은 채, 마치 자갈과 모래가 무너져 내리며 먼지를 일으키는 산사태에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놀람을 털어내고, 넘어질 각오를 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녀는 절벽에서 강가까지, 제멋대로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었다. 도망갈 곳도 모르는 쫓기는 짐승처럼.

"너, 완전히 빠졌네, 불쌍한 아이야."

그가 내뱉었다.

"무슨 수를 써도 무용지물.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게 최선이야."

그가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였다. 오레리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발을 헛디뎠다.

그때였다. 테라스 위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가 꺾여 떨어지듯, 그것은 그의 발 근처에 힘껏 떨어졌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 아래쪽이 손수건으로 가려진 남자가 보였다. 오레리가 '오레리의 연인'이라 부르던 자였다.

그는 즉시 권총을 뽑아 들었지만, 사용할 시간은 없었다.

공격자가 가슴을 향해 내지른 발차기가 그를 강물처럼 진흙탕이 된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다. 반쯤 잠긴 채 분노에 찬 그는 권총을 겨누었다.

그 순간, 스물다섯 보드쯤 떨어진 곳에서 그 남자는 젊은이를 보트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멈춰! 안 그러면 쏴!" 그가 외쳤다.

라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썩어 반쯤 간 널조각을 방패처럼 내밀어 자신과 오레리를 보호했다. 그리고 배를 밀어냈다. 배는 파도 위를 요란하게 흔들며 떠났다.

마레스칼이 총을 쏘았다. 다섯 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그는 절박함과 분노에 찬 듯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젖은 총알인지, 다섯 발 모두 터지지 않았다.

그때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소리로.

멀리서 두 남자가 수풀 사이로 나타나더니, 마치 상자에서 튀어나온 악마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라울은 연못 한가운데 있었다. 맞은편 강변에서 약 서른 미터쯤 떨어진 곳이었다.

"쏘지 마!" 마레스칼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정말 소용없는 일이었지! 도망자는 가브 강이 심연 속으로 사라지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오직 일직선으로 질주해서 정확히 두 동료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권총을 손에 쥔 채 그를 맞이할 계획이었다.

도망자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한 사람과만 싸우면 되었으니까.

"쏘라! 쏴!" 마레스칼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 술수를 간파한 것이었다. "이제야 돌아오니, 이제야 쏴야 해! 젠장, 왜 안 쏴!"

한 남자가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배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라울은 노를 놓으며 뒤로 넘어졌고, 젊은 여자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노는 물에 떠내려갔다.

배는 잠시 동안 멈춰 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조금씩 방향을 틀었다. 선두가 흐름을 향했다. 배는 뒤로 물러났고, 처음에는 느리게, 그다음은 점점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젠장, 젠장." 마레스칼이 헛간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우린 끝장났어."

하지만 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결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배는 중앙 물줄기 양쪽으로 몰려든 작은 파도 두 줄기에 휩쓸렸다. 다시 한 번 제자리에서 돌더니, 갑자기 앞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채, 배는 화살처럼 뻥 뚫린 구멍을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두 사람이 강가를 떠난 지 이 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레스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에 발을 담그고,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주받은 그 자리를 응시했다. 마치 지옥의 입구를 바라보는 듯했다. 모자는 연못 위에 떠다녔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었다.

"말도 안 돼. 정말로?"

그는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오레리… 오레리…"

부하들의 부름이 그를 몽롱함에서 깨웠다. 그들은 멀리 돌아와 그를 찾아갔고, 그가 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진짜인가?"

그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는? 구덩이는?"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악몽 속에서 끔찍한 환상들이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곤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끔찍한 현실의 흔적만 남긴 채.

세 사람은 돌판이 덮인 구덩이 위로 올라섰다. 그곳은 갈대와 바위틈에 달라붙은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물은 작은 폭포처럼 떨어지며, 여기저기 윤기 나는 큰 바위들의 등을 적셨다.

그들은 몸을 굽혔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없었다. 밀려드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거품의 흰 가루와 함께 밀려오는 차가운 숨결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옥이야. 마레스칼이 헛소리를 했다. 지옥의 입구 중 하나일 뿐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죽었어. 익사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끔찍한 죽음이라니! 그 멍청이가 그냥 놔뒀다면… 나는… 나는…"

그들은 숲길을 따라 떠났다. 마레스칼은 장례 행렬을 따르는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동행자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마레스칼은 자신의 업무와 별개로 이 모험을 위해 길거리에서 부려먹은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간략한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의 마음은 오로리에로 쏠려 있었다. 우아하고 생동감 넘치던 그녀를 그는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기억들은 죄책감과 공포로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게다가 그의 양심은 평온하지 않았다. 곧 시작될 수사가 그를 겨냥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비극적인 사고에 연루된 것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때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브레자크는 가차 없이 복수를 꾀하며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곧 그는 오직 탈출과 가능한 한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는 일만 생각했다. 그는 동조자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를共同的인 위험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흩어지고,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보가 울리고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요."

그는 약속된 금액의 두 배를 그들에게 건네고, 루즈의 저택은 피했다. 그리고 저녁 7시 기차를 타기 위해 피에르피트-네스타라스로 향하는 길을 나섰다. 그곳에서 기차역까지 데려다줄 마차를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루즈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천막으로 덮인 작은 두 바퀴 수레가 그를 추월했다. 수레를 몰고 있는 농부는 헐렁한 리무진 코트를 입고 바스크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올라타며, 명령조로 말했다.

"기차에 타면 오 프랑 더 주마."

농부는 동요하는 기색조차 없었고, 너무 넓은 마차 받침대에 매여 요동치는 초라한 말에게 채찍질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길은 멀었다. 발걸음이 더디기만 했다. 오히려 농부가 말을 억지로 늦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스칼은 분에 겨워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한탄하며 말했다.

"도저히 못 해. 네 말은 정말 골치 아픈 놈이네. 십 프랑 더 줄까? 어떻지?"

그에게 이 땅은 끔찍하게 보였다. 유령들이 득실거리고, 형사 마르스칼을 쫓는 경찰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그가 죽음을 부른 여자의 시체가 묻힌 이 지역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십 프랑."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미쳐버린 듯behaving

"오십 프랑! 여기 있습니다. 오십 프랑! 이제 이십 킬로미터 남았어요. 일곱 분 안에요… 세상에,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어서, 천하장사여, 당신의 염소를 부채질하라오! 오십 프랑!"

농부는 갑자기 격분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놀라운 제안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는 거침없이 채찍질을 가했다.

"어이쿠, 조심하세요! 우리랑 도랑에 떨어뜨리시려는 건가요?"

농부는 그런 일이 생기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십 프랑이니까! 그는 구리 무게가 달린 막대기로 마구 내리쳤다. 놀란 염소는 속도

를 더했다. 수레는 도로 양옆으로 심하게 흔들리며 튀었다. 마레스칼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미친 소리를 다 하네! 우리 곧 떨어질 거야! 멈춰, 젠장! 제발, 정신 좀 차려! 자, 됐어! 이제야!"

사실, 이미 '됐'다.

부주의한 고삐 당김과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말들과 수레는 모두 깊은 도랑으로 추락했다. 수레는 엎어졌고, 두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아래로 깔렸다. 수레 밑에서 말들은 하구에 걸려 발을 차며 허우적거렸다.

마레스칼은 즉각 깨달았다. 자신은 무사하다는 것을. 하지만 농부가 온몸의 무게를 실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떨쳐내려 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친절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로돌프, 불 좀 가져왔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마레스칼의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죽음이 주는 끔찍한 감각, 이미 차가워져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팔다리의 느낌, 아마도 바로 그일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급행열차의 그 남자……"

"맞아요, 급행열차의 그 남자."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되뇌었다.

"테라스의 그 남자," 마레스칼이 신음했다.

"완벽해요. 급행열차의 남자, 테라스의 남자, 그리고 몬테카를로의 남자, 오스만 대로가의 남자, 루보 형제 살해 사건의 살인자, 오를리의 공범자, 뱃사공, 그리고 수레를 끄는 농부까지. 어때, 마레스칼 친구,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한둘이 아니지? 모두 다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라고 말해 봐도 되겠어."

염소는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않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라울은 천천히 리무진을 벗어냈다. 그는 그 옷을 완성자에게 감싸듯 둘러씌웠다. 팔과 다리가 꼼짝 못 할 정도로 단단히 묶인 셈이었다.

라울은 수레를 밀어내고, harness의 끈과 고삐를 당겨 마레스칼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그를 오두막 밖으로 끌어내어, 빽빽한 덤불이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올려놓았다.

남아 있던 가죽 끈 두 개로, 그는 마레스칼의 몸통과 목을 자작나무 줄기에 고정했다.

"나랑은 운이 안 따라주는군, 로돌프 형. 이번이 두 번째야. 넌 나팔뺑이처럼 꼼짝 못 하고 있어. 아, 참! 입 막는 거 잊지 말고 오렐리의 스카프를 써야지. 소리 지르지 말고, 보이지도 않아야 해. 그게 완벽한

납치 피해자의守则야. 하지만 눈은 마음껏 굴려도 돼. 귀도 똑같이. 자, 기차 소리 들리냐? 푸우… 푸우… 푸우… 멀리 사라지고 있어. 그 기차에는 달콤한 오렐리와 그녀의 장인도 타고 있지. 안심해라. 오렐리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살아있어. 좀 피곤할지도 몰라. 그 많은 감정 기복 때문이지. 하지만 잘 자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울은 다리를 묶고 차 파편들을 치웠다. 그러고는 형사 옆으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이 난파 사건, 참으로 기이하지 않나? 하지만 네가 생각할 만한 기적은 없다. 운에 맡긴 일도 더더욱 아니다. 너를 위해 말해 두자면, 나는 기적이나 운에 기대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만 믿는다. 그러니…… 자, 내 말투가 귀찮지는 않지? 자는 게 더 낫지 않나? 안 그래? 그럼 계속하지."

"내가 테라스에서 오를리를 떠나던 중, 길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혼자 두는 게 정말 안전한가? 혹시 어떤 악당이 근처를 배회하거나, 향수 냄새 진동하는 미남자가 어슬렁거리지는 않을까? 이런 직감은 내 시스템의 일부다. 나는 항상 그 직감에 따르곤 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로돌프였다. 추악하고 비열한 납치범이자 경찰이었던 그가, 먹이를 쫓아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너에게 진흙탕 발목 목욕을 선사하고, 오를리를 끌어안고 도망쳤다. 배는 떠났다. 연못, 숲, 동굴——그곳이 바로 자유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네가 휘파람을 불자, 두 놈이 나타나더니 쫓아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풀 수 없는 난제였다. 아니,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들까?'"

"그때 브라우닝 권총이 총알을 쏟아냈다. 나는 노를 놓쳤다. 보트 바닥에서 죽은 척했다. 오를리에게 사연을 설명하고, 우리는 바로 하수구 입구로 몸을 숨겼다."

라울이 마레스칼의 허벅지를 툭 치며 말했다.

"아니, 내 친구,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는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단다.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 이 석회암 지대를 파서 만든 터널을 이용하면, 200미터 아래에 있는 작은 모래사장에 도착한다는 걸. 거기서는 몇 계단을 오르면 되니까 아주 편하지. 일요일이면 아이들 수십 명이 보트를 끌고 와서 여기서 수영을 하곤 해. 다칠 염려는 전혀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멀리서 네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지. 머리를 숙이고, 양심의 가책에 짓눌린 채로 떠나는 너를 말이야."

"그 후 나는 오렐리를 수도원 정원으로 다시 모셨어. 그녀의 장인이 차를 몰고 와서 기차를 타러 데려갔지. 나는 내 짐을 챙기고, 농부의 옷과 말과 마차를 사서, 오렐리의 퇴로를 감추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떠났단다."

라울은 마레스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눈을 감았다.

"이런 일로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말도 하지 않겠네. 잠시 낮잠이라도 자는 게 마땅하지. 내 꿈을 지켜다봐 주게, 좋은 친구 로돌프. 걱정 말게. 이 세상 모든 일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각자 제 자리에 있고, 우리 같은 영리한 자들은 바보들을 베개 삼아 잘 수 있거든."

그는 잠들었다.

저무는 저녁이 찾아왔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라울은 가끔 눈을 뜨곤 했다. 반짝이는 별들, 푸른 빛의 달빛에 대해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러곤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그는 배가 고팠다. 손가방 안에는 음식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마레스칼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의 입에 막힌 천을 벗겨냈다.

"먹게, 친애하는 친구."

그는 마레스칼의 입에 치즈를 넣어 주며 말했다.

하지만 마레스칼은 즉각 격분하며 치즈를 뱉어내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바보야! 멍청아! 넌 바로 그 바보지! 네가 뭘 했는지 알아?"

"당연하지! 오를리를 구했잖아. 그녀의 시아버지가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고, 나는 거기에 합류할 거야."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라고?" 마레스칼이 외쳤다. "네가 모른다는 거야?"

"뭐가?"

"그 시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야!"

라울은 격분한 채 그의 목을 잡아챘다.

"바보야! 멍청아! 내 멍청한 말을 듣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 시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아, 그 비열한 놈… 그런데 대체 이 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는 다 멍청이들이다! 거울을 한번이라도 쳐다본 적이 있냐? 특히 너는 그 기름칠한 얼굴로 더더욱!"

그는 몸을 숙이며 말했다.

"마레스칼, 그 애를 장인어른한테서 빼내 주마. 하지만 그 애를 건드리지 마. 우리 일에는 관여하지 마."

"말도 안 돼." 순찰경이 낮게 말했다.

"왜?"

"그 애가 사람을 죽였거든."

"그럼 네 계획은?"

"법정에 세우겠지.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그 애를 미워하니까."

그가 맹렬한 원한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그 말투를 들은 라울은 이제 마레스칼의 마음에서 사랑보다 증오가 더 우세해졌음을 직감했다.

"자네가 원하면 그래. 전에는 자네에게 승진 제안을 하려던 참이었네. 경찰청장 같은 자리 말이야. 자네는 싸움을 더 좋아하는군. 알겠어. 밤하늘 아래서 첫 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건강에 최고지. 난 말에 올라타 루르드로 향할 거야. 주요 노선을 따라. 이십 킬로미터. 내 말은 작은 발걸음으로 네 시간 정도면 충분해. 오늘 밤이면 파리에 도착해서, 먼저 오레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안녕, 로돌프."

그는 어떻게든 가방을 고정하고, 말에 올라타 안장도 stirrup도 없이, 사냥 노래를 흥얼거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저녁이 되어 파리에 도착한 뤼팽은, 자신을 비크투아르라 부르며 과거 유모였던 노부인을 태운 자동차를 끌고 쿠르셀 거리 작은 저택 앞에 멈췄다. 브레자크가 사는 곳이었다. 조종석에는 라울이 앉아 있었다.

오로리는 오지 않았다.

새벽이 밝자, 라울은 다시 감시 태세에 들어갔다. 거리에서 그는 쓰레기통 구석구석을 갈고리로 뒤져가던 노인을 발견했다. 그리고 라울은 특이한 직감으로, 걸음걸이만으로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재능으로, 그 낡은 옷과 초라한 모자 뒤에서 조도트를 알아냈다. 비록 라울은 파라도니 정원과 니스 도로에서 그를 잠깐 본 적이 있을 뿐이지만, 그는 바로 그 살인자였다.

'대단하군,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네?' 라울은 생각했다.

여덟 시쯤, 호텔 여자종업원이 밖으로 나와 근처 약국으로 달렸다. 지폐 한 장을 쥔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고, 그는 곧 아우렐리가 어제 브레자크에게 데려와져 고열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오쯤, 마레스칼은 그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제8장

사건은 마레스칼에게 뜻밖의 도움을 안겨주었다. 오레리가 방에 갇혀 있는 한, 라울이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도망칠 수도, 형사에게 고발당할 때까지 끔찍하게 기다릴 수도 없었다.

마레스칼은 즉각 조치를 취했다. 오레리 곁에 배치된 감시자는 마레스칼의 심복이었다. 라울이 직접 확인했듯이, 그 여자는 매일 마urses 칼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다. 만약 오레리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된다면, 마레스칼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 라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오레리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명분이 아직 부족해서일 거야. 그는 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지. 그는 준비하고 있어. 나도 준비해야 해.'

라울은 사실들이 늘 뒤집어 버리는 지나치게 논리적인 가설에는 반대했지만, 상황으로부터 거의 무의식적으로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잠시도 생각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그 이상한 현실을 그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사물의 흐름에 밀려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이었다. 이제 그 난관을 과감히 돌파할 때가 왔음을 그는 깨달았다.

"원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첫걸음이라고," 그는 종종 말하곤 했다.

그는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는지는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은 동기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그에게 폭풍우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동인형처럼 보였다.

승리하려면 더 이상 하루하루 아우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비극의 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깊은 이유로 움직였는지, 또 그 이유가 어떻게 그들을 움직였는지 밝혀내야 했다.

"결국 내 옆에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있어. 모두 오를리에를 둘러싸고 그녀를 괴롭히고 있지. 기욤, 조도, 마르스칼, 브레자크. 이 넷 중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자도 있고, 그녀의 비밀을 빼내려는 자도 있어. 사랑과 탐욕이라는 두 요소가 맞물려 이 사건의 전부가 결정되지. 기욤은 당분간 문제될 게 없어. 브레자크와 조도는 오를리에가 아픈 동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남은 건 마르스칼이야. 바로 이자를 감시해야 해."

라울은 브레자크 저택 맞은편에 비어 있는 방을 얻어 거처를 정했다. 한편 마르스칼이 경비를 두르고 있다는 점을 눈치챈 그는, 하녀를 감시한 뒤 결국 뇌물로 매수했다. 경비가 없을 때 세 번이나, 이 하녀는 라울을 오를리에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소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열병으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이어지는 말을 건넬 힘조차 없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건넬 때 쓰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치 자기적 진동이라도 하듯 그녀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이다.

"나야, 오로리. 네가 내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잖아. 이제 안심해도 돼."

"적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까.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하거든. 너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어.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너를 마주하고 있지. 단순하고 정직한 삶."

"너는 무죄야.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너를 비난했을 때도 그랬어. 가장 확실해 보이는 증거조차 거짓으로 느껴졌거든. 초록 눈의 아가씨가 범죄자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는 더 깊은 고백을, 더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의 말에는 조언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 인생 전체예요.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우아함과 매력을 당신에게서 찾았으니까요. 오레리,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신뢰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거든 대답하지 마세요. 편지가 오더라도 답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기서 떠나라고 강요하거든 거절하세요.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으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을 위해,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젊은 여자의 얼굴이 평온한 빛으로 물들었다. 행복한 꿈에 젖은 듯, 그녀는 잠들었다.

그는 브레자크의 전용 객실로悄悄 들어가 문서를 뒤졌다. 물론 그는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서류나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마레스칼이 리볼 거리에서 쓰던 아파트에서도 그는 극도로 철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그는 두 남자가 일하던 내무부 사무실에서 치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그들의 경쟁과 증오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바였다. 둘 다 고위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무부나 경찰청 쪽에서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 그들 때문에 부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중대한 죄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퇴직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과연 누가 희생될 것인가?

어느 날, 라울은 커튼 뒤에 숨어 오를리를 지키는 브레야크를 목격했다.

그는 황달이 든 듯한 창백하고 마른 얼굴의 남자로, 키는 꽤 컸다. 평범한 마레스칼보다 훨씬 우아하고 품위가 느껴졌다.

오를리가 눈을 뜨자, 자신을 굽어보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나를 내버려 둬요. 제발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당신이 나를 해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어머니가 장가든 남자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예쁘구나, 불쌍한 아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왜 늘 내 사랑을 밀어냈니? 맞아, 내가 잘못했지. 오랫동안 나는 네가 이유 없이 숨기던 그 비밀 때문에 너에게 끌렸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그 부질없는 침묵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생각들을 했을 거야. 그것은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일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으니까."

소녀는 듣기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또 말을 이었다.

"너의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너는 종종 나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지. 그게 그 이야기랑 관련이 있었나? 아니면 그 미친

듯한 도주, 윌리엄과 함께한 그 일 때문이었나? 그 악당이 너를 어디로 데려갔지? 너희는 수녀원으로 피신하기 전까지 어떻게 지냈느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쳐서였을까, 아니면 경멸해서였을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떠난 뒤, 라울도 발걸음을 옮기며 멀리 떨어지려 했을 때,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약하자면, 이틀간의 조사 끝에 라울이 아닌 누구라도 이미 포기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해석하려는 몇 가지 경향성에서 벗어나면, 주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표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였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행동한다는 것은 종종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기가 조금은 맑아졌다.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또렷해지고 단단해졌다.

새로운 단서가 아직 없더라도, 그는 이미 사건의 핵심에 다다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센 싸움이 임박했다. 적들이 모두 격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전투의 필요성과 더 효과적인 무기를 찾으려는 욕구가 반드시 뜻밖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충돌에서 반짝이는 단서들이 튀어나올 테니까.

그때, 라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빛이 났다. 그는 그 빛이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단서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이마를 창문에 바짝 대고 브레자크의 창문들을 주시하던 라울은, 헝겊 장수 차림의 공범자 조도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엔 조도트가 어깨에 천 주머니를 메고 있었다. 그 주머니에는 그가 훔쳐온 전리품들이 들어 있었다.

조도트는 주머니를 집 벽에다 내려놓고는 보도에 앉아 먹이를 시작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동작은 본능적으로 보였지만, 잠시 후 라울은 그 남자가 찌그러진 봉투와 찢어진 편지만 골라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챘다.

조도트는 그 편지들을 대충 훑어본 뒤, 다시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의심할 여지 없이 브레자크의 편지들이 그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것이다.

15분 뒤, 그는 다시 주머니를 채우고 자리를 떴다. 라울은 그가 몬마르트르로 향하는 길까지 따라갔다. 그곳에는 요도가 헌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울은 사흘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매번 똑같은, 의아한 수법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셋째 날, 일요일이었다. 라울은 브레자크가 창문 너머로 엿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요도가 자리를 비우

자, 브레자크도 조심스럽게 그를 뒤따랐다. 라울은 멀리서 두 사람을 따라갔다.

드디어 그는 브레자크와 요도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손에 넣게 될까?

그들은 한 명씩 뒤따르며 몽소 구를 지나 성벽을 넘었고, 비노 대로 끝자락에서 센 강가로 향했다. 소박한 빌라들이 허물어진 땅과 어우러져 늘어서 있었다.

그중 한 빌라 벽에 조도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는 그곳에서 사다 오 시간이나 머물렀다. 브레자크는 삼십 미터 떨어진 곳의 작은 식당 그늘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를 감시했고, 라울은 강가 둑에 누워 담배를 피웠다.

요도가 떠난 뒤, 브레자크는 다른 쪽으로 흩어졌다. 마치 이 사건이 더 이상 흥미를 잃은 듯했다.

라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는 알게 되었다. 요도가 앉아 있던 빌라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루보 형제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마르세유행 급행 열차 안에서 세 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한 그들 말이다.

법원은 그 집에 인감을 찍었고, 관리를 이웃에게 맡겼다. 그 이웃은 매주 일요일마다 산책을 나갔다.

라울은 '루보 형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떨렸다. 요도의 음모가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죽었을 당시에는 이 빌라에 거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집은 이제 그들의 샴페인 와인 사업용 창고로만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업자와도 갈라섰고, 각자 따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동업자?" 라울이 물었다.

"네. 동업자 이름이 아직 문 옆에 달린 동판에 적혀 있소. '루보 형제 및 조도'라고."

라울이 몸을 움찔했다.

"조도?"

"네. 얼굴이 붉은 뚱뚱한 사나이야. 마당에 나온 거인처럼 생겼지. 지난 일 년 넘게는 이 근처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어."

"중요한 단서가 나왔군." 라울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조도가 과거에 살해할 두 형제의 파트너였다는 사실. 형사들이 조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가 간다. 마레스칼은 세 번째 공범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살인자 조도가 어째서 옛날 피해자들이 살던 곳으로 찾아갔을까? 그리고 브레야크는 왜 그 행적을 감시하고 있을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흘렀다. 요도가 브레자크 저택 앞을 다시는 서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일 밤, 라울은 그 남자가 일요일 아침에 빌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인접한 빈 땅을 둘러싼 담장을 넘었고, 1층 창문 중 하나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층에는 아직 가구가 놓인 방이 두 개 있었다. 누군가 이 방들을 뒤졌다는 분명한 흔적이 보였다. 누구일까? 검찰청의 요원들? 브레자크? 요도? 대체 왜?

라울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찾아왔던 물건은 없었거나,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다.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그는 책상 위의 책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곧 그 책은 그를 잠들게 했다.

진실은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진실이 멀리 있다고 믿을 때, 우연이 그 진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 자리로 데려다놓곤 한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가 바로 그 우연의 공로가 된다.

라울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읽었던 책을 다시 떠올렸다. 책 표지는 사진사들이 카메라를 가리려고 쓰는 검은 천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찾아보기 시작했다. 천과 종이로 어지럽혀진 찬장을 뒤진 끝에, 그는 비슷한 천 한 뭉치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접시 크기만큼 원형으로 세 조각이 잘려 있었다.

"됐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완전히 파고들었어. 급행열차 강도들의 세 가면은 바로 저곳에서 왔지. 이 천은 변명할 여지 없는 결정적 증거야. 일어난 일을 이 천이 모두 설명해 주고, 그 이치까지 밝혀 주잖아."

진실이 이제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가 막연히 느껴왔던 직관과도 완벽하게 일치했고,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유쾌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는 깊은 침묵에 잠긴 집 안에서, 자제할 수 없어 소리 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그가 말했다. "운명도 스스로 결핍된 단서를 내게 가져다줄 거야. 이제부터 운명은 내 부하야. 내 호소에 맞춰 사건들의 모든 디테일이 몰려와, 환한 빛 아래 줄을 서게 될 테니까."

여덟 시, 빌라의 경비원이 지하실에서 일요일 순찰을 돌며 문을 단단히 잠갔다.

아홉 시, 라울이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곳, 바로 요도가 앉아 있던 자리 위의 창문을 열었다. 다만 셔터는 닫은 채로 두었다.

요도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도 늦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들고 도착해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는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 중에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라울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소시지와 치즈로 구성된 그의 끼니는 담배 연기와 함께였다. 연기는 위로 올라와 라울의 코를 스쳤다.

한 초가 지났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렇게 두 시간이 흘렀지만, 라울은 그토록 긴 정체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셔터 틈새로 보이는 것은 헝겊으로 감싼 두 다리와 닳아빠진 구두뿐이었다. 그 너머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책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브레자크는 레스토랑의 정자 중 하나에 숨어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오 몇 분 전, 조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별일 없나? 이 녀석, 제법 빡세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젠장, 내가 분명히 저기에 있다고 했잖아!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은 내 손에 쥐어보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지? 어제 왼쪽 구역을 뒤졌듯이, 오늘 오른쪽 구역을 다 뒤졌다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다른 곳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집 뒤의 빈 땅까지 뒤져보자. 그들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병을 그곳에 던져놓았을 수도 있어. 야외에 숨긴 곳도 장소일 뿐이지. 브레자크가 지하실을 뒤졌다면, 밖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가서 찾아봐.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라울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조도가 지하실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생각에 잠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지하실은 집 앞뒤로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거리 쪽과 다른 쪽 면에 각각 환풍구가 있었을 테고, 그 길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쉬웠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1층으로 올라갔다. 그 층의 한 방은 빈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추측이 정확함을 확인했다.

'매물'이라는 팻말이 서 있는 공사 중 땅 한복판에는 녹슨 철재 더미와 무너진 콘크리트, 깨진 병들이 쌓여 있었다. 그 사이에서 키 작은 일곱 여덟 살쯤 된 아이가 기어 다녔다. 아이는 몸이 너무 마른 나머지 회색 점퍼가 몸에 꼭 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몸을 비비며 그 틈새를 기어 들어갔다.

그의 수색 범위는 단 한 병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듯했다. 그 범위가 유독 좁아진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조도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작업은 금방 끝날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십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낡은 상자 몇 개를 치워냈다. 그리고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목이 깨지고 먼지로 뒤덮인 한 병을 들고 빌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라울은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 지하실로 향했다. 아이의 전리품을 빼앗으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현관에서 눈여겨보았던 지하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거실 창문 앞에 섰다.

조도가 이미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됐어? 들어갔지? 좋아, 이제 나 '준비 완료'야. 브레자크 친구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못 해. 빨리 '타'."

소년은 말 그대로 '타야' 했다. 이는 분명히 창고 창살 사이로 몸을 납작하게 눌러 붙이고, 천막의 떨림 하나 없이 페럿(담비)처럼 기어 들어가 가방 속 깊숙이 숨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리고 곧바로 요도트가 일어섰다. 짐을 어깨에 메고는 사라져 갔다.

주저함 없이 라울은 봉인을 뜯고 자물쇠를 부수어 빌라 밖으로 나섰다.

삼백 미터 앞, 요도트는 걸어가며 동료를 싣고 있었다. 그 동료는 처음에는 브레자크 호텔의 지하를, 이어 루보 형제의 빌라 지하를 정찰하는 데 쓰였다.

백 미터 뒤, 브레자크는 나무들 사이를 비단벌레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라울은 센 강 위에서 낚싯대를 든 한 어부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 어부는 마르스칼이었다.

결국 조도는 브레야크에게, 브레야크와 조도는 마르스칼에게,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라울에게 뒤따라지고 있었다.

이 경쟁의 상은 한 병의 술이었다.

'정말 흥미진진하군.' 라울은 혼자 중얼거렸다. '조도가 술병을 쥐고 있군. 맞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 도적 중 누가 더 영리할까? 뤼팽이 없다면 나는 마르스칼에 베팅했을 거야. 하지만 뤼팽이 있잖아.'

조도가 멈춰 섰다. 브레야크도, 자신의 뱃타리에 있던 마르스칼도, 그리고 라울도 함께 멈춰 섰다.

조도는 배의 꼬리를 길게 빼서 아이가 편히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술병을 살펴보며 흔들고, 햇빛에 비춰 반짝이게 했다.

브레자크가 움직일 차례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우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파라솔을 펼쳐 들고, 마치 방패처럼 얼굴을 가리며 숨었다. 그의 배, 마레스칼 호 위에서는 마레스가 큰 짚모자를 쓰고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브레자크가 벤치에서 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파라솔을 접었다. 그리고는 산책객들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점프해 들어갔다. 그는 병을 낚아채고는 요새 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도망쳤다.

이 작전은 완벽하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실행되었다.

당황한 요도는 잠시 주저하다가 소리쳤고, 자신의 주머니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곧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마치 그 무거운 짐을 안고 달리면 속도가 느려질까 봐 두려운 듯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마레스칼은 공격을 예상하고 착지해 뒤로 뛰어나갔다. 라울도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이제 경쟁자는 셋만 남았다.

브레자크는 훌륭한 선수답게 오직 달리는 일만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레스칼도 오직 브레자크만 의식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라울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굳이 왜 하겠는가?

열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선수 중 한 명이 테르문 앞에 도착했다. 브레자크는 너무 더워서 외투를 벗어 던졌다. 세관 부근에서는 트램이 멈춰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줄을 서 있었다.

브레자크는 그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다.

마레스칼도 그 뒤를 따랐다.

수표원이 번호를 불렀다. 하지만 혼잡이 너무 심해 마르스칼은 브레야크의 주머니에서 병을 꺼내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못했다. 브레야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르스칼은 곧바로 검문소를 통과해 도망쳤다.

"두 번째 성공이군." 라울이 비웃었다. "내 친구들이 서로를 제거하네. 각자 내 편에서 일하고 있어."

라울이 차례로 검문소를 통과했을 때, 그는 브레야크가 군중 속에서도 절박하게 트램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도둑을 쫓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테른 대로와 평행한 골목들을 택했다. 이 길들은 더 좁고 구불구불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와그람 대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 섰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눈은 혈관으로 충만해 붉게 부어올랐다. 목의 정맥이 터지듯 불거졌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마를 닦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신문을 하나 사서, 그 안에 병을 감쌌다. 병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였다. 그리고는 병을 팔 아래 끼고 다시 출발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기적이라도 아니었으면 쓰러졌을 법한 모습이었다.

사실, 아름다운 마레스칼 씨는 더 이상 몸을 똑바로 세우지 못했다. 가짜 칼라는 젖은 빨래처럼 구겨져 있었다. 턱수염 끝에서는 두 방울의 땀이 떨어지고 있었다.

에투아르 광장 한참 앞이었다. 정반대 방향에서 온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굵은 검은 안경을 낀 그 남자는 입에 피운 담배를 물고 있었다.

남자는 그의 길을 막아섰다. 물론 불을 빌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말도 없이 담배 연기를 그 남자의 얼굴로 뿜어냈다. 그리고는 이빨을 드러냈다. 거의 모든 이빨이 송곳니처럼 날카로웠다.

경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무엇을 원하시오?"

하지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그자가 자신의 장난감, 자신이 '세 번째 공범'이라 부르던 자, 오를리에의 연인이자, 자신 마레스칼의 영원한 적임을.

그는 마레스칼에게 악마 그 자체로 보였던 남자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다정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내놔. 미스터에게 착하게 굴어. 내놔."

"당신 같은 경감께서 주머니에 병을 넣고 다니는 법이 있겠어요? 자, 로돌프. 내놔."

마레스칼은 즉시 무너졌다.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부르거나, 산책객들을 동원해 이 살인자를 쫓아내려니.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괴상한 존재는 그의 모든 의지를 빼앗아갔다. 그는 멍하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도둑처럼, 더 이상 들고 있을 힘이 없는 팔에서 병을 내맡겼다.

그때 브레야크도 숨을 헐떡이며, 힘도 없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세 번째 도둑을 쫓아붙일 힘도, 마레스칼을 불러세울 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발길질을 멈춘 채 보도 가장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을 쓴 남자가 택시를 불러 타고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두 사람에게 큰 절을 건네는 것이었다.

라울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병을 싸던 종이를 벗겨냈다. 그것은 생수병처럼 쓰이는 리터 병이었다. 마개가 없고 유리가 불투명한 검은색의 낡은 병이었다. 더럽고 먼지가 쌓인 라벨에는 비바람을 막아준 흔적이 역력했다. 굵은 활자로 된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로는 여러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애써 읽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글씨가 바로 '영원의 물'의 비결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병은 비어 있지 않았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가벼운 무언가였다.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병을 뒤집어 흔들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끝이 큰 매듭으로 묶인 실을 병 안으로 넣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만지작거린 끝에, 그는 아주 얇은 종이를 하나 꺼냈다. 종이는 튜브처럼 말려 있었고, 빨간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가 종이를 펴 보니, 그것은 평범한 A4용지 절반 정도 크기에 불과했다. 아래쪽은 고르지 않게 찢겨 나갔다.

종이 위에는 잉크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많은 글자가 누락되었지만, 그는 그 단서들로 몇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사실입니다. 제 고백도 명확합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요도나 루보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 브레야크

라울은 단번에 브레야크의 필체라고 알아봤다. 하지만 잉크는 세월이 지나 하얗게 바랬고, 종이의 상태도 그렇다 보니 이 문서는 최소한 십오 년, 길면 이십 년 전의 것임이 분명했다.

도대체 어떤 범죄였을까?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라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중얼거렸다.

이 사건의 모든 혼란은, 이 일이 두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었고, 앞선 사건이 뒷일을 결정지었다.

첫 번째는 급행열차 사건이다. 루보 부부, 기욤, 조도, 그리고 오를리에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또 다른 비극. 오늘 두 당사자가 다시 마주한다. 조도와 브레야크.

누군가 열쇠 구멍의 비밀을 모른다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겠지만, 나에게만은 점점 선명해진다. 전투가 임박했다. 승부의 쟁점은 오를리에다. 아니, 정확히 말해 그녀의 푸른 눈동자 깊숙이 숨어 있는 비밀이다.

힘이든, 술수든, 사랑이든. 잠시라도 그녀의 시선과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이 비밀을 손에 쥔다. 이미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그 비밀을.

그 복수심과 탐욕스러운 증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레스칼은 자신의 열정과 야망, 원한을 안고서, 그 무서운 전쟁 기계인 '사법 제도'까지 끌어들였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나, 아르센 뤼팽이 있었다.

그는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상대방이 하나같이 경계를 강화할수록 그의 각오는 더 단단해졌다. 브레자크는 마레스칼의 정보를 흘린 하녀와 라울이 뇌물을 준 하녀에 대해 단 하나의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을 모두 해고했다. 거리를 향한 창문의 커튼은 닫혔다. 한편으로는 마레스칼의 정찰원들이 거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만 요도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브레자크가 자백을 적어둔 문서가 사라진 데다, 그는 아마도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었을 것이다.

이 기간은 열흘 동안 이어졌다. 라울은 가명을 사용해, 마레스칼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장관의 부인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다소 나이가 든 부인의 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매우 질투심이 강했고, 남편에게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울의 세심한 배려는 그녀를 기쁨으로 들뜨게 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마레스칼이 오레리에 대해 느끼는 열정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매시간마다 라울에게 정보를 공유했다. 전염병 국장이 오레리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관의 도움을 받아 브레자크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이 무엇인지 말이다.

라울은 두려움을 느꼈다. 공격이 너무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제 공격을 가해 오로리를 데려가고, 적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망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뭐가 있겠나? 갈등은 그대로 남을 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게다.'

그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한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집에 돌아온 라울은 공문을 하나 발견했다. 장관의 부인이 보내온 것이었다. 최근의 결정 사항을 알려주

었는데, 그중에는 오리의 체포가 포함되어 있었다. 체포일은 다음 날인 7월 12일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다.

'초록 눈의 아름다운 아가씨여, 불쌍한 아이.'

라울이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부탁했던 대로,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줄까? 그녀에게는 또다시 눈물과 불안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전투 전夜的인 대장처럼 평온하게 잠들었다. 아침 여덟 시, 그가 일어났다. 결정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오 무렵, 그를 돌보던 하녀이자 오랜 젖먹이 비쿠아르가 식량 꾸러미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계단에 숨어 있던 여섯 명의 남자가 부엌으로 강제로 들이닥쳤다.

"당신 상사가 여기 있냐?" 한 남자가 거칠게 물었다. "그래, 거짓말 말고. 나는 마레스칼 경감이고, 그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다."

비쿠아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무실에 계십니다."

"데려가 봐."

한 남자가 비쿠아르의 입을 막아 주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복도 끝까지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방을 가리켰다.

상대방은 방어할 틈도 없었다. 그는 붙잡혀 넘어뜨려졌고, 묶인 채 한 통의 소포처럼 취급받았다. 마레스칼은 그를 향해 짧게 말했다.

"너는 급행열차 도둑단의 두목이야. 이름은 라울 드 리메시."

그리고 부하들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검거장으로 데려가. 여기 영장이 있어. 그리고 조용히 해, 알겠지? '손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

"토니, 네가 이 녀석의 안전을 책임져. 라봉스도 마찬가지야. 데려가."

"오후 세 시에 브레자크의 집 앞에서 합류해. 그때는 아가씨 차례고, 장인어른을 처단할 차례야."

네 명의 남성이 '손님'을 끌고 갔다. 마레스칼은 다섯 번째 남자, 소비누克斯만 남겼다.

그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 쓸데없는 서류와 잡동사니를 뒤져댔다. 하지만 그와 동조자 소비누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 병이었다. 열다섯 날 전, 마레스칼이 인도도에서 그 병을 들고 읽을 시간이 있었던, 바로 그 병.

「영원의 물」이라고 적혀 있던 그 병 말이다.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왔다. 마레스칼은 미련 없이 뒤를 더듬었다.

드디어 오후 두 시 십오 분, 소비누가 벽난로 대리석 밑에서 그 유명한 병을 찾아냈다. 병에는 마개가 꽉 막혀 있었고, 붉은 밀랍으로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다.

소비누는 병을 흔들어 본 뒤 전구 빛 아래로 가져갔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 종이를 열어볼까?

「아니… 아니… 아직은 안 돼!… 브레자크 앞에서!… 잘했어, 소비누. 잘했어, 내 친구야.」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는 중얼거리며 떠났다.

"이번엔 목표에 다다랐다. 브레자크는 내 손안에 있다. 그저 조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소녀는 더 이상 지킬 이가 없다. 연인은 이미 감옥에 갔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내 사랑."

제9장

같은 날 오후 두 시쯤이었다. 마레스칼이 '그 애'라고 부르던 소녀가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이제 집안 식구라곤 모두 빠져나간 뒤, 오직 발랑틴이라는 늙은 하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주며, 브레자크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직 병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창백하고 기력이 쇠약한 몸이었지만, 그녀가 증오하는 그 남자에게 마주 서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들었다. 입술과 볼에 붉은 색조를 입은 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브레자크는 1층, 커튼이 닫힌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안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앉아." 그가 말했다.

"앉아. 너 피곤하지?"

"당장 말씀하세요. 제가 뭘 들을 게 있는지. 그래야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브레자크는 방 안을 몇 걸음 걸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오로리를 흘끗흘끗 바라보았다. 적대감도, 열정도 함께 담긴 시선이었다. 그는 타협할 수 없는 의지를 가진 상대와 마주한 남자의 심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억지로 의자에 앉혔다.

"맞아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전할 말은 몇 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그 후에 당신이 결정하면 되죠."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두 적수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브레자크는 그 간극을 느꼈다. 그가 입을 열면 열수록 그들 사이의 심연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어 쥐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걸, 이 상황이 오래갈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누구에게요?"

"하!" 그가 말했다. "마르스칼이 당신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한다는 걸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

그리고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들려, 오레리. 우리한테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장관부에서는 내 서랍을 뒤지고 다닌다. 상사든 하사든, 나를 겨누는 건 다들 마레스칼의 돈봉투를 받아든 자들이다. 그들은 마레스칼이 장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적어도 그의 증오 때문이든, 아니든 말이다. 우리의 과거 역시 같지 않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너를 키워냈다. 나는 너의 후견인이다. 내 파산은 곧 너의 파산이다.

심지어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아니라 너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다. 내가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말이다. 몇 가지 징후로 봐선, 나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너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기절할 듯했다.

"어떤 징후요?"

그가 대답했다.

"그것보다 더 나빠요. 상테 형무소 용지 위에 쓴 익명 편지를 받았거든요.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당신을 기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힘을 내어 말했다.

"기소? 당신이 미쳤나 봐요. 익명 편지 하나 때문에요?"

"알아요, 그렇죠." 그가 말했다. "하급 관료들이 그런 멍청한 소문을 퍼뜨린 거겠죠. 하지만 마레스칼이라면 어떤 음모도 저지를 수 있어요."

"두렵다면 가세요."

"내가 두려운 건 당신 때문이에요, 오를리."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럼 저를 보내주세요."

"그럴 용기가 나나요?"

"당신이 저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용기는 충분히 있어요."

그는 절망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말하지 마. 견딜 수가 없어. 네가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너와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 내 전 생명이 네 눈빛과 네 삶에 달려 있어."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분노에 떨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런 끔찍한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녀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힘없이 쓰러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심하게 떨었다. 패배한 남자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을 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먹먹했다.

"우리는 네가 여행하기 전보다 더 적대적이 되었어. 너는 완전히 달라져 돌아왔어. 도대체 뭘 했니, 오를리? 생마리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미친 듯이 너를 찾던 첫 삼 주간의 동안 말이다. 수도원은 생각도 못 하고."

"그 비루한 기욤을 너는 사랑하지 않았지. 그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너는 그를 따라갔어. 왜? 그리고 둘은 어떻게 되었니? 특히 그는?"

"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들어. 너는 불안해 보여. 망상 속에서 너는 끊임없이 도망치는 사람처럼 말했고, 피와 시체를 보았지."

그녀는 전율했다.

"아니,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들으셨어요."

"잘 들렸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지금 너의 눈은 놀란 빛으로 가득 차 있군. 꿈속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그가 다가가더니, 천천히 말했다.

"너는 큰 휴식이 필요해,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제안하러 온 거지. 오늘 아침에 나는 휴가를 신청했고, 우리는 곧 떠날 거야. 너를 상처 입힐 만한 단어도 결코 내뱉지 않겠다고 맹세해.

더 나아가, 너도 나처럼 소유해야 할 그 비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네 눈동자 깊숙이 숨어 있는 그걸, 내가 종종 강제로 읽어내려다 실패했던 그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더 이상 들여다보려 하지 않을 테니까.

네 눈을 편히 쉬게 해줄게, 오를리. 더 이상 너를 바라보지 않겠어. 내 약속은 분명해. 하지만 와,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네 모습이 너무 불쌍해. 너는 고통받고 있잖아. 너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에 답할 수 있는 건 오직 불행뿐이야. 와."

그녀는 사나운 집념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모욕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은 이제 할 수 없었다.

브레자크의 추악한 열정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과거의 일들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들이 그들을 늘 대립시켜 왔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 열정이 더 큰 벽이 되었다.

"대답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견딜 수 없어요. 당신과 같은 집에 살 수도 없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당장 떠날 거예요."

"물론 혼자서 떠나는 건 아니겠지? 첫 번째 때처럼 말이지." 그가 비웃었다. "길욤이겠지?"

"길욤은 내가 쫓아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일세. 네가 기다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내 확신이다. 네 눈은 계속 찾고 있고, 네 귀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내가 뭐라고 했나?" 브레자크가 악의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정말 네가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 같군. 아니, 오레리,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기욤도, 다른 사람도. 내가 우아망으로 우편을 받으라고 보낸 건 발랑탱인데. 나는 지금 나가지 않을 테니까."

가정의 발소리가 1층 계단을 올라 안방을 지나갔다. 그가 들어왔다.

"용무는 다 끝냈나, 발랑탱?"

"네, 선생님."

"편지나 서명할 것들은 있었나?"

"아니요, 선생님."

"이상하군. 그런데 우편물은?"

"편지가 마르스칼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무슨 권리로 마르스칼이 감히 그런 일을?"

"마르스칼 씨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각하. 왔다가 곧바로 떠났습니다."

"떠났다? 오후 두 시 반에? 업무상 일인 셈이군."

"네, 각하."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 했나?"

"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라봉, 토니, 소비누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봉과 토니와 함께!" 브레자크가 외쳤다. "그렇다면 이건 체포 사건입니다! 왜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발랑틴이 물러났다. 브레자크는 다시 거닐기 시작하며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토니, 마르스칼의 심복… 라봉, 그의 총애를 받는 자들 중 한 명… 그리고 다 내 몰래."

다섯 분이 흘렀다. 오를리는 초조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갑자기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 중 하나를 살짝 젖혔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왔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저기 길 끝까지 있군…… 감시하고 있어."

"두 명 다? 마레스칼의 부하, 토니와 라본스?"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그 둘은 항상 중대한 사건에 동원되는 자들이야. 오늘 아침에도 그들과 함께 이 근처에서 움직였지."

"저들이 정말 거기 있어?" 오를리가 물었다.

"그래. 내가 직접 봤어."

"그럼 마레스칼도 올 거야?"

"물론이지. 발랑틴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그가 올 거야…… 그가 올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그래?" 브레자크가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다. "누구든 순간적으로 겁을 먹게 마련이지만,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브레야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역시 자신의 신경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맞아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한 일 때문에 불필요하게 흥분하죠. 제가 가서 물어보면 다 해결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아니라 맞은편 집에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레리가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집?"

"내가 말했던 그 사건 말야. 오늘 정오에 그들을 체포했어. 아, 마레스칼이 열 시에 사무실을 나갔을 때 모습을 너는 보지 못했구나. 내가 마주쳤거든. 그 얼굴엔 만족과 잔혹한 증오가 서려 있었지. 그 모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평생 이런 증오를 품는 건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나야, 아니면 우리 둘 다야. 그래서 그 위협이 우리를 겨냥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오렐리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맞은편에서 체포가?"

"그래, 리메시라는 자야. 스스로를 탐험가라고 소개하는 자지. 리메시 남작이라고도 불러. 한 시에 부처에서 연락이 왔어. 이미 드포 감옥에 수감됐다고."

그녀는 라울의 이름을 몰랐다. 하지만 그 사람이 라울임에 틀림없다는 의심은 없었다.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라울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리메시가 대체 누구죠?"

"마레스칼의 증언에 따르면, 리메시는 급행열차 살인범이자 우리가 쫓고 있는 세 번째 공범이라고 합니다."

오로리가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한, 어지러움에 취한 표정이었다. 빈 공간에서 손만 더듬거리며 버틸 곳을 찾았다.

"오로리, 무슨 일이야?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저희는 망했어요." 그녀가 신음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이해 못 하세요."

"설명해 봐. 너 그 남자 알고 있어?"

"네… 네… 그가 저를 구해 줬어요. 마레스칼로부터, 그리고 기욤으로부터도 구해 주셨죠. 여기에 모시고 있는 요도도요. 오늘도 저희를 구해 주실 뻔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가 올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전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가 마레스칼을 장난감 삼아 놀리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브레야크가 물었다.

"음, 제 생각엔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도 저도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쳤어!" 브레야크는 당황하며 외쳤다. "그런 건 없어. 전 아무것도 두렵지 않거든."

그는 부정하면서도 이미 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계단 난간 쪽으로 소녀를 끌고 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항한 건 그녀였다.

"아니, 왜 하겠어? 우린 구원받을 거야. 그가 올 거야.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왜 그를 기다리지 않겠어?"

"감옥에서는 탈출할 수 없어."

"믿는다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회복 중인 그녀의 머릿속은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마레스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임박한 체포. 곧이어 들이닥쳐 팔을 비틀어 잡을 경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생각에 휩싸인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곧장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브레자크도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치기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듯, 절박한 범죄자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현관을 가로질렀다.

그때, 문이 울렸다.

"이미 늦었어." 브레자크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아마 그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테라스 친구, 수도원에 있는 그 친구를 생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반드시 구해 줄 것이라고. 그에게 장애물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사건과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던가.

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노인 하인이 식탁 방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 브레자크가 낮게 말했다.

저편에서 속삭임과 부츠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내가 말했잖아.” 브레자크가 재차 말했다.

하인이 순종했다.

바깥에는 마레스칼이 서 있었다. 세 명의 남자가 그를 따랐다. 젊은 여자가 잘 아는, 특유의 풍채를 지닌那些人이었다. 그녀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신음했다. 소리가 너무 작아 브레자크만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그분이 아니시다니.”

브레자크는 부하를 마주 보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제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르스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업무 차입니다, 이사장님. 장관의 지시입니다.”

“내 관련된 지시란 말인가?”

“네, 당신과 미스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 명의 남자를 동원하게 만든 지시인가?"

마르스칼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전혀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그들이 근처를 거닐고 있었고, 우리도 수다를 떨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당신께 불편함을 드린다면…"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두 개의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

"어이쿠, 짧은 여행이라도 하시는 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내 임무는 실패했을 텐데."

"마르스칼 씨," 브레자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수행할 임무가 있고, 나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끝내십시오."

commissaire가 몸을 굽혔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소동은 절대 안 돼, 브레야크.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마. 아무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방에서 이야기하자."

"아무도 모른다고요…… 뭘요, 각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말이다. 그 일에는 꽤 심각한 문제가 따르고 있어. 며느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 만약 그렇다면, 목격자 없이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다고 인정할 거야. 네 생각은 어떻냐, 마들모아?"

백사처럼 하얗게 질린 오렐리는 난간을 놓지 않은 채 쓰러질 듯했다.

브레야크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올라가자."

그녀는 그대로 그를 따라 올랐다. 마레스칼은 부하들을 안으로 들이는 시간을 벌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세 사람 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너, 하인아.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 위층에서 소동이 생기면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소비누가 달려와 도울 거다. 합의했나?"

"합의했습니다." 라봉스가 대답했다.

"틀림없나?"

"물론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따를 줄 아시잖아요."

"브레자크 앞에서도?"

"당연하죠!"

"아, 그 병이로군. 토니, 내게 줘!"

그는 병을, 정확히는 그 병을 담고 있던 상자를 낚아챘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을 안고, 재빨리 계단을 올랐다. 여섯 달 전까지만 해도 추하게 쫓겨났던 서재. 이제 그는 그 공간을 당당히 넘나들었다.

그에게 있어 이 얼마나 큰 승리인가. 그리고 그 당당함은 얼마나 거만했던가. 그는 그 기분을 만끽하듯, 굵직한 걸음과 울리는 구두 소리로 거리를 기어다녔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을 번갈아 올려다보며 말이다. 그곳에는 오로렐리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오로렐리, 작은 소녀 오로렐리, 그리고 청춘의 오로렐리.

브레자크는 비명을 지르며 반발하려 했다. 하지만 마레스칼은 곧바로 그를 다시 제자리에 눌러 앉혔다.

"쓸데없는 소리야, 브레자크. 네 약점은 네가 내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조제핀 여사에게, 그러니 너에게도 마찬가지지. 그 무기를 알게 되면, 네가 굴복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두 적수는 마주 서서 서로를 노려보며 위협했다. 그들의 증오는 같았다. 서로 다른 야망과 상반된 본능, 그리고 사건들이 격화시켜 준 열정적인 경쟁심에서 비롯된 증오였다.

그들 옆에서 오를리는 의자에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마르스칼은 그 점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다.

얼굴은 여전히 피로에 짓눌려 있었고, 근육은 굳어 있었지만,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보였던 '도망치는 짐승 같은 절망'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생마리 교도소 벤치에서 보았던 그 경직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하얀 볼을 흐르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깊은 구렁텅이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다시 몸을 일으키곤 한다. 그녀는 마르스칼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형법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어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마르스칼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좋아, 잘 보자!"

그리고는 소녀를 무시한 채, 브레자크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그는 브레자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죠. 일부 사실은 이미 브레야크 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그러니까…"

브레야크가 몸이 떨렸다.

"4월 26일? 그것은 바로 오스만 대로에서 우리가 만난 날입니다."

"네, 바로 며느님이 집에서 떠나가신 날이죠."

마레스칼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르세유행 급행 열차에서 세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브레야크가 놀라 물었다.

총경은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모든 일은 제때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4월 26일, 그 급행열차 5호차에는 네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첫 칸에는 영국인 미스 베이크필드와 가짜 탐험가로 둔갑한 리메지 남작이 타고 있었고요. 앞칸에는 누이쉬르센에 사는 루보 형제 두 명이 탔습니다."

네 번째 차량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처음에는 국제 수사 위원 한 명과 한 청년, 한 소녀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자정처럼 어둠이 내려앉은 차실 안에서 불을 끄고 차양을 내렸다. 잠자는 여행자들처럼 보였고, 그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지 못했다. 국제 수사 위원 자신조차도 말이다.

그 위원, 바로 나였다. 나는 베이크필드 양을 미행하고 있었다.

청년은 윌리엄 앵시벨이었다. 그는 증권 브로커이자 도둑질에 일가견이 있는 자였다. 이 집에 자주 드나들던 그는 동반자와 함께 몰래 떠나고 있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브레자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레리는 모든 의심을 초월한 인물입니다."

"동반자가 미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레스칼이 반박했다.

마레스칼이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라로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반시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격렬하고도 돌연한 비극이 일어났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차 네에서 차 다섯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완전한 위장 상태였다. 회색 긴 가운에 모자,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었다.

차 다섯 뒤쪽에서 리메지 남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미스 베이크필드를 살해하고 약탈했다.

그리고 남작은 동조자들에게 자신을 묶게 했다. 두 동조자는 차 앞으로 달려가 두 형제를 죽이고 약탈했다.

돌아오는 길에 검표원과 마주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그들은 도망쳤고, 검표원은 리메지 남작이 피해자처럼 묶여 있고, 역시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다. 두 번째 장면은 흙더미와 숲을 통해 도망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보가 울렸다. 나는 정보를 수집했다.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결과적으로 두 도망자는 포위되었다. 그중 한 명이 탈출했고, 다른 한 명이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경고를 받았다. 나는 그가 숨어 있던 어둠 속으로 그를 향해 갔다. 그는 여성이었다.

브레자크는 점점 더 뒤로 물러서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그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미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쳤다고요!"

마레스칼은 흔들림 없이 계속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가짜 남작, 제 잘못으로 경계심을 늦췄던 그 인간 덕분에, 감금된 여자는 탈출해 기욤 앙시벨과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자취를 몬테카를로에서 다시 잡았죠. 하지만 저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헛되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브레자크 씨, 당신의 조사가 더 성공적이진 않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인 아름다운 아가씨의 은신처를 찾아내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 덕분에 저는 생마리 수도원에 몇 시간 앞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연인의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고 있던 테라스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연인은 바뀌었습니다. 기욤 앙시벨이 아니라, 리메지 남작, 즉 세 번째 공범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자크는 그 기괴한 비난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질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냉혹할 정도로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의 직감이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었고, 아를리가 방금 알려준 미지의 구원자에 대한 반쯤의 고백과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려 하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굳어진 자세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 말들보다, 그녀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직 불가능한 개입을 바라고 있는 걸까?

"그럼 어쨌다는 거요?" 브레자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대답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또 한 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 이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내가 복수했지. 그야말로 완벽한 복수야, 브레야크! 기억나나? 여섯 달 전만 해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종자 취급하며 쫓아냈잖아. 발로 차버릴 뻔할 정도였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애를 손아귀에 넣었어. 끝났지."

그가 주먹을 쥐며 자물쇠를 잠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이 너무도 정확했고, 오를리에에 대한 그의 끔찍할 정도로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있어 브레야크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니요, 아니에요. 마레스칼 씨,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아이를 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생테마리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평화를 제안했지. 하지만 그녀가 거절했어. 그녀 탓이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브레야크가 다가와 간청하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자, 마레스칼은 그의 빌음을 단호하게 끊어 버렸다.

"쓸 데 없어! 그녀를 위해 애써준 것도 헛수고고, 당신을 위해 해준 것도 헛수고! … 그녀가 나를 거절했어. 그러니 다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것이 마땅한 보복이지.

그녀는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동시에 그녀가 나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대가도 치르는 셈이지. 그녀가 벌을 받아야 해. 내가 그녀를 벌함으로써 복수를 하는 거야. 그녀를 위해 애써준 것도 헛수고고!"

그는 발로 바닥을 구르거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저주를 외쳤다. 거친 본능에 따라 그는 오를리에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브레자크, 저 여자를 좀 봐라. 내가 용서를 구했다는 걸 그 애가 기억이나 하고 있나? 네가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그 애가 자신을 낮추나? 그 침묵과, 억누른 듯한 완고함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 애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브레자크! 그래, 그 애는 믿고 있다. 내가 세 번이나 그 애를 집어삼키려다 놓쳐준 그 자가, 이번에도 네 번째로 그 애를 구해줄 거라고."

오를리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르스카르는 갑자기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경찰청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보세요, 경찰청입니까? 마르스칼 씨 명의로 필리프 씨랑 연결해 주시오."

그리고는 다시 젊은이에게로 돌아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수화기를 그녀의 귀에 대었다.

오를리에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화는 짧았다.

"필리프?"

"마레스칼?"

"그래. 들어봐. 내 곁에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말해."

"오늘 정오, 너는 어디에 있었니?"

"말대로 데포에 있었어. 라봉스와 토니가 너의 명으로 데려온 그 남자를 받았지."

"우리가 그를 잡은 곳은?"

"브레자크 맞은편, 쿠르셀 거리에 있는 그의 아파트였어."

"그를 구류했니?"

"내 눈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리메지 남작."

"무슨 죄명으로?"

"급행열차 사건에서 도둑 무리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오늘 그 남자를 다시 봤니?"

"응, 방금 전. 인체측량부서에서. 아직 거기 있어."

"고마워, 필리프. 내가 묻고 싶었던 거야. 안녕."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외쳤다.

"헛! 내 아름다운 오를리, 구원자가 어찌 되었나 보게. 감옥에 갇혔어! 완전히 봉쇄됐다고!"

그녀가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가 알았다고! 그럼에도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웃기군. 그는 경찰과 사법부 전체를 등에 업고 있어. 그는 찢어진 옷감, 헝겊, 짚조각, 비누방울에 불과한데도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니! 감옥 벽이 무너져 내릴 거야. 간수들이 직접 차를 몰고 올 거야. 그가 나타날 거야. 굴뚝으로 들어오거나, 천장 너머로 떨어질지도 몰라!"

그는 격분한 나머지, 무표정하고 딴생각에 잠긴 듯한 그 젊은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할 수 없어요, 오를레알리! 희망 따위 다 끝났어요! 구원자도 이미 끝장났죠. 바론은 감옥에 갇혔고요. 한 시간 뒤엔 당신의 차례예요, 예쁜 여자. 머리를 깎고, 생라자르 감옥으로, 중범죄 재판으로! 아이고, 못된 여자. 당신의 초록 눈 때문에 충분히 울었으니, 이제 그 눈 때문에…"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뒤에서 브레야크가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그의 목을 꽉 잡았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마르스카가 처음 소녀의 어깨를 건넜을 때부터, 그는 이미 그 행동에 격분하며 마르스카 쪽으로 몸을 밀고 들어와 있었다. 충동에 밀려 마르스카는 몸을 굽혔고, 두 남자는 마루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적대적인 라이벌 의식이 격화된 두 사람은 모두 분노에 차 있었다. 마레스칼이 더 힘센 데다 힘이 세었지만, 브레야크는 격분하여 일어난 힘으로 인해 승패는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오로리는 공포에 떨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 적이었다. 둘 다 그녀에게 혐오스러웠다.

마르스칼은 그간의 몸부림을 떨쳐내고, 손가락을 풀어주자마자 곧장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다. 숨 막히던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는 지퍼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그의 팔을 꺾어 잡았다. 마르스칼은 간신히 시계열에 매달린 호루라기만 움켜쥘 수 있었다. 날카로운 비명이 방 안을 가르자, 브레자크는 다시금 상대의 목을 조르려 몸무게를 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실루엣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 사이로 돌진했다.

순식간에 마르스칼은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브레자크의 눈앞 십 센티미터 지점에, 권총의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다.

"잘했다, 소비누!" 마르스칼이 외쳤다. "이 일은 제대로 계산해 두마, 친구."

그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비겁하게도 브레자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미친놈! 도둑놈!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알았냐? 먼저 사표를 써라. 당장 말이다. 장관이 그렇게 요구했다. 내 손에 이미 사표가 쥐여 있다. 그냥 서명하기만 하면 돼."

그가 종이를 꺼내 보였다.

"사표와 오를리의 자백서야. 내가 미리 써 놨어. 오를리, 너도 서명해. 자, 읽어 봐. '저는 지난달 26일 급행열차 살해 사건에 가담했고, 루보 형제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네 이야기가 모두 요약되어 있어. 읽을 필요도 없어. 서명해! 시간 아깝지 않아!"

그는 펜을 잉크에 적셔 가만히 강제로 그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으려 고집을 부렸다.

조용히 그녀는 가니마르의 손을 뿌리치고, 펜 홀더를 집어 들었다. 마레스칼의 뜻대로, 읽을 생각도 없이 서명했다.

글씨가 완성되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 다행이야." 그가 기쁨에 찬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끝났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 잘했어, 오를리. 네가 상황을 잘 파악했지. 브레자크, 너는 어때?"

브레자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거절했다.

"뭐라고? 거절한다니? 계속 직책에 남아 있으시단 말인가? 승진이라도 바라나? 죄인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라니? 하하, 그건 참으로 유쾌하군. 내가 마레스칼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친구, 너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스캔들이 네 자리를 뺏어갈 줄 모른단 말인가? 내일 신문에서 그 소녀의 체포 기사를 읽으면 너는 어쩔 수 없이…"

브레자크의 손이 건네받은 사직서에 쥐어졌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망설였다.

오로리가 말했다.

"서명하세요, 선생님."

그는 서명했다.

마레스칼이 두 장의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다 됐군. 자백서와 사임서. 상관이 물러나니 자리가 하나 생겼고, 그 자리는 내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감옥에 가게 되겠지. 나를 괴롭히던 사랑을 조금씩은 낫게 해줄 테니까."

그는 냉소적으로,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드러내듯 그렇게 말하더니, 잔인한 웃음을 띠며 덧붙였다.

"그게 전부는 아니야, 브레야크. 나는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가겠지."

브레야크는 쓴웃음을 지었다.

"더 깊이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필요하신 일인가요?"

"더 깊게, 브레야크. 그 아이의 죄악은 완벽해.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할까?"

그는 브레야크의 눈속으로 파고들었다. 브레야크는 속삭이듯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만약 모른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서명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태도로 말하는 걸 용납하지도 않았을 거야. 당신의 체념은 곧 자백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라고 부르는 것도, 브레야크, 네가 겁먹었기 때문이지."

상대방은 항변했다.

"전 겁내지 않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가 순간의 광기에 빠져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도 말이야, 브레야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는 말이야." 마레스칼의 목소리는 먹먹하게 울렸다. "과거가 있어. 오늘 밤의 범죄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하지만 옛날 그 일, 브레야크?"

"옛날 그 일?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마레스칼은 주먹을 내리쳤다. 그에게 있어 최후의 논거였으며, 언제나 격분과 함께 터져 나오는 행동이었다.

"설명?" 내가 묻는 게 맞지. 오히려 내가 설명을 요구해야 해. 최근 일요일 아침, 센 강변에서 벌어진 어떤 원정에 대해 뭐라고 해? 그리고 버려진 빌라 앞에서 감시하던 네 태세는? 그리고 '주머니' 남자를 쫓던 건 또 뭐야?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해줄까? 그 빌라는 네 며느리가 살해한 두 형제의 집이었지.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내가 수배하고 있는 조도라는 인물이라고. 바로 그 두 형제의 파트너, 조도. 내가 예전에 그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자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나 잘 연결되어 있지. 모든 음모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인다고?

브레자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보 같은 추측일 뿐이지."

"가설이지. 예전 내가 이곳에 올 때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그런 직감들이야. 그때는 너의 행동과 말속에 숨겨진 당황스러움, 망설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좋은 사냥개처럼 맡아냈을 뿐이었지.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가설들은 하나둘 확인되고 있어. 이제 우리는 그걸 확실한 증거로 바꿔놓을 거야, 브레야크. 너와 내가 함께 말이야. 그리고 너는 그걸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네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하게 될 자백이 바로 그것이지. 지금, 바로 여기서."

그는 벽난로 위에 올려놓아 왔던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상자를 뜯어냈다. 안에는 병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짚으로 만든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마레스칼은 그중 하나를 꺼내 브레야크 앞에 꽂아 세웠다.

"자, 동무. 이 병을 알아보는군, 그렇지? 네가 조도 씨에게서 훔쳐간 그 병이지.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빼앗았고, 또 다른 사람이 네 눈앞에서 그걸 내게서 훔쳐갔어. 바로 그 '다른 사람'은 바로 리메지 남작이었지. 내가 방금 전에 그에게서 이걸 찾아냈단 말이야. 어때, 내 기분이 어떤지 알겠지? 이 병은 정말 보물이나 다름없어. 여기 있단다, 브레야크. 라벨도 붙어 있고, '어떤 물'의 성분표도 적혀 있어… 바로 '요벤스의 물'이지. 여기 있단다, 브레야크! 리메지가 이 병에 마개를 하고 붉은 밀랍으로 봉했어. 잘 보게… 안쪽에 종이 한 뭉치가 보이는군. 네가 조도 씨에게서 되찾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었겠지. 아마도 자백서 같

은 것이겠지… 네가 쓴, 너를 몰락시킬 수 있는 증거 자료 말이지… 아, 불쌍한 브레야크여!”

그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밀랍을 뜯어내고 마개를 뽑는 손놀림은 빨랐지만, 입에서는 잡담과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마레스칼! 급행열차 살인범 체포! 브레자크의 과거! 수사 과정과 공판에서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었는지! 소비누, 작은 사슬 준비됐나? 라봉과 토니를 불러라… 아, 승리다. 완벽한 승리다.”

그는 병을 뒤집었다.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펼쳤다.

열정에 휩싸여 질주하는 선수처럼, 그는 목표 지점을 지나쳐 날아가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읽기 시작했다.

“마레스칼은 가짜다.”

제10장

그 순간, 상식 밖의 말이 남긴 충격이 고요하게 퍼져나갔다. 마르스칼은 명치 한 방에 맞고 쓰러질 것 같은 기색이었다. 브레자크도 소비누의 권총을 향해 있었지만, 당혹감에 빠진 표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다. 신경질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지만, 무거운 방 안에서는 오히려 경쾌하게 울렸다. 화자는 오렐리였다. 형사의 처참한 얼굴을 보고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인 듯했다. 특히 그 우스꽝스러운 말이, 바로 그 당사자 자신이 큰 소리로 내뱉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눈물 날 만큼 웃겼다.

"마르스칼은 바보야!"

마레스칼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어찌하여 기쁨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는 그녀의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격렬하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적의 발톱에 갇힌 새처럼.

'상황이 바뀐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이 달라진 거지?'

그는 분명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그 웃음과,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묘하게 차분하게 행동해 온 그녀의 태도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그녀를 무릎 꿇게 해야 할 사건들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도, 그녀는 굳건한 버팀목을 하나 간직하고 있었다. 그 버팀목이 흔들림없다고 믿을 만큼 단단한 것이었다.

전체 상황이 매우 불쾌하게 다가왔고, 이는 교묘하게 설치된 함정이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집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더군다나 그는 이미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브레야크가 움직인다면, 그건 그의 탓이야. 이마에 총알을 박아.” 그는 소뱅누에게 명령했다.

그는 문까지 걸어 나가 문을 열었다.

"아래층에서는 이상한 일 없었나?"

"사장님?"

그는 계단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토니? 라봉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나?"

"아무도 없어요, 사장님. 그런데 위층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아니야…"

더욱 당황한 그는 서둘러 서재로 돌아갔다. 브레야크와 소비누, 그리고 젊은 여자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환상 같은 광경이 그의 다리를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문턱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소비누의 입술 사이에는 켜지 않은 담배가 끼어 있었고, 그는 마치 불을 빌려달라는 사람처럼 뤼팽을 바라보고 있었다.

끔찍한 환상이었다. 현실과 너무도 충돌해서, 마르스카르는 처음엔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소비누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불을 달라고 조르는 것, 그게 전부였다. 더 깊게 파고들 이유가 뭐란 말인가?

하지만 조금씩 소비누의 얼굴이 변했다.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고, 그 안에는 교활함과 함께 무례할 정도로 친근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르스카르는 그 환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점점 소비누의 모습이 달라졌다. 종속자 소비누가, 마르스카르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존재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형사의 부하가 아니었다. 오히려 적진으로 넘어간 존재처럼 보였다.

소비누는 곧…

만약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마르스칼은 이런 끔찍한 사실을 직면하며 더 격렬하게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급행열차의 남자'라고 부르는 인물과 관련된 일이라면, 가장 환상적이고 기이한 사건들조차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졌다.

마르스칼은 마음속 깊이서조차 저주할 수 없는 자백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정말로 혐오스러운 현실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명백한 진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는 어떻게 알 수 없었겠는가? 사흘 전 장관이 자신에게 강력히 추천했던 뛰어난 요원 소비누가, 바로 아침에 체포해 현재 상테 형무소의 인체측량실로 보낸 그 악마 같은 인물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토니!" 파티스르가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토니! 라봉스! 어서 올라오시오, 이 망할 년들아!"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고, 발버둥치며 구타를 했다. 계단 난간 부딪히며 유리창에 부딪힌 벌처럼 몸부림쳤다.

그의 부하들이 급히 따라왔다. 그는 말더듬듯 말했다.

"소비누… 소비누가 누군지 아시오? 오늘 아침 그 자… 맞은편에 있던 자, 탈옥해서 변장한 놈이죠."

토니와 라봉스는 경악한 듯 굳어 있었다.

상관은 정신이 나간 듯했다. 그를 방으로 밀어넣고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손 들어! 도적아! 손 들어!" "라봉스, 너도 저놈을 조준해."

Sauvinoux는 주저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작은 손거울을 올려놓고, 신중하게 분장을 지워나갔다. 몇 분 전 Brégeac을 협박하던 브라우닝 권총도 그 옆에 내려놓은 상태였다.

Marescal이 앞으로 뛰어나가 총을 빼앗고는, 팔을 쭉 뻗으며 곧장 뒤로 물러섰다.

"손 들어! 안 그러면 쏴!"

"들었지, 놈?"

‘놈’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삼 미터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브라우닝을 바라보며, 그는 뺨에 곱슬머리처럼 자라난 수염을 뽑거나, 유난히 두꺼운 눈썹을 다듬고 있었다.

“쏘겠어! 정말 쏴!”

“들었냐, 개자식!”

“일곱까지 세면 바로 쏴!”

“일… 이… 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Rodolphe.” Sauvinoux가 속삭였다.

로돌프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두 주먹으로 무작정 벽난로와 그림을 향해 쏘아댔다. 어리석게도, 피 냄새에 취한 살인자처럼, 질식하는 시체에 칼을 연타로 꽂듯 총알을 퍼부었다.

브레야크는 총격에 몸을 웅크렸다. 오레리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구원자가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자, 그냥 내버려두자, 그것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거의 미소까지 지었다.

소비누는 기름기가 밴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빨간 분을 지워냈다. 라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총성 여섯 발이 터졌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유리가 깨지고 대리석 조각이 날리며 그림이 찢어졌다. 방은 무장한 습격을 받은 듯 엉망이 되었다.

마르스칼은 광기 어린 발작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추스르고 두 형사에게 말했다.

"복도에서 기다려라. 부르면 바로 들어오너라."

"보십시오, 상사." 라봉스가 끼어들었다. "소비누는 이제 더 이상 소비누가 아닙니다. 이 자를 잡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전 그자를 고용한 이후로 저는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한 번에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대로 해." 마르스칼이 명령했다. 삼 대 일의 비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두 형사를 밀어내고 문에 잠금을 걸었다.

소비누가 변신을 마쳤다. 재킷을 뒤집어쓰고 넥타이 매듭을 다듬은 뒤, 그는 일어섰다.

순간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방금 전의 초췌하고 안쓰러운 작은 경찰관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단단한 체격의 젊은이가 등장했다. 잘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우아하고 청초했다. 마레스칼은 그 남자를 보며 자신의 상습적인 괴롭힘꾼을 떠올렸다.

"안녕하세요, 미스." 라울이 말했다. "자기 소개를 해도 될까요? 리메지 남작. 탐험가이자, 일주일 전부터 경찰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물었다.

"저를 바로 알아보셨죠? 예, 방금 로비에서 제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절대 침묵을 지켜주세요. 대신, 미스, 또 한번 웃어주십시오. 방금 전의 그 웃음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지요."

그는 브레자크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마레스칼을 돌아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친구. 어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지금도 네 머릿속은 여전히 의문투성이겠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소비누의 자리를 꿰찼는지 말이야. 네가 여전히 '소비누'라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거지. 천주여, 세상에 소비누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그 남자는 경찰계에서 꽤 큰 줄기라는 거야! 하지만 고마운 로돌프, 소비누는 존재하지 않았어. 소비누는 신화에 불과해. 네 장관에게 그 인물의 장점을 과장해서 알린 가짜 인물이고, 그 장관이 아내를 통해 네게 그와 함께 일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 나는 네 곁에 있었고, 즉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었어. 나는 네게 리메지 남작의 집을 알려주었고,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 자수하는 척하며

잡혔지. 그리고 내가 숨겨뒀던 그 놀라운 병을 찾아냈어. 그 병에는 이런 근본적인 진리가 적혀 있었지. '마레스카는 바보다.'"

Commissaire는 목을 조르며 라울을 잡아끌려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누른 것이다. 그리고 라울이 다시 말을 시작했다. 장난기 어린 어조였다. 그 어조는 오레리를 안전지대로 지켜주었고, 마레스칼을 채찍질하듯 내리쳤다.

"로돌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지? 내가 감옥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리메지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소비누라는 이름으로 네 옆에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한 거지? 아이 같아! 탐정 실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로돌프, 내 친구, 이거 아주 간단해."

"내 집에 침입한 건 내가 미리 준비한 거야. 리메지 남작을 대신할 사람을 구했지. 남작과 외모가 비슷하고, 돈도 후하게 받았어. 그에게 오늘 있을 모든 불운을 감수하라고 명했어."

"내가 키우는 오래된 하녀가 너를 인도했지. 너는 황소처럼 그 가짜 남작에게 돌진했고, 난 소비누가 되어 즉시 그의 머리를 수건으로 감쌌어. 그리고 감옥행!"

"결과야 명확해. 무서운 리메시가 사라졌으니, 넌 완전히 안심하고 마들렌을 체포하러 왔지. 만약 내가 자유로웠다면, 넌 그런 짓을 감히 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반드시 끝내야 했어. 알겠니, 로돌프? 그건 반드시 끝내야만 했지. 우리 네 사람이 모인 이 자리가 필요했어.

모든 걸 정리해 둬야 나중에 다시 들춰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정리됐지, 그렇지? 숨을 크게 들이마셔 봐. 악몽에서 해방된 기분이야. 게다가 넌, 십 분 뒤면 마들렌과 내가 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생각이라는 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거야."

비웃는 듯한 그 말이 얼마나 짜증 나게 들렸든, 마레스칼은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상대방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태연한 손짓으로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청으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경찰청? 필립 씨를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필립?… 응?… 어, 벌써? 실수를 알아챈 거야?… 응, 나도 알아.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말이야… 들어 봐. 너와 함께 자전거를 탄 형사 두 명을 데려와. 쟤들 좀 믿을 수 있거든… 그리고 브레자크 집으로 서둘러 와. 전화기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알았지? 시간 아끼지 말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라울을 바라보았다.

"조금 일찍 자백했군, 친구." 그가 말했다. 비로소 태도를 바꾸고서는 자신 있게 농담을 던졌다. 공격은 실패했고, 이제 네가 당할 응징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복도에는 라봉과 토니가 있고, 여기에는 마레스칼과 브레야크가 있다. 브레야크는 너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만약 오를리에를 구출하려는 기분이 들면, 이 첫 번째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무 분 뒤에는 경찰청의 전문가들이 셋이나 올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라울은 진지한 표정으로 책상 틈새에 성냥개비를 하나씩 박고 있었다. 그는 일곱 개의 성냥개비를 줄지어 세우고, 하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음, 일대 칠." 그가 말했다. "조금 빈약한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셈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전화기 쪽으로 다가갔다.

"괜찮겠나?"

마레스칼은 그를 내버려두면서도 눈은 떼지 않았다. 라울이 차례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엘리제 22.23번입니다. 여보시죠… 대통령 각하? 대통령 각하, 마레스칼 씨에게 보병 사냥꾼 대대를 긴급히 보내주십시오."

분노한 마레스칼이 수화기를 빼앗았다.

"이런 장난은 이제 그만두게. 넌 여기까지 와서 농담을 하러 온 게 아니겠지. 도대체 무슨 목적이야? 뭘 원한다는 거야?"

라울은 안타까운 듯 손을 저었다.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이럴 때야말로 한바탕 웃어볼 기회 아닙니까."

"제발 말하게 해," 형사가 재촉했다.

오로리는 간청했다.

"제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경찰청의 놈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야기합시다."

그 목소리는 더 진지해졌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원하시니, 마레스칼 씨. 어차피 말하는 것도 행동의 하나입니다. 어떤 말들은 단단한 현실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으니까요. 제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비밀이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제 승리를 확고한 토대 위에 올릴 수 있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미스님은 절대 무죄라는 사실을." 라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호? 살인자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비웃듯 말했다.

"당신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인 건가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

"거짓말!"

진실이다. 마레스칼, 이 일 전체를 통틀어 넌 잘못됐어. 몬테카를로에서 넌 내게 이렇게 말했지. "그 소녀를 거의 알지 못한다"고.

보쿠르 역에서 내가 그녀를 구했을 때,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만 본 적 있었다. 오후에 오스만 대로에 있는 차 모임에서 말이다. 우리가 몇 차례 마주친 건 생마리에서였다.

하지만 그 만남 동안 그녀는 급행열차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그녀를 질문한 적이 없다. 진실은 그녀와는 별개로, 나의 집요한 노력과, 또 무엇보다도 그녀가 순백의 얼굴을 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직관적 확신 덕분에 밝혀졌다. 그 확신은 논리처럼 단단했다.

마레스칼은 어깨를 으쓱였지만 항의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그 기이한 인물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했다.

그는 시계를 보고 미소 지었다. 필립과 검찰청의 '놈들'이 곧 도착할 참이었다.

브레자크는 이해하지 못한 채 라울을 바라보았다. 오레리는 갑자기 불안해져 라울의 시선을 떼지 못했다.

라울은 말을 시작했다. 무의식중에 마레스칼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지난 4월 26일, 마르세유행 급행 열차 5호차는 네 명만 탔습니다. 영국인 여성, 베이크필드 미스……"

그러나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요,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근원, 즉 사실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두 시대를 모두 짚어내야 하죠. 저는 일부 세부 사항들을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들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략 열여덟 년 전입니다. 마레스칼 씨, 이 숫자를 다시 말하죠. 열여덟 년. 즉, 그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시점이죠."

"열여덟 년 전, 셰르부르에서 네 명의 젊은이가 꽤 규칙적으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름은 브레자크, 자크 앙시벨, 루보, 그리고 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명은 모두 법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번째 인물인 브레자크의 행정직 자리도, 그가 그런 사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브레자크는 결혼해 파리로 이사 갔습니다."

그는 과부인 조제핀 발사모와 결혼했다. 조제핀은 작은 딸 오를레르를 두고 있었다. 장인인 에티엔 드아스토는 지방의 괴짜 노인이었다. 그는 발명가이자 탐구자였고, 늘 새로운 것을 쫓아다녔다. 그는 몇 번이나 큰 부를 손에 넣거나, 그 부를 안겨주는 거대한 비밀을 찾아낼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딸이 브레자크와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얼마 전, 그 기적 같은 비밀 중 하나를 그가 마침내 찾아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적어도 그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브레자크는 모른 채로 말이다. 그는 그 비밀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딸과 작은 오를레르를 하루는 불러들였다.

이 비밀스러운 여행은 불행히도 브레자크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게 알게 된 게 아니었다. 거의 즉시 알아챈 것이다. 브레자크는 아내를 심문했다.

아내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핵심은 말하지 않았다. 방문한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한 일부 자백을 통해, 에티엔 드아스토가 어딘가에 보물을 묻어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에 묻어두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그걸 쓰지 않는 걸까?

부부 생활은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브레자크는 날이 갈수록 성질을 부렸다. 그는 장인을 귀찮게 했고, 아이에게 질문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괴롭히고 협박했다. 결국 그는 점점 더 큰 불안과 초조 속에 살게 되었다.

그때, 연이 두 사건이 그의 격분을 극도로 몰아세웠다.

아내가 폐렴으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스테우의 장인이 중병에 걸려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브레자크는 공포에 질렸다. 에티엔 드 아스테우가 입을 다물면 그 비밀은 어떻게 될까?

만약 에티엔 드 아스테우가 그 보물을 손녀 오를리에에게 '성년 선물'로 물려준다면 어떨까? (그 표현은 편지 한 통에 나온다.)

그렇다면 브레자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가 상상하는 그 거대한 부가 모두 자신의 손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인가?

어쨌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런데 운명적인 우연이 그에게 그 방법을 안겨준다. 그는 도둑들의 정체를 쫓는 사건을 맡게 되었고, 샤르부르의 옛 동무들이었던 조도, 루보, 앙시벨이라는 세 사람을 손에 넣는다. 브레자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는 말을 한다. 그리고 곧바로 거래가 성사된다.

세 무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즉각적인 석방이었다. 그들은 프로방스의 어느 마을로 달아나, 죽어가는 노인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의로든 강제로든 빼내려 한다.

하지만 음모는 실패로 끝난다. 한밤중에 세 해적에게 습격한 노인은 질문을 받고, 구타당하다 아무 말 없이 죽고 만다. 세 살인자는 도망친다. 브레자크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안겨주지 못한 범죄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라울 드 리메지는 잠시 멈춰 서서 브레야크를 바라보았다. 브레야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터무니없는 비난에 대해 항변하기를 거부하는 걸까, 아니면 자백하려는 걸까. 그는 마치 모든 일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듯했다. 비록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끔찍했더라도, 현재의 절망감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오로리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레스칼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리메지가 자신 앞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고, 발과 손을 묶은 채 자신의 옛 적수 브레야크를 넘겨준 것에 대해 그는 분명히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라울이 말을 이었다.

결국 불필요한 살인이었지만, 그 여파는 justice가 조금도 알지 못한 채로 가혹하게 닥쳐왔다.

먼저 공범 중 한 명인 자크 앙시벨이 공포에 질려 미국으로 달아났다. 떠나기 전 그는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아내는 브레자크를 찾아갔고, 즉각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문서를 쓰게 했다. 브레자크는 에티엔 다스토에게 저지른 살인의 전 책임을 자

신이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세 명의 범인을 무죄로 만드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브레자크는 겁에 질려 어리석게도 서명했다.

그 문서는 조도에게 넘겨졌고, 조도와 루보가 에티엔 다스토의 베개 밑에서 찾아낸 병에 넣어 숨겼다. 언제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브레자크를 손아귀에 넣었고, 언제든 그를 협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잡고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영리한 자들이라, 사소한 협박으로 힘을 소모하기보다는 브레자크가 행정부에서 승진할 기회를 주는 편을 택했다.

사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브레자크가 무모하게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 보물을 찾는 일이다.

하지만 브레자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그 풍경을 목격한 소녀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침묵의 명령이 단단히 박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 브레자크가 감옥처럼 만든 수녀원에서 그녀가 나올 때, 그때가 되면 행동에 나선다.

그런데 그녀는 수녀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틀 전, 정확히 두 년 전 오늘, 브레야크는 조도와 루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보물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소녀를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브레야크에게 그것은 천둥과 같은 타격이었다. 12년 동안 그는 이 사건이 완전히 묻혔기를 바랐다. 사실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 사건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범죄와도 같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이런 추잡한 일들이 다시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옛 동무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조도가 끝없이 그를 쫓아다녔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복종해야 했다. 즉, 계모를 괴롭히고 그녀에게 말을 꺼내야 했다. 그는 또다시 몰아치는 호기심과 부에 대한 욕망에 밀려 그 결심을 굳혔다.

그 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심문과 다툼, 협박이 이어졌다. 불쌍한 여인은 생각과 기억까지 추적당했다. 어린 시절, 어둡고 병적인 이미지와 인상들로 가득한 방을 닫아걸었던 그 문 앞에, 두드리기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즐기고 싶었다. 때로는 즐기기도 했다. 친구들을 사귀고,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면, 매순간이 순교였다.

그 고통에는 정말로 숨 막힐 만큼 끔찍한 것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말하기조차 꺼릴 정도다. 브레자크에 대한 사랑 말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자. 마레스칼, 너도 나만큼이나 이 일을 잘 알고 있지. 네가 오를리 드 아스토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와 브레자크 사이에는 두 라이벌의 잔인한 증오가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게 된다. 브레야크가 억지로 참아가며 견뎌야 했던 Guillaume이 그녀를 독려한다. Guillaume은 쉐르부르의 마지막 동창의 아들이다.

Ancivel 과부는 그를 미리 준비해 둔 셈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서 매우 능숙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의심은 사지 않았다.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며, 그는 Aurélie d'Asteux가 사랑에 빠지면 선택한 약혼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받기를 꿈꿨다. 그는 자신의 도움을 제안했다. 그는 그 소녀를 남쪽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일이 그를 부른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4월 26일이 왔다.

"마레스칼, 그날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의 상황과 사건의 전개를 잘 기억해라.

첫째, 감옥에서 도망친 소녀 말이다. 곧 찾아올 자유를 기뻐한 그녀는 마지막 날, 오스만 대로에 있는 제과점에서 장인과의 차를 마시는 데 동의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너를 만나게 되지. 스캔들이 일고, 브레자크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다시 탈출해 기차역에서 기욤 앙시벨과 합류한다.

기욤은 이 기회에 두 가지 일을 추진한다. 오를리에를 유혹하는 한편, 명성 높은 베이크필드 미스의 지시에 따라 니스에서 절도를 저지르려는 것이다. 그는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불운한 영국인은 본인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드디어 요도 형제와 루보 형제 두 명이 남았다. 이 세 명은 아주 교묘하게 움직였다. 기욤과 그의 어머니는 이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과 경쟁자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이 세 도둑은 기욤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계획이 세워지는지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4월 26일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들은 오를리를 납치해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입을 열게 만들 작정이다. 명백하지 않은가?

"이제 좌석 배치도 설명하지. 다섯 번째 차야. 맨 뒤에는 베이크필드 양과 리메지 남작이 있고, 맨 앞에는 오를리와 기욤 앙시벨이 앉아 있어. 알겠지, 마르스칼? 차 앞자리에 앉은 건 오를리와 기욤이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루보 형제들이 아니야. 루보 형제와 조도는 다른 곳에 있어. 네 차인 네 번째 차에 숨어 있는 거야. 등불의 커튼으로 잘 가려져 있지. 이해됐어?"

"네." 마르스칼이 낮게 대답했다.

"그럼 불행하진 않군."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두 시간이 흘렀다. 라로슈 역에 들렀다. 다시 출발할 때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번째 객차에 타고 있던 세 남자, 즉 조도트와 루보 형제 두 명이 어두운 객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회색 가운을 입었으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섯 번째 객차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왼쪽에서 두 명의 잠자는 실루엣이 보였다. 한 남자와, 금발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한 여자였다. 조도트와 형이 재빨리 달려들었고, 다른 한 명은 경계역을 섰다. 남작은 쓰러뜨려 묶여 버렸다. 영국 여자는 저항했다. 조도트가 그녀의 목을 잡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

그 여자가 오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같은 금빛 머리결을 가진 다른 여자였다.

그때 동생이 돌아와 두 동료를 데리고, 실제로 기욤과 오렐리가 있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욤은 소음

을 들었다. 그는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전투의 결말은 순식간에 나왔다. 총성 두 번. 두 형제는 쓰러졌고, 조도트는 도망쳤다.

"물론이지, 마레스칼. 우리가 처음부터 저지른 실수, 법조계가 저지른 실수, 모두의 실수는 겉보기만 보고 사건을 판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꽤 합리적이었지. '살인이 발생하면, 죽은 자는 피해자이고, 도망간 자는 범인이다'라는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가해자가 죽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은 쪽이 무사히 도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왜 기욤은 즉시 도주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을까? 기욤이 기다린다면, 그는 완전히 몰락할 거야.

'도둑 길리엄'은 자신의 일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조금만 조사를 해도, 그의 회색지대에 섞인 삶 속의 이면들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순히 받아들일까? 너무 바보 같은 일이다. 해결책이 손끝에 닿아 있는데도 말이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동료를 밀쳐내고, 이 모험이 불러올 파장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녀에게나 브레자크에게나 모두 스캔들이 될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본 것, 그리고 두 시체가 있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terror에 질려, 뇌는 혼란에 빠진 채 움직일 줄 몰랐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내맡겨졌다.

길리엄은 그녀에게 강제로 막내 형제의 가운과 가면을 입혔다. 자신도 똑같이 차려입고, 그녀를 끌고 나가, 뒤처지는 것이 없도록 짐을 챙겼다. 그리고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역무원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곧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한 시간 뒤, 숲속을 뒤쫓는 끔찍한 추격전 끝에 오를리는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그리고 그는 용서할 줄 모르는 적인 마레스칼 앞에 끌려갔다. 오를리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내가 등장하는 것이다.

상황의 중대함이나, 저주받은 밤의 기억에 눈물 흘리는 젊은이의 고통스러운 모습 같은 것은 아무것도 라울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그는 마치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고개를 들고 문까지 걸어갔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개입이 즉각적인 폭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단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내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지."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제때 잘 왔어. 마레스칼, 너도 분명 기쁠 거야. 이 무리 중에서, 바로 이 지저분한 악당들과 바보들 틈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미소녀의 초록 눈동자를 보고 바로 무고함을 지키는 정의의 편에 서는 정직한 남자를 보게 될 테니까."

"드디어 단단한 의지와, 예리한 눈빛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과, 관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리메지 남작이야. 그가 나타

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 사건은 착한 아이들처럼 잘 굴고, 드라마는 웃음과 좋은 기분 속에 끝이 나지."

그는 잠시 산책하듯 거닐다가, 다시 소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왜 울고 있어요, 오를리? 모든 추잡한 일은 끝났잖아요. 마르스칼 자신도 당신의 무죄를 인정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오를리. 저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습관인 거죠. 그리고 저는 절대 등장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날 밤 보셨잖아요. 마르스칼이 당신을 감금하자 제가 구해냈고, 이틀 뒤 니스에서는 조도가, 몬테카를로와 생트마리에서는 또 다시 마르스칼이 당신을 괴롭히려다 제가 구해냈죠. 방금 전에도 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두 놈이 오기 전에, 보병들이 이 집을 포위하기 전에 조용히 떠나는 것만이 남았어요. 로돌프, 맞죠? 당신도 방해하지 않죠. 미망인이 자유로워지는 것을요… 맞죠? 당신은 정의와 예의에 부합하는 이 결말에 기뻐하시죠? 오를리, 가시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승리가 아직 멀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턱에서 마레스칼이 무자비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브레자크도 그에게로 달려가 합류했다. 두 남자는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경쟁자를 막아내기 위해 한패가 되었다.

제11장

라울이 다가왔다. 브레야크를 무시한 채, 그는 평온한 어조로 위원에게 말했다.

"인생이 복잡해 보이는 건, 우리가 그 삶을 조각조각 난 파편이나 뜻밖의 섬광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급행열차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소설의 연재물처럼 뒤엉켜 있죠. 사실들이 무작위로, 우습게도 튀어나옵니다. 마치 놓아둔 순서대로 터지지 않는 폭죽처럼요.

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그 사실들을 제자리에 놓아두면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단순하며,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한 편의 역사서 장처럼요. 제가 방금 마레스칼에게 읽어준 것이 바로 그 역사서의 한 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오를리 드 아스토가 무죄라는 것도요. 그녀를 놓아주십시오."

마레스칼은 어깨를 으쓱했다.

"고집 부리지 마, 마르스칼. 나는 진지해. 농담도, 장난도 이제 그만이야. 그냥 네 실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

"제 실수요?"

"당연하지. 그녀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공범도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가해자의 희생자였잖아."

소방서장은 비웃듯 웃었다.

"만약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도망쳤단 말인가? 기욤의 도주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녀가? 그녀가 뭘 얻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후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처음에 헌병들에게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라고 애원하며 몇 가지 불만을 토로한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엔 침묵이었잖아."

"잘했군, 마레스칼." 라울이 인정했다. "그 반박은 타당해. 나도 그 침묵 때문에 자주 당황했지. 그녀는 병을 앓고 있던 나를 도와주면서도, 심지어 내가 진술을 통해 수사를 돕기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도 그 침묵을 결코 깨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 그러다 지금, 이 집에서야 비로소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 그녀가 아팠을 때 서랍을 뒤졌다면 용서해 줘야 해. 어쩔 수 없었으니까. 마레스칼, 이 문장을 읽어 봐. 그녀가 죽어가던 어머니가 남긴 지침 중 하나야. 어머니는 브레야크에 대해 환상도 품지 않았지만, 딸에게 이렇게 유언했지.

‘오로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의붓아버지의 행실이 어떠하든, 너는 그를 결코 비난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고통을 줘도, 심지어 그가 유죄라 해도 그를 변호하라. 나는 그의 이름을 지녔으니까.’”

마레스칼이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브레야크의 죄를 몰랐어. 알았더라도 그 사건은 급행열차 습격과 아무 상관없지. 브레야크가 연루될 리가 없었어.”

“누구한테?”

“조도에게.”

“그걸 누가 증명해?”

“기욤의 어머니, 즉 안시벨 과부에게서 들은 말이지. 나는 그녀를 파리에서 다시 만났어. 그녀는 지금도 파리에서 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아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적은 서면 진술을 매우 비싼 값에 사왔어.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급행열차의 칸에서, 미소녀를 마주 보고 앉은 채, 죽은 두 형제 옆에서. 그리고 가면이 벗겨진 채로, 조도는 주먹을 쥔 채 이렇게 맹세했어.”

“만약 네가 이 일에 대해 입을 열거나, 나에 대해 말하면, 내가 체포당할 때 나는 옛날의 그 살인 사건을 폭로할 거야. 브레자크가 네 할아버지 아스퇴를 죽였다고.”

니스에서 반복된 이 협박이 아스퇴의 오를리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결국 침묵하게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미스?"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습니다."

"보시죠, 마레스칼. 그 반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피해자의 침묵, 즉 당신의 의심을 남겼던 그 침묵은 오히려 그녀를 위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녀를 놓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마레스칼이 발을 구르며 말했다.

"왜요?"

마레스칼의 분노가 갑자기 폭발했다.

"내가 복수하고 싶어서야! 스캔들을 원해! 사람들이 모두 알게 만들고 싶지. 윌리엄과 도망친 일, 체포된 일, 브레야크의 살인 사건까지! 그녀에게 불명예와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어. 그녀가 나를 거절했잖아.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브레야크도 마찬가지야! 넌 내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이제 나는 브레야크와 그 여자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조도도! 안시벨 가문도! 그 무리의 모든 놈을! 단 한 명도逃脱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오를리도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문 앞을 거칠게 오갔다. 복도에서는 라봉스와 토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울은 테이블 위에서 병에서 꺼낸 종이를 주워 들었다. 종이에 적힌 글은 "마레스카는 바보야"였다. 그는 느긋하게 종이를 펴고 검사에게 건넸다.

"이거, 친구. 액자에 넣어서 침대 옆에다 걸어두게."

"그래,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하지만 난 너를 붙잡았어. 너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거칠게 내뱉었다.

"처음부터 난 네 속임수를 다 봐왔단 말이다. 그 담배 사건처럼 말이야. 불 좀 붙여주겠소? 내가 네게 불을 좀 주마. 감옥에서 평생을 피울 만큼 충분히."

"그래, 감옥에서. 네가 온 곳이고, 곧 다시 들어갈 곳이지. 내가 거듭 말하건대, 감옥이야."

"네가 날 쫓아다니며 저항해도, 네 정체를 꿰뚫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너를 드러낼 충분한 증거를 이미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가니마르 형사가 고개를 돌려 아우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시오, 아우렐리. 당신의 연인을. 만약 그게 누군지 궁금하다면, 사기꾼의 왕이자 가장 신사적인 절도마스터, 그 중의 최고를 떠올려 보시오. 그리고 생각하시오. 결국 리메지 남작이라는 가짜 귀족이자 가짜 탐험가는 바로…"

그가 말을 멈췄다. 아래서 종소리가 났다. 필립과 그의 부하들 둘이었다. 그들 말고는 누구도 있을 수 없었다.

마레스칼은 손을 비비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네, 정말 큰일났군, 뤼팽… 뭐라고 생각하네?"

라울은 오를리를 바라보았다. 뤼팽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별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초록 눈의 아름다운 아가씨여, 자네의 믿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군. 도대체 필립이라는 자가 자네를 어떻게 괴롭히나?"

그는 창문을 살짝 열었고, 아래 보도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

"필립프라는 사람, 검찰청 소속이죠? 잠깐, 동지들. 네 명의 부하들 중 세 명만 따로 불러주게. 셋이나 된다니, 참으로 골치 아프군. 나를 모르시나? 리메지 백작. 서둘러요. 마르스카가 기다리고 있소."

그는 창문을 밀어 닫았다.

"마르스카, 계산은 다 끝났군. 한쪽이 네 명, 다른 쪽이 세 명. 브레자크는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세지 않았어. 합쳐서 일곱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나를 한 입에 삼켜버릴 판이지. 몸서리가 치군! 초록 눈의 아가씨도 마찬가지겠지."

오를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뱉어낼 뿐이었다.

마레스칼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발소리가 재촉하는 듯이 계단을 올라왔다. 곧 마레스칼의 손아귀에는, 사냥개를 풀어주면 달려들 준비를 마친 여섯 사내의 무리가 잡혔다. 그는 낮게 명령을 내린 뒤,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안으로 들어섰다.

"쓸데없는 싸움은 피합시다, 남작."

"싸움 따윈 없어요, 후작. 바버블루의 아내들처럼 당신 일곱을 모두 죽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세상 끝까지."

"조건 없이?"

"아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대접해 주세요."

"좋아요. 딱딱한 빵과 개 사료, 그리고 물로 하죠." 마레스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라울이 말했다."

"그럼 메뉴는?"

"당신의 것이죠, 로돌프. 샹티유 머랭, 럼주 바바, 그리고 알리칸테 와인."

"무슨 소리야?" 마레스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별거 아니야. 네가 차 마시자고 했잖아. 난 거리낌 없이 수락했지. 5시에 약속 있지 않니?"

"약속?" 마레스칼이 점점 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기억 안 나? 네 집, 아니면 네 원룸인 거지. 뒤플랑 거리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앞쪽 방에. 아니지? 그곳에서 매일 오후마다 네… 그 여자랑 만나지?"

"입 다물어!" 마레스칼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었다.

"왜 입 다물어야 해?" 라울은 가식 없이 물었다. "아니, 네가 더 이상 초대하지 않는 거야? 그분께 나를 소개해 주지 않겠어?"

"입 다물어, 신의 이름으로!" 마레스칼이 다시 외쳤다.

그는 부하들에게로 돌아가 필립을 따로 불렀다.

"잠깐, 필립.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 자네 놈들을 치워라. 들리지 않게 해."

그는 문을 닫고 라울 쪽으로 돌아섰다. 브레자크와 오를리를 경계하며, 라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가?"

"별 뜻 없다."

"그런 암시를 던진 이유는? 어떻게 알았지?"

"너의 하숙집 주소와 애인의 이름은? 음, 너를 위해 브레자크나 조도, 그리고 그 무리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사생활을 조용히 조사했을 뿐이야. 그 조사는 너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만나는 신비한 지하실로 나를 이끌었지. 그곳은 포근하게 꾸며져 있었어. 그림자, 향기, 꽃, 단 포도주, 그리고 무덤처럼 깊은 소파들이 있었어. 바로 '폴리 마레스칼'이지!"

"그리고 나서?" 간수관은 더듬거렸다. "그건 내 권리 아니야? 그게 내 체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만약 네가 그 작은 아모르 신전에서 이 여인들의 편지를 숨기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bourde는 gourde와 운이 맞는다)"

"너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넌 지금 순무처럼 창백해지지 않았을 거야."

"명확히 말해."

"옷장 안에 비밀 금고가 있어. 그 금고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리본으로 단정히 묶인 예쁜 여성들의 편지들이 있지. 아름다운 마레스칼 씨에게 열렬히 호감을 표현하며 거리낌 없이 정사를 벌인 두 다스나 되는 여성들을 파멸시킬 만한 내용들이 말이야. 내가 이름을 대야 해? B... 검사장의 부인, 코메디 프랑세즈의 X... 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보이는 … 씨의 정숙한 아내."

"입 다물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은," 라울은 태연하게 말했다. "자신의 뛰어난 외모를 이용해 보호와 승진을 꾀하는 자야."

마레스칼은 수상한 태도로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을 두세 바퀴 돌았다. 그러더니 라울 곁으로 돌아와 물었다.

"얼마?"

"뭐, 얼마라고?"

"이 편지에 값을 붙이겠지?"

"유다처럼 삼십 데니에."

"장난하지 마. 얼마라고!"

"삼천만."

마레스칼은 조급함과 분노로 몸이 떨렸다.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로돌프. 난 착한 놈이고 너도 괜찮아. 너의 코믹한 로맨스 문학에서 한 닢도 안 가져갈 거야. 그건 내가 너무 아까워. 몇 달은 그걸로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건……"

"뭐?"

"마레스칼, 너는 무기를 내려놓아. 오를리와 브레자크, 그리고 요도와 앙시벨 일가까지 모두 평온하게 해 주마. 내가 다 책임지겠어. 이 사건은 경찰 관점에서 볼 때 네 책임이야. 하지만 실제 증거도, 확실한 단서도 없잖아. 그러니 이 사건은 그냥 종결시키게. 분류해 두지."

"그럼 편지들을 돌려주겠소?"

"아니. 이건 담보야.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정정당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몇 통은 확실히, 거리낌 없이 공개할 테니까. 네 탓이고, 네 아름다운 친구들 탓이야."

commissaire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렀다. 그가 말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아마도 그럴 거야."

"그래, 그래. 그녀에게 배신당했지. 얼마 전부터 그녀가 나를 엿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바로 그녀 덕분에 네가 원하던 대로 그 사건을 이끌었고, 그녀를 통해 그녀의 남편에게 나를 소개받았지."

"뭐 어때? 라울이 가볍게 말했다. '전쟁터에서 쓰는 전술일 뿐이야.' 네가 싸울 때 그토록 하찮은 수단을 썼는데, 가련한 오를리를 네 끔찍한 증오로부터 지키려다 보니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로돌프, 넌 너무 순진했어. 도대체 나 같은 놈이 한 달 동안이나 잠만 자며 상황과 네 기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냐? 베이크르, 몬테카를로, 생마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도 봤잖아. 병과 서류를 어떻게 속여 빼냈는지도. 그럼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니?"

그는 로돌프의 어깨를 툭 치며 흔들었다.

"자, 마레스칼. 폭풍에 무너지지 말게. 패배한 걸로 치게. 하지만 브레자크의 사임장이 네 주머니에 들어 있고, 네가 총애를 받고 있으며 그 자리가 이미 네게 약속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이건 큰 진전이야. 마레스칼, 좋은 날은 다시 올 거야. 확실히 그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야.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자를 이용하지도 말고, 여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직업을 이용하지도 마. 사랑에 빠지고 싶으면 사랑에 빠지고, 경찰이 되고 싶으면 경찰이 되면 돼.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경찰'도, '경찰인 연인'도 되지 마.

마지막으로 좋은 조언 하나 해줄게. 만약 네 길에 아르센 뤼팽이 나타나면, 바로 다른 길로 피하도록 해. 경찰에게 지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야.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지시를 내려. 그리고 작별인사야."

마르스칼은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턱수염 끝을 꼬고 돌리며 고민에 빠졌다. 결국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적에게 덤벼들어 부하들을 불러들일 것인가.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군.' 라울은 생각했다. '불쌍한 로돌프, 뭐라고 저항해 봐야 소용없어.'

로돌프는 오래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날카로워, 모든 저항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임을 금세 깨달았다. 그는 순종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남자의 태도로.

그는 필리프를 다시 불렀고,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필리프가 나가더니, 라봉스와 토니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을 데리고 떠났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마르스칼은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라울이 오를리에 다가갔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마들모아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가방은 아래층에 두고 오셨죠?"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속삭였다.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감옥에서 벗어난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아,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신이 나서 말했다. "마레스칼에게는 온유함과 설득력만 보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는 훌륭한 청년이랍니다. 마들모아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를리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게다가 마레스칼은 등을 돌린 채 양팔을 벽난로 난간 위에 괴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오를리는 브레야크에게 다가가려다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그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고, 특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라울이 나중에 꼭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라울이 문턱에서 멈춰 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마레스칼 씨와 장인 어른 앞에서 약속합니다. 한 달 동안은 평화로운 은신처로 모셔가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죠. 한 달 뒤, 다시 찾아와 당신의 앞날을 어떻게 꾸려갈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이해했죠?"

"네," 그녀가 말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들은 떠났다. 계단에서는 그가 그녀를 부축해야 했다.

"자동차가 근처에 있습니다. 온 밤을 내내 이동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유롭게 된 기쁨이 너무 커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크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가는 순간, 라울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위층에서 총성이 울렸다. 아우렐리는 듣지 못했다. 라울이 그녀에게 말했다.

"차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죠.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인이 타 계십니다. 제 옛 젖먹이요. 그분 쪽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잠시 위층으로 올라가야 해요. 말 몇 마디 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가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그녀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방 안에서는 브레자크가 소파에 기대어 숨을 거두고 있었다. 권총을 손에 쥔 채, 하인과 형사의 간호를 받고 있었지만,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마지막 경련이 일더니,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라울이 투덜거렸다. "갑작스러운 실신과 오를리의 퇴장…… 불쌍한 녀석! 드디어 빚을 갚았군."

그가 마레스칼에게 말했다.

"집시와 잘 붙어서 의사 불러. 출혈이겠지? 절대 자살로 처리하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레리는 당장 알 필요 없어. '고향에 가서 친구 집에서 아파 누워 있다'고 해."

마르스카가 그의 팔목을 꽉 잡았다.

"대답해. 넌 누구냐? 뤼팽이겠지?"

"그제야 제법 하네." 라울이 말했다. "직업병이 다시 발동했군."

그는 경찰청장 정면으로 서서, 옆모습과 사분면 모습을 차례로 내보이며 비웃듯 말했다.

"네가 말했잖아, 뚱보야."

그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오레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노부인이 그녀를 편한 리무진 뒷좌석에 앉히고 있었다. 습관처럼 거리 한바퀴를 둘러본 라울이 노부인에게 말했다.

"차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

"아무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해? 좀 뚱뚱한 남자와 팔을 석고로 고정시킨 다른 남자가 함께 다니던데."

"네, 정말요! 두 사람이 보행도에서 오가긴 했지만, 좀 더 아래쪽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발걸음을 재촉했다. 생필립 뒤 뒤롤 성당 뒤쪽의 작은 골목에서 팔에 석고를 찬 두 남자를 붙잡았다.

그는 두 사람의 어깨를 툭 치며 경쾌하게 말했다.

"어이, 어이, 어이, 우리 다 아는 사이인가 보네? 잘 지내, 요도? 그리고 기욤 앙시벨은?"

두 사람이 돌아섰다. 부르주아 복장을 한 요도는 거대한 상체에 성난 독견 같은 털북숭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놀라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아, 니스의 그 녀석이로구나! 내가 바로 저 녀석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는 줄 알았지."

"툴루즈의 그 녀석도 맞지," 라울이 기욤에게 말했다.

그는 곧바로 물었다. "여기서 뭐 하냐, 자네들? 브레자크 저택을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두 시간째요," 조도가 오만하게 대답했다. "마레스칼의 도착, 경찰의 술수, 오를리의 퇴장까지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아마도 자네들도 모든 사정을 알고 있겠지. 자네들은 이 물에서 고기를 낚은 셈이고, 오를리는 자네와 함께 달아났으며, 브레자크는 마레스칼과 씨름하고 있는 거겠지. 사임이나 구속 같은 일일 테고."

"브레자크는 방금 자살했어," 라울이 말했다.

조도가 깜짝 놀랐다. "뭐? 브레자크가? 브레자크가 죽었다니!"

라울은 그들을 끌고 교회 쪽으로 향했다.

"두 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조도, 당신은 아스토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베이크필드 양을 죽이며, 친구이자 동업자이자 공범이었던 루보 형제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내가 마레스칼에게 당신을 넘길까요?"

"기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거액과引き換え에 모든 비밀을 저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당신이 곤욕을 치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당신의 다른 팔도 부러뜨리고 마레스칼에게 넘길까요?"

기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조도만이 반발했다.

"결국 보물이 당신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장 명확한 결론이죠."

라울은 어깨를 으쓱였다.

"너는 보물을 믿는 모양이군, 동무?"

"나도 너만큼이나 믿어. 이 일을 파고든 지 이미 스무 해가 넘었어. 네가 꾸민 온갖 술수에 지쳤으니, 이 일은 더 이상 손대기 싫단 말이야."

"손대기 싫다니! 먼저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대체 그게 뭔지부터 알아내야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몰라. 브레자크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소녀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선 거지."

"같이 나누자고?" 라울이 웃으며 말했다.

"필요 없어. 혼자서 내 몫은 충분히 챙길 수 있어. 더 큰 몫을 말이지.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운이 없겠지. 내 손에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가 남아 있어. 잘 생각해 봐. 안녕."

라울은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도대체 그 흉측한 맹수 같은 녀석이 무슨 용도로 나타나려던 걸까.

"휴!" 라울이 중얼거렸다. "만약 그 녀석이 사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차를 쫓아온다면, 내가 아주 멋진 경주를 선사해 주마!"

다음 날 정오, 오를리가 밝은 방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정원과 과수원이 내려다보였고, 그 너머로 클레르몽페랑의 어둡고 장엄한 대성당이 우뚝 서 있었다.

오래된 기숙사를 요양원으로 바꾼 이곳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오를리에게 가장 조용한 안식처를 제공했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더없이 적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평온한 몇 주를 보냈다. 라울의 노모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공원 산책을 하며, 때로는 한 시간씩이나 멍하니 앉아 도시나 푸드두돔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로야의 구릉지대가 푸드두돔의 첫 번째 산맥을 표시하고 있었다.

라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녀의 방에는 수유부가 꽃과 과일을 놓고 갔다. 책과 잡지도 있었다.

라울은 포도밭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작은 길들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날이 갈수록 커지는 열정이 가득 담긴 독백을 늘어놓았다.

그는 소녀의 손짓과 유연한 걸음걸이로, 그녀 안에 생기가 다시 차오르고 있다고 직감했다. 마치 물이 거의 말라버렸던 샘에서 다시 찬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끔찍한 시간들, 음산한 얼굴들, 시체들, 그리고 범죄들의 그림자가 걷혔다. 잊혀짐 너머에는 평온하고 진지하며 무의식적인 행복이 피어났다. 그것은 과거는 물론 미래로부터도 안전한 곳이었다.

"당신은 행복하군요, 초록 눈의 아가씨."

행복이란 마음가짐이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게 해주는 힘이다. 반면 슬픔은 나쁜 기억과 속임수에 불과한 희망에 기생한다. 행복은 일상의 작은 일들과 어우러져 삶을 기쁨과 평온의 요소로 바꾼다.

그런데 당신, 오를리에,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꽃을 꺾을 때나, 쉼터 의자에 누워 있을 때나, 당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십 일째 날, 라울이 서신을 보냈다. 다음 주 어느 아침에 자동차로 나들이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꼭 전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을 보냈다.

지정된 아침, 그녀는 자갈이 깔린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그녀를 큰 도로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라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울을 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당황하고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마치 중대한 순간에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circumstance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고민하는 여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울이 다가와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했다. 이제 말해야 할 말은 라울의 차례였다.

"당신이 올 줄은 의심치 않았소.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지. 비극적인 모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오. 어떤 문제들이라고? 당신에게 그게 중요하단 말인가? 아니오, 그렇지 않겠지.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라고 명했소. 당신은 그저 내 명령에 따를 뿐이오. 내 손길을 따라가면 되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두려움은 이미 끝났소.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옥 같은 환상을 보여주

는 그 공포는. 그렇지 않소?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미소 짓으며 맞이할 것이오. 마치 친구들을 맞는 것처럼."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내맡겼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아마도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녀는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떠났다. 온천 마을과 로야트의 오래된 마을을 가로질러 걸었다.

교회 시계는 여덟 시 반을 가리켰다. 8월 15일, 토요일이었다. 산들은 찬란한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라울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녀를 다정하게 불렀다.

"헤이, 이제 나를 싫어하지 않나, 초록 눈의 아가씨? 처음의 모욕도 잊었나 봐. 나도 당신을 존경해서, 당신 앞에서는 그 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군. 자, 미소 지어 봐. 이제 나를 당신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습관이 생겼잖아. 수호신에게는 미소 짓는 법이지."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우호적이고,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동차는 한 시간쯤 더 달렸다. 그들은 뒤뫼 산을 우회해 남쪽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길은 지그재그로 오르고 내리며, 푸른 계곡이나 어두운 숲 사이를 지나갔다.

그런데 길은 더 좁아졌다. 황량하고 건조한 지역을 가로지르며 가파르게 올랐다. 길바닥은 크고 고르지 않은 용암 판석으로 포장되어 있어, 틈이 벌어지고 울퉁불퉁했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고대 도로예요." 라울이 말했다. "프랑스 구석구석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죠. 카이사르가 닦았다는 길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정신이 다른 데로 흐트러져 보였다.

그 고대 도로는 이제 겨우 염소들이 다니는 좁은 길로 변해 있었다. 오르막은 쉽지 않았다. 잠시 평평한 지대에 다다르자, 거의 버려진 듯한 작은 마을이 나왔다. 오레리는 마을 입구에 걸린 표지판에서 그 이름을 확인했다. '주뱅'.

그리고 숲이 이어졌다. 이내 시야가 트이자 푸르른 평원이 나타났다. 보기에 아주 정겹고 아늑한 풍경이었다. 다시 로마 시대 도로가 나타났다. 두둑한 풀밭 사이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가파른 비탈의 끝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오레리는 점점 더 깊은 명상에 빠진 듯했다. 라울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이 계단 모양으로 놓인 돌판을 올라서자, 넓은 원형의 땅이 나타났다. 그곳은 풀과 잔디의 신선한 기운이 감돌아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다. 높은 석조 담장이 그 땅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비바람에 시들지 않은 시멘트가 오히려 담장의 견고함을 더했다. 담장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중에는 넓은 문이 하나 뚫려 있었다. 라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땅은 계속 경사져 올라갔다. 그들이 흙더미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고, 주변을 둘러싼 바위 산맥이 호수를 감싸고 있었다.

처음으로 오를리는 질문을 했다. 그 질문에는 그녀 안에서 계속되던 깊은 사색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저를 여기로 데려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정말 볼 게 없어서 심심하기 그지없죠." 라울은 곧장 답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유의 거친 매력이 있고, 야생 같은 멜랑콜리가 느껴집니다. 다른 곳처럼 관광객들이 놀러 오는 곳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유람을 하기는 합니다."

그는 그녀를 낡은 배 옆으로 데려갔다. 사슬이 말뚝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말 없이 배에 올랐다. 라울은 노를 젓기 시작했고, 그들은 천천히 물결을 헤쳐 나갔다.

슬레이트 빛깔의 물은 푸른 하늘을 비추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구름들의 어두운 빛을 담고 있었다. 노 끝에서 빛나는 물방울은 수은처럼 무거워 보였다. 도대체 이 마치 금속 같은 물속으로 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었다.

오로렐리가 손을 담갔지만, 곧 빼내야 했다. 물이 너무 차갑고 거슬렸기 때문이다.

"아!"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뭐가 문제죠?" 라울이 물었다.

"아니에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죠."

"그렇네요. 마음이 흔들려요. 제 안에서 놀랄 만한 느낌들이 일고 있어요. 당황스럽고도 이상하죠. 마치……"

"마치 어떻게요?"

"말하기가 어렵네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여기에 계신 분이 당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고통스럽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높은 절벽이 원형으로 둘러선 곳, 그 꼭대기에는 큰 벽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냈고, 반경 오백에서 육백 미터에 걸쳐 이어졌다.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해안선이 갈라진 틈이 있었고, 거기가 좁은 수로로 이어졌다. 높은 벽이 햇살을 가려 수로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섰다. 바위들은 더 검고 더 쓸쓸해 보였다. 오렐리는 경악한 듯 바위를 바라보며, 그들이 만들어낸 기이한 실루엣들을 올려다보았다. 웅크린 사자, 거대한 굴뚝, 비현실적인 조각상, 거대한 가루굴.

그때였다. 그들은 그 기묘한 복도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잠시 전 떠나온 곳으로부터 이 길을 따라 들려오는 듯한, 멀리서 퍼져오는 희미하고도 불분명한 소음의 파도를 한껏 맞은 듯했다.

교회 종소리였다. 가느다란 종의 맑은 울림, 청동으로 만든 노래소리, 경쾌하고 즐거운 선율들. 대성당의 묵직한 종소리가 웅웅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성한 음악의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소녀는 기절할 뻔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불안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잊지 않기 위해 애썼던, 그 신비로운 과거의 목소리가 그녀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화산의 용암이 섞인 화강암 성벽에 부딪혔다. 바위에서 바위로, 조각상에서 가루고일(gargoyle)로 튀어 오르고, 단단한 물 표

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다 푸른 하늘 띠까지 치솟더니, 거품 가루처럼 다시 깊은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튀어 오르는 메아리들이 되어, 빛이 반짝이는 대낮의 햇살이 비치는 협곡의 다른 출구 쪽으로 사라져 갔다.

아우렐리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밀려왔다. 그녀는 저항하려 애썼다. 그 많은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과거는 그녀를 꺾어 놓은 나뭇가지처럼 구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주님,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에 경악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남에게 비밀을 밝힌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명대로, 자신이 사랑하게 될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보물 같은 과거를 누구에게도 건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놀라게 할 만큼 놀라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지? 분명 여기 맞지?" 라울이 물었다. 소녀의 그 사랑스러운 태도에 그의 마음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오를리가 속삭였다.

"길 내내, 낯선 것들이 마치 이전에 본 적 있는 것들처럼 내게 다가왔어요. 길, 나무들, 두 개의 둑 사이에 오르는 돌길…… 그리고 그 호수, 바위들, 그 물의 색깔과 차가움…… 무엇보다도 이 종소리들."

오를리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오, 이 종소리들은 예전과 똑같아요. 우리 곁으로 찾아온 장소가 바로, 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를 찾아왔던 곳과 같은 곳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림자에서 나와, 같은 햇살 아래 호수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또 다른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더 장엄했다. 절벽은 더 가파랐고, 고요함은 더 야생적이며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기억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울 곁에 바짝 기대어, 친구에게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물과 색채의 풍경을 즐기던 어린 소녀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 풍경은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당신이 제게 당신의 삶을 여행하듯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라울은 감동에 몸이 조여들었다. "그날의 당신을 다시 만나니, 저도 당신만큼이나 기쁩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저가 앉아 있는 자리에 앉으셨고, 아버지는 그 반대편에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입에 대고 키스하고 있었죠. 보세요, 그 틈새에 홀로 서 있는 나무,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위로 흐르는 커다란 햇빛 자국도요. 그런데 또다시 시야가 좁아지네요. 방금 전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호수의 끝자락이죠. 호수는 길게 늘어져 있고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어요. 그 끝부분에 아주 작은 해변이 드러날 거예요. 바로 저기 있네요. 왼쪽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모래가 보일 거예요. 운모처럼 빛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동굴이 있어요. 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서…"

"동굴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수염이 길게 흐른 회색 머리의 이상한 남자가요. 갈색 양모 가운을 입고 서 있었죠. 여기서도 잘 보일 만큼 키가 컸어요. 이제 만나러 가지 않나요?"

라울이 말했다.

"저도 만날 줄 알았어요. 정말 의아하네요. 이제 거의 정각인데,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바로 정각이었거든요."

제12장

그들은 작은 해변에 내려섰다. 모래알마다 햇살에 반짝이는 운모처럼 빛났다. 오른쪽 절벽과 왼쪽 절벽이 만나 날카로운 각도를 이루었고, 그 하단부는 작은 굴곡을 파고 있었다. 그곳은 슬레이트 지붕이 살짝 튀어나온 부분 아래로 보호받고 있었다.

지붕 아래에는 작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흰색 식탁보가 깔리고 접시와 유제품, 과일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접시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타랑세이 후작이 올립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아스토의 친구로서 인사드립니다. 오를리, 저는 곧 도착할 테니, 낮 동안에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오를리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사흘 전, 저와 그가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 정각에 당신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우렐리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화가의 이젤이 기대어 있었다. 그 위에는 스케치북, 모형, 물감 상자, 낡은 옷가지 등이 가득 쌓인 널판지가 있었다. 모서리 너머로는 해먹이 걸려 있었다.

방 끝에는 두 개의 큰 바위가 쌓여 있었다. 벽이 까맣게 그을린 것을 보니, 아마도 그곳에 불을 피우기 위한 화로인 듯했다. 바위 틈새로 굴뚝구멍 같은 통로가 열려 있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삽니까?" 아우렐리가 물었다.

"자주 옵니다. 특히 이 계절에는요. 나머지 때는 쥐뱅 마을에 있죠. 제가 처음 그를 발견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매일 이곳에 옵니다.

당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 그는 특이한 노인이죠. 교양도 깊고 예술가 기질도 풍부합니다. 비록 그림 실력은 형편없지만요. 그는 혼자 삽니다. 은자처럼 지내며, 사냥을 하고, 나무를 베고, 잘라내고, 목동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반경 두 리(약 8km)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린 지 이미 15년이 지났어요, 오를리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네, 아스테우의 친구와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봤죠. 하지만 그분은 오직 당신께만 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제 전 생애와 최근 몇 달간의 모든 일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모셔오겠다고 약속하자, 그분은 영지의 열쇠를 빌려주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분은 여기 없소?"

타랑세이 백작의 부재는 라울을 점점 더 놀라게 했다. 비록 그에게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 소녀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라울은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배경 속에서 함께 하는 첫 식사를 하며 자신의 재치와 유머를 모두 동원했다.

그는 그녀를 지나친 다정함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 곁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 자신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자신이 처음에 피하려 했던 적수가 아니라, 오직 그녀의 행복만을 바라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수많은 차례 그녀를 구해 주었다. 그녀 또한 여러 번 자신을 발견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그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었음을. 그녀의 삶이 이 낯선 남자에게 달려 있고, 그녀의 행복이 이 남자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그녀가 속삭였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미소 지어 주세요, 초록 눈의 아가씨. 그리고 저를 바라보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상쇄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 시 사십오 분,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대성당의 큰 종소리가 절벽 모서리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매우 논리적인 현상입니다." 라울이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요. 북동풍, 즉 클레르몽페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지형의 음향 효과가 작용합니다. 거대한 공기 흐름이 모든 소리를 강요된 길로 몰아넣는데, 그 길은 산맥 성벽 사이를 굽이돌아 호수 표면으로 이어집니다. 필연적이고, 수학적으로도 확실한 일입니다. 클레르몽페랑의 모든 교회 종과 대성당의 큰 종은 지금처럼 여기서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소?"

"진짜 것을."

"그게 무엇인가?"

"당신이 이 종소리를 가져와, 내게 어린 시절의 모든 감정을 되찾아 준다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것."

"그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군."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믿음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보겠지." 라울이 농담조로 말했다. "여기, 지금 이 시간. 15년 전, 당신은 잠들었소."

"그게 무슨 뜻이오?"

"당신의 눈이 잠으로 무겁다는 뜻이오. 15년 전의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먹에 누웠다.

라울은 잠시 동굴 입구에서 지켰다. 그러나 시계를 확인하자 그는 짜증 섞인 제스처를 취했다. 3시 15분. 탈랑세 백작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는 짜증 섞인 생각에 말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잠든 소녀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고 마음속으로 그녀의 신뢰에 감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그를 덮쳐왔기 때문이다.

그는 작은 해변을 건너 나뭇가지 막대기를 들고 배를 잡으러 갔다. 그가 모래사장에 좌대를 올려놓았던 그 배가 이제 강가에서 두세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떠 있었다. 그는 막대기로 배를 붙잡아야 했고, 이때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배 안에 몇 센티미터의 물이 고였었는데, 이제는 서른에서 마흔 센티미터나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배를 강가까지 끌어들여 뒤집었다.

'대단하다. 가라앉지 않다니, 기적이다.'

보통의 물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단순히 구멍이 난 게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널빤지 하나 전체가 문제였다. 게다가 그 부분은 최근에 새로 붙인 것이었고, 못 네 개로 간신히 고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먼저 라울은 탈랑세 백작을 떠올렸다. 하지만 노인이 그런 행동을 할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젊은이가 그 노인의 품으로 인도되던 바로 그 순간, 대재앙을 일으키려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보트가 없을 때 탈랑세이는 어떻게 왔을까? 어디서 도착했을까?

그렇다면 절벽이 두 군데로 튀어나와 해변을 막고 있는 이곳에서도, 육로가 이어져야 했다.

라울은 주변을 살폈다. 왼쪽으로는 길이 없었다. 두 샘물이 솟구치는 곳과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니 사정이 달랐다. 절벽이 호수 속으로 파고들기 직전, 해변을 막는 지점 바로 앞에 암석에 새겨진 약 스무 계단이 있었다.

그곳에서 성벽 옆면으로 오르는 길이 이어졌다. 사실 그 길은 인공적인 계단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턱이었다. 너무 좁아 때로는 돌의 거친 부분을 손으로 잡으며 올라야 할 정도로 가파르고 좁은 길이었다.

라울은 그쪽으로 한 발짝 내밀었다. 여기저기에 발을 디딜 수 있게 철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걸 붙잡고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애써서 위쪽 평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산책로가 호수를 한 바퀴 돌아 협곡 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

주변은 푸른 초목과 바위투성이 풍경으로 가득했다. 두 명의 목동이 양떼를 몰고 멀리 사라져 갔다. 그들은 거대한 영지를 둘러싼 높은 성벽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탈랑세이 후작의 높은 키의 실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라울은 한 시간 동안 탐색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지만 절벽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는 불쾌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한 시간 사이에 물이 불어올라 첫 번째 계단까지 잠겨버린 것이다. 그는 뛰어 건너야 했다.

"이상하다." 그는 걱정스러운 빛으로 중얼거렸다.

오렐리는 분명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로 달려나갔지만, 이내 놀란 듯이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라울이 물었다.

"물……. 봐요,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방금 전만 해도 훨씬 낮았는데, 맞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소리와 똑같은 자연 현상이죠."

그는 억지로 농담조로 말을 이었다.

"이 호수는 조수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조수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언제쯤 수위가 오르는 것이 멈출까요?"

"일 시간, 길어도 두 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그 말은, 물이 동굴 절반까지 차오른다는 뜻인가요?"

"네. 때때로는 동굴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 화강암에 남은 검은 자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분명히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라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첫 번째 수위선 위에는 또 다른 선이 있었다. 그것은 대피소의 천장 바로 아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시기에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다는 뜻인가?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 어떤 비정상적인 재앙이 필요했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는 몸을 굳히며 생각했다. '그런 추측은 모두 터무니없어. 재앙? 천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 조수의 간만? 믿을 수 없는 헛소리일 뿐이야. 그냥 우연일 거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좋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머릿속에서는 의도치 않은 생각들이 이어졌다. 탈랑세의 정체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결석 문제였다. 그 결석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엄습하는 위험의 기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서진 보트.

"무슨 일이에요? 산만해지셨네요." 오를리가 물었다.

"음, 우리 여기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군. 당신의 할아버지 친구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만나러 가는 수밖에 없지. 주뱅의 그의 집에서 만나면 될 일일세."

"하지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배가 망가진 것 같은데."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어. 여자에게는 매우 험하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지. 다만 내 도움을 받아야 해. 내가 너를 업고 가야겠군."

"왜 저도 걷지 못하죠?"

"왜 몸을 적시나요?" 그가 말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볼까요."

그는 별다른 뜻 없이 그 말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쿠르 길에서 그랬듯, 자신이 그녀를 업는 상상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말없이 있었다.

그때 호숫가에 앉아 있던 소녀가 손을 물속에 담그고는 속삭였다.

"아니요… 아니요… 이 얼음물 같은 물은 견딜 수 없어요. 정말 못해요."

그녀가 돌아서자 그도 뒤를 따랐다. 그리고 15분이 흘렀다. 라울에게는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

"제발요, 갑시다." 그가 말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는 그녀의 말에 따랐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그가 그녀의 목에 팔을 감싸 안으려던 순간, 옆에서 휘슬 소리가 났다. 돌조각이 튀어 올랐다.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라울은 급히 오레리를 뒤로 밀쳤다. 두 번째 총알이 날아와 바위를 긁었다. 그는 한 번에 소녀를 안아 들어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돌진하듯 앞으로 나섰다.

"라울! 라울! 제가 막습니다! 총에 맞아요!"

그는 다시 그녀를 붙잡아 억지로 피신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발버둥치며 그를 붙잡아 세웠다.

"제발, 계세요…"

"아니야." 라울이 반대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잡았다. 방금 전만 해도 그가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를 품에 꼭 안으며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무서운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요. 같은 위험이 우리를 노리고 있죠. 서로 떨어지지 말아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라울이 약속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다.

그때, 세 번째 총알이 지붕의 슬레이트 기와 하나를 뚫고 들어왔다.

이제 그들은 포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장거리 사격용 소총을 든 두 명의 사수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멀리서 피어오르는 두 개의 작은 연무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두 사수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협곡 위쪽 강 오른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리는 약 250미터 정도였다.

그들은 호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숨어 있었다. 작은 해변의 일부를 사정거리 안에 넣을 수 있었고, 동굴 내부의 거의 전부를 조준할 수 있었다.

동굴은 그들에게 거의 전부를 노출하고 있었다. 다만 오른쪽의 오목한 곳, 여기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숨을 수 있었고, 양쪽으로 돌을 쌓아 만든 난로 위쪽 끝부분만 지붕의 처마에 가려져 있었다.

라울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애썼다.

"재미있군."

그의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오를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린 꼼짝도 못 해. 조금만 움직여도 총알이 날아올 테고, 총격 라인이 너무 좁아서 쥐구멍에 숨어 있어야 해. 정말 치밀하게 짜맞춘 수법이지."

"누가?"

"일단 노 후작이 떠올랐어. 하지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딘가에 갇혀 있겠지. 우리를 묶어둔 사람들이 그에게 함정을 놓았을 거야."

"누구란 말인가?"

"우리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두 명의 적. 요도와 기욤 앙시벨."

그는 오렐리의 마음에 실제 위협이 무엇인지 제대로 각인되지 않게 하려, 이 점에 있어 거친 솔직함을 가장했다. 요도나 기욤이라는 이름, 총격 소리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도적들이 무서운 동맹으로 삼은, 그 끈적하고 교활한 물의 점진적인 침범이 문제였다.

"하지만 왜 이런 매복 공격을?" 그녀가 물었다.

"보물입니다." 라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오레리의 말보다 자신의 추론을 더 믿고 있었다.

"마레스칼을 무력화시켰지만, 조도나 기욤을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움직인 거죠. 제 계획을 어떤 수단을 써서 알아챈 그들은 당신의 할아버지의 친구를 습격해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달하려던 문서와 자료들을 훔쳐갔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 적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총격을 가하지 않은 이유는, 협곡을 지나갈 때 목초지에서 양치기들이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왜 급히 움직였겠는가. 타랑세의 명함, 그리고 그 명함에 두 공범자 중 한 명이 급히 적어 넣은 몇 마디의 말만 믿고 우리는 그를 기다릴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우리가 협곡을 막 지나갔을 때, 거대한 수문이 닫혔다. 두 폭포의 물이 더해져 불어난 호수의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흘에서 다섯 시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쯤이면 양치기들은 마을로 돌아갔고, 호수는 가장 적막하면서도 장엄한 사격장이 된다. 보트는 침수되었고, 총알은 포위된 우리들의 탈출을 막았다. 도망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라울 드 리메지는 평범한 마레스칼처럼 속아넘어간 것이다.

이 모든 말은 태연한 농담조로 쏟아졌다. 그 농담이 자신에게 먹힌 줄 알고 먼저 깔깔 웃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를리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끝에 쥔 성냥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때, 평원에서 두 발의 총성이 터졌다. 이어 곧이어 세 발, 네 발이 연달아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명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수는 빠른 속도로 계속되었다. 분지처럼 생긴 해안가였기에, 물은 가장자리까지 차올라 평평한 지면을 작은 파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동굴 입수가 가까워졌다.

"난로석 두 개 위로 올라가면 더 안전할 거야."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라울은 오로리를 해먹에 눕혔다. 그리고 식탁 쪽으로 달려가 냅킨에 남은 점심 반찬을 싹 쓸어 담아 그림을 그리던 판 위에 올려놓았다. 총알이 튀어 올랐다.

"이미 늦었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건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합니다. 쉬면서 배를 채우는 거죠. 그 사이 밤이 올 테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두 분을 어깨에 업고 절벽 옆의 작은 길로 데려가겠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건 밝은 낮빛뿐입니다. 어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사이 물이 차오른답니다." 오로리가 말했다. "어둠이 충분히 깊어지기까지 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발만 젖는 수준이 아니라, 몸통 반쯤까지 물에 잠기게 될 텐데요."

사실 그 계획은 매우 단순했다. 하지만 라울은 자신의 계획이 가진 허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먼저, 해는 산봉우리 너머로 막 지고 있었다. 여전히 하루 종일 이어질 대낮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가량 더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적은 서서히 다가와 길목에 진을 칠 것이다. 라울은 어떻게 그 소녀에게 다가가,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오를리는 망설였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억지로 눈을 떼어내지 못한 채, 그녀는 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가끔은 오한이 일었다.

하지만 라울의 태도는 너무도 차분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좋아." 라울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나를 믿는군."

"네, 믿어요. 어느 날 손금 봐주실 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물의 위험을 조심하라고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신이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기적 같은 일을 해내실 테니까요."

"기적?" 라울이 말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가벼운 말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니야, 기적 같은 건 없어. 그냥 상황과 논리에 따라 생각했을 뿐이고, 행동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를 이곳, 당신이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풍경 속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저를 어떤 마법사쯤으로 여기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논리와深思의 결과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요도도 그 일당도 그 병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영원의 물'이라는 문구를 읽고 있었죠."

"그들이 무슨 단서를 얻었느냐고요? 아무것도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보니, 거의 전체가 로야의 온천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단 한 줄만 빼고요. 로야는 오베르뉴 지방의 주요 온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베르뉴 지도를 펼쳐 보니, 주뱅이라는 마을과 호수가 나옵니다. 주뱅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주벤티아(청춘)'에서 온 말임이 분명하죠. 저는 단서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주뱅에서 한 시간쯤 산책하며 현지 사람들과 수다를 떨자, 이 지역의 모든 귀족이 인정하는 타랑세이 백작, 즉 카라바스 백작이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앞에 나타나, 당신의 사신임을 밝혔죠.

그가 과거에 당신이 성모승천절의 일요일과 월요일, 즉 8월 14일과 15일에 그를 찾았다고 말하자, 저는 같은 날짜에 출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바람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불고 있죠. 그래서 종소리가 호위를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오, 초록 눈의 아가씨."

하지만 말로는 더 이상 그녀의 주의를 돌릴 수 없었다. 잠시 후, 오를리는 속삭였다.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물이요. 두 돌을 덮고 신발도 적십니다."

그는 돌 중 하나를 들어 다른 돌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 올라선 그는 해먹 줄기에 팔꿈치를 기대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젊은 여자에게 침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전을 위무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놀라움에 떨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냉혹한 현실의 위협을 자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요도트와 기욤이 벌인 술책 덕분에 수위가 올랐다. 그렇다. 하지만 두 도적은 분명히 이미 존재하던 상황을 이용해 왔을 뿐이다. 그 역사는 아마도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비밀에 부쳐진 어떤 이유로 수위 상승을 가능하게 한 자들이, 동시에 수위 하강도 가능하게 했다고 추측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들이 동굴에 사람들을 가두어 익사시키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수문을 닫는다면,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달린 여과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물을 흘려보내고 호수를 비우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그 여과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수문 작동과 연동되는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라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장애물이 많더라도 적에게 돌진하거나, 차가운 물속을 헤엄쳐 수문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총알에 맞거나, 얼음장 같은 물 때문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오를리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라울은 오를리에에게 자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이나, 그녀 역시 느끼고 있는 불안으로 가득 찬 침묵은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 불안에 짓눌린 듯 말했다.

"제발, 제발 답해 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밤이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게 되죠."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기는 크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뿐이에요.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행동할 시간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다만……"

"저를 도와줘야 해요.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신의 기억이 필요해요. 모든 기억이요."

라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그는 억눌린 열정으로 말을 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죽음은 사랑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바라셨을 법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 맹세를 어기며 이런

말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범죄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해 주세요. 몇 마디면 제게 단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즉각 물었다.

"여기 오신 뒤, 어머니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풍경을 보셨나요? 할아버지와 그 친구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무데도요. 저는 여기서 잤다고 확신해요. 오늘처럼 해먹에서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잊고 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담배 냄새와 마개를 따는 병 소리가 기억나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먹이를 줬죠. 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어요."

"햇살?"

"네, 아마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확신하시나요? 그 점이 모든 걸 결정해요."

"네,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기서 깨어났어요. 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위들이 보였지만, 그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바위들이 제자리에 없었단 말인가요?"

"아니, 물은 그들을 더 이상 적시지 않아요."

"물이 그들을 적시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당신은 그 동굴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그 동굴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고요. 우리 발아래는 미끄러워요. 주변에는 집 같은 것들이…… 마치 폐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늘 듣던 그 종소리였죠."

"그렇군…… 정말 그렇군." 라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내 추측과 모든 것이 일치해.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어."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덮쳤다. 물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출렁였다. 탁자, 이젤, 책자, 의자들이 물에 떠다녔다.

그는 해먹 끝자락에 앉아야 했고, 화강암 천장 때문에 몸을 굽혀야 했다.

바깥은 어둠이 흐려지는 빛과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얼마나 짙든,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디로 향해야 할까?

그는 절박하게도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며 해답을 찾아내려 애썼다. 오레리는 반쯤 몸을 일으켰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하나 잡아 당기더니 고개를 숙여 입맞췄다.

"세상에, 세상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외쳤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속삭였다.

"저를 사랑합니다."

반쯤 어두운 속에서 초록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젊은 여자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토록 큰 기쁨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다정하게 말하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저를 사랑합니다. 라울,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크고 유일한 비밀입니다. 다른 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감정은 제 전부가 되었어요. 제 생명이고, 제 영혼이죠."

"저는 당신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보기 전부터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오히려 당신을 증오했던 거예요. 부끄러웠죠."

"베코르 길에서 당신의 입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하던 무언가를 느꼈고, 그것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끔찍한 밤, 낯선 남자에게서 그토록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다니요!"

"저는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기쁘면서도 분한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저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때부터 저를 피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라울.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해서였어요. 저는 제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죠."

"저는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죠."

"저는 그 끔찍한 밤과 그 뒤따른 모든 잔혹한 고문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저는 당신을 미워하며 저항했지만, 매번 더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라울, 라울, 저를 꼭 안아주세요. 라울,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를 고통스러운 열정으로 꼭 안았다. 그는 처음 입맞춤의 격렬함으로 깨달은 이 사랑이, 매번 만날 때마다 그가 그 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경외감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느끼는 행복 자체를 두려워했다. 젊

은 여자의 다정한 말과, 상쾌한 숨결의 쓰다듬임이 그를 마비시켰다. 싸움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의지가 그 안에서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숨겨진 피로를 직감했다. 그리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인내합시다, 라울.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죠.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당신의 품에서, 내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은 채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라울. 이제 더 이상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두 팔이 목걸이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더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포옹 속으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저항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그 입술을 입맞춘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말한 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굴복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모든 본성이 그런 비겁함에 반발했다.

그러나 오를리는 그를 애원했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을 빼는 말들을 더듬거렸다.

"저를 사랑해요… 피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해요…"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는 생명의 모든 열정과, 끔찍한 죽음의 쾌락이 섞인 키스의 황홀함을 맛보았다. 밤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이

애무의 달콤한 무기력함에 몸을 맡긴 뒤부터는, 밤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듯했다.

물이 차올랐다…

라울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도, 곧 거칠게 정신을 차렸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많은 위험에서 구해준 그 여인이, 물을 머금어 폐를 찌르고 숨을 막혀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겪게 될 생각에 그는 오한이 일었다.

"아니, 절대 안 돼."

그가 외쳤다.

"당신이 죽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치욕을 막아낼 거야."

그녀가 그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다. 그녀는 비통한 목소리로 간청했다.

"제발, 제발요. 당신이 뭘 하려는 거예요?"

"당신을 구할 거야. 나도 함께 구할 거라고."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니? 밤이 깊었잖아. 더 이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눈을 볼 수 없고, 입술도 볼 수 없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어?"

"어떻게요?"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단서는 있어요. 반드시 어딘가에 수문을 닫았을 때의 영향을 통제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급히 물을 빼낼 수 있는 밸브 같은 것도 있고요. 내가 그걸 찾아내야 해요…"

아울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신음소리만 터져 나왔다.

"제발요… 저를 이 무서운 밤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라울."

"아니야. 네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면, 사는 것도 두렵지 않을 거야. 고작 두 시간만, 그것도 더 이상은 아니지만. 두 시간 동안은 물이 네게 닿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있을 거야… 아우를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있을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알려주거나, 혹은 너와 함께 죽으러."

그는 미련 없이, 차갑게 그 필사적인 포옹에서 벗어나 몸을 빼냈다.

그는 소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믿어라,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한 번도 임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걸 너는 알고 있지. 내가 성공하면 신호를 보낼게. 휘슬 두 번, 총성 두 번. 설령 네가 얼어붙는 물결을 느끼더라도, 나를 맹목적으로 믿어다."

그녀는 기운 없이 주저앉았다.

"가. 당신이 원한다면."

“무서워하지 않겠니?”

“아니요. 당신이 원하시니까요.”

그는 재킷과 조끼, 신발을 벗어 던졌다. 시계의 발광 판을 한 번 훑어본 뒤, 그것을 목에 걸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밖은 캄캄했다. 그는 무기도,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도 없었다.

여덟 시가 되었다.

제13장

라울의 첫인상은 끔찍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고, 공기는 무겁고 냉혹했다. 짙은 안개가 낀 침묵의 밤이 보이지 않는 호수와 흐릿한 절벽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귀로 들리는 것은 오직 고요함뿐이었다. 폭포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호수가 그 소리를 모두 삼켜버린 것이다.

이처럼 끝없이 깊은 심연 속에서 그는 보아야 했다. 들어야 했다. 방향을 잡아야 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했다.

문수문? 그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문수문을 찾는다는 것은 죽음의 게임을 건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두 도둑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숨어 있었다. 뤼팽 같은 상대를 직접 공격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

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조심스럽게 숨어 총을 들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해변 위쪽 가장자리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가슴을 적셨고, 그 추위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수문까지 헤엄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수문의 작동 방식을 모른 채 어떻게 수문을 조작할 수 있겠는가?

그는 절벽을 따라 더듬거리며 길을 걸었다. 잠긴 계단을 지나 절벽에 달라붙은 작은 길로 올라갔다.

등반은 극도로 힘들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먼 안개 너머로 희미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이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호수 위일까, 절벽 꼭대기일까? 어쨌든 빛은 정면에서 왔다. 곧 협곡 부근에서, 즉 도적들이 총을 쏘았던 곳, 그리고 그들이 야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였다.

그 빛은 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위치였다. 이는 도적들이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했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라울은 잠시 망설였다. 흙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기암괴석과 계곡을 돌아 올라가고 내려가며, precious한 빛을 잃어버릴 깊은 함정에 빠져드는 길을 택해야 할까?

그는 오레리가 거대한 화강암 무덤 깊숙이 갇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다. 그는 쉼 없이 내려가던 길을 재빠르게 되돌아갔고, 힘차게 몸을 던져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추위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이 느껴졌다.

거리가 고작 이백에서 이백오십 미터쯤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만 포기할 뻔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를리의 생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오를리가 잔인한 천장 아래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차가운 물은 아무것도 막지 못하고, 늦추지 못한 채 잔인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를리는 그 악마 같은 속삭임을 듣고, 얼어붙는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더 열심히 달렸다. 빛이 자비로운 별처럼 그를 인도했다. 어둠의 거대한 세력이 일제히 밀려와 그 빛을 순식간에 삼켜버릴까 봐, 그의 눈은 그 빛을 뜨겁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빛은 또 다른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기욤과 조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호수를 향해 기울어진 등불은, 그들이 공격이 있을 법한 길을 눈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안도감이 밀려왔다. 근육이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넓은 보폭으로 나아갔다. 호수 거울 위에 비친 별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대략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도적들의 감시소는 협곡 입구를 향해 돌출된 곶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암초에 부딪힌 뒤, 작은 자갈이 깔린 언덕에 닿아 배를 대었다.

머리 위, 하지만 약간 왼쪽 방향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도와 기욤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수직의 절벽이었을까, 오를 수 있는 경사였을까? 단서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작정 등반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먼저 마른 작은 자갈을 손에 가득 담아 다리와 가슴을 세게 문질러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젖은 옷을 짠 뒤 다시 입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용기를 내어 나섰다.

그곳은 절벽도, 오를 수 있는 경사도 아니었다. 거대한 신전 기초처럼 쌓여 있는 암석층들이었다.

오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어떤 체력과 용기, 그리고 위험천만한 체조 실력이 필요했을까.

손톱이 발톱처럼 단단한 손가락들이 바위에 달라붙어도 돌조각들이 떨어졌다. 뿌리째 뽑힌 식물들도 많았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또렷이 들려왔다.

낮에는 라울이 결코 이런 미친 짓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손목시계의 끊이지 않는 틱톡 소리가 그를 밀어냈다. 마치 막을 수 없는 힘처럼. 귀 근처에서 뛰는 매초마다, 그것은 오로리의 생명이 조금씩 흩어지는 소리였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갑자기 장애물은 사라졌다. 건물의 꼭대기에는 잔디 한 층이 덮여 있었다. 그림자 속에는 희미한 빛이 떠다녔고, 마치 흰 구름 한 점처럼 보였다.

그의 앞에는 움푹 팬 땅이 있었다. 분지 같은 지형이었고, 한가운데에는 반쯤 허물어진 오두막이 무너져 있었다. 나무 통나무 하나에 연기가 자욱한 등불이 걸려 있었다.

반대편 테두리에는 두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배를 엎드렸다. 호수를 향해 몸을 숙인 채, 손끝에 총과 권총이 닿는 거리에 있었다. 그들 옆에는 또 다른 빛이 있었다. 전기 램프에서 나온 빛이었다. 바로 그 빛이 라울을 이 곳으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몸을 떨었다. 이 모험은 이미 오십 분이나 이어졌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홍수를 막으려면 반 시간밖에 없다.'

그는 생각했다. '반 시간 안에 조도에게 수문의 비결을 빼내지 못하면, 약속대로 오로렐리 곁으로 돌아가 그녀와 함께 죽어야 한다.'

라울은 키 큰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오두막 쪽으로 기어 올랐다.

십여 미터쯤 떨어진 곳, 요도와 기욤은 절대적인 안전지대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알아들을 만했지만, 단어 하나까지 캐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울은 뚜렷한 계획 없이, 상황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 무기 하나 없는 그에게,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했다.

게다가, 만약 이긴다 해도 강압과 협박이 요트 같은 적을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즉, 패배를 인정하고 어렵게 손에 쥔 비밀을 내줄까?

그는 조심스럽게 기어 갔다. 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온 힘을 다했다. 혹시라도 들릴지 모를 단서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미터, 세 미터.

그는 자신의 몸이 바닥을 긁는 소리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대화의 내용이 또렷이 들리는 지점에 다다랐다.

요도트가 말했다.

"에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성냥개비야! 우리가 수문으로 내려갔을 때 수위가 오륙 미터까지 차올랐어. 그게 동굴 천장 높이에 해당하지.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었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구. 두 더하기 이가 사라는 게 확실하듯 확실해."

기욤이 말했다.

"그래도 동굴 바로 근처에 숨어 엿보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왜 나만 그러냐, 꼬마야?"

"나? 팔이 아직 굳어 있는데! 겨우 총을 쏠 수 있었어."

"게다가 그 자를 무서워했잖아…"

"당신도 마찬가진데, 요도."

"그건 인정해. 나는 총격전보다… 그리고 구두에 담긴 노바타의 일기를 손에 쥔 상황이었으니, 홍수 사건이 더 나았지."

"오, 요도! 그 이름은 입에 담지 마세요…"

기욤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요도가 비웃듯 웃었다.

"겁쟁이 같으니라니!"

"기억하세요, 요도. 제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오셨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그 악마 같은 남자, 불운의 리메시가 오를리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있고, 그를 감시하다 보면 보물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 좋아. 내 아들이 너를 도와주게. 하지만 살인은 안 돼, 그렇지? 피는 흘리지 않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소." 요드가 농담조로 말했다.

"그래, 그래. 내가 무슨 말인지, 그 불쌍한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안다지. 죽음이 있으면 범죄가 있는 법이야…… 리메지와 오를리에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범죄가 아니라고 할 건가?"

"그럼 어떻게 할 셈이야? 이 일을 그냥 포기할 거야? 리메지 같은 놈이 네 눈매에 반해서 자진해서 물러나 줄 거라고 생각해? 그 저주받은 자네를 잘 알잖아. 네 팔을 하나 부러뜨렸지. 다음엔 네 얼굴을 산산조각 내는 게 다였을 거야. 그가 죽든 우리가 죽든, 선택은 하나뿐이었어."

"하지만 오를리에를 생각하면……"

"두 사람은 한 쌍이야. 한 명 건드리면 다른 한 명도 건드릴 수밖에 없어."

"불쌍한 여자……"

"그게 끝이야? 그 보물을 원하냐, 마냐? 그런 거물은 담배 파이프나 피우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마르퀴의 유언장은 보지 못했소? 오로리가 주뱅 영지 전체를 상속한다니…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소? 혹시 그와 결혼할 생각이었나?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법이오, 내 친구. 그리고 나로서는 기욤 씨가…"

"그래서?"

"자, 내 친구. 내일 자뱅 호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높이나 깊이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다음 날, 마르퀴가 금지했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돼. 목동들이 돌아오거든. 그리고 그 계곡의 오솔길에서 마르퀴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될 거야. 아무도 누군가가 균형을 잃게 만든 작은 충격을 가해줬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상속 절차가 시작되지. 유언장은 없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속자도 없어. 마르퀴에게 가족이 없으니까. 결국 국가는 합법적으로 그 영지를 차지하게 되지. 여섯 달 뒤, 경매야. 우리가 사면 되는 거지."

"어떤 돈으로?"

"그 돈을 구할 여섯 달이면 충분해." 요도가 음산한 어조로 말했다. "게다가 그 영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만약 기소가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다."

"무슨 말씀이시죠?"

"리메지와 오를리에 이야기입니다."

"리메지? 오를리에? 두 사람은 익사하거나 실종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찾아볼 수 없다니요? 동굴에서 찾아낼 겁니다."

"아니요. 내일 아침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테니까요. 두 사람에게 좋은 자갈을 다리에 묶어주면,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리메지의 자동차는요?"

"오후에 우리가 그 차를 가져가면, 아무도 그들이 그쪽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연인에게 의해 정신병원에서 납치되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여행 중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군, 낡은 도둑놈아." 그들의 곁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군."

그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아랍식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채로, 다시금 말했다.

"큰 실수였군. 결국 그 아름다운 계획은 이미 저지른 행동들에 기반하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 동굴의 그 남자와 여자가 이미 도망쳐 버렸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어둠 속에서 총과 브라우닝 권총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무기라니? 그게 무슨 용도야?"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무기를 갖고 있겠어? 젖은 바지 하나, 젖은 셔츠 하나, 그게 전부가야. 무기라니… 우리 같은 사이에서 말이야."

요도와 기욤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요도에게는 니스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았고, 기욤에게는 투르즈의 그 남자가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미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무서운 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는……

"글쎄, 맞아. 내가 웃으며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살아있단 말이야. 다섯 번째 번호가 동굴 천장과 맞지 않아. 게다가 네가 내게 그런 작은 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살아있단 말이, 요도 친구! 오를리도 살아. 동굴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어. 물 한 방울도 튀지 않았지.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길지도 않을 거야. 오 분, 딱 오 분만. 괜찮지?"

요도는 멍하니,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라울은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는 평온하게, 게으른 듯이 말했다. 가슴이 끔찍한 불안에 조여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자, 이제 네 계획은 물거품이 됐어. 오를리가 죽지 않았으니, 그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거야. 그러니 경매는 필요 없지. 네가 그녀를 죽여 경매를 열더라도,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재산을 사면 끝이야.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하는데, 불가능해. 나는 불사신이야.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직 한 가지 해결책뿐이지."

그가 잠시 멈춰 섰다. 조도가 몸을 기울였다. 해결책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 한 가지 있어." 라울이 말했다. "그건 바로, 나와 손을 잡는 거야. 원하느냐?"

조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라울로부터 두 발짝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았고, 열정으로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대답하지 않네. 하지만 눈동자가 빛나고 있군. 야수 같은 눈빛이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

"내가 무언가를 제안하는 건, 당신이 필요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지. 다만, 당신도 알다시피 십오 년, 혹은 십팔 년 동안 당신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르려 하고 있어. 당신은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 살인까지도 불사할 태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권리를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평온을 원하고, 오를리도 평온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언젠가는 당신이 우리를 해칠 구실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생기길 원치 않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죠?"

요도트는 긴장을 풀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제안해 보시오."

"자세한 건 이렇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당도 아시다시피, 이는 누구나 나눠 가질 수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 운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익은……"

"상당히 클 겁니다." 조도가 덧붙였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도 그에 맞게 했습니다. 월 5천 프랑입니다."

이 도적은 그 거액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둘이 함께 받는 건가요?"

"당신에게 5천 프랑…… 기욤에게 2천 프랑입니다."

기욤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는 받겠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조도?"

"아마도요." 다른 쪽이 말했다. "하지만 담보가 필요합니다. 선금도 필요하죠."

"3개월 치면 되나요? 내일 오후 3시, 클레르몽페랑의 조드 광장에서 만나세요. 수표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도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내일 리메지 남작이 저를 체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저도 같이 체포당하니까요."

"당신?"

"물론이지요. 이 작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르센 뤼팽입니다."

이 이름은 조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이유와, 이 남자가 자신에게 미친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울이 반복했다.

"아르센 뤼팽. 전 세계 경찰이 쫓는 그 남자. 유력 절도 사건만 500건이 넘고, 유죄 판결도 100번이 넘었지. 보라니까, 우리 둘은 잘 통하

는 사이야. 내가 너를 잡았지. 하지만 너도 나를 붙잡고 있잖아. 합의는 이미 성사된 거야. 방금 전에 네 머리를 박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협상을 선호해. 필요하면 너를 써먹을 수도 있고. 결점은 있겠지만, 훌륭한 자질도 갖추고 있거든. 특히 클르몽페랑까지 쏙 빠져나간 그 기막힌 솜씨는 일품이었어. 아직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뤼팽의 말은 금과도 같지. 괜찮겠지?"

요도트는 기욤에게 낮게 속삭인 뒤 답했다.

"네, 우리는 동의합니다. 무엇을 원하시죠?"

"나? 하하, 별일 아니야, 친구. 난 그저 평화를 찾는 신사일 뿐이야. 그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는 기꺼이 치르지. 우리 이제 파트너가 된 거야…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 만약 오늘 당장이라도 네 몫을 이 파트너십에 넣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면 돼. 관련 문서가 있나?"

"꽤 많아. 자작의 지시 사항들이야. 호수 관련."

"당연하지. 너 방수문을 닫을 수 있었으니까. 그 지시 사항들이 상세해?"

"응, 필기체가 작은 노트 다섯 권 분량이야."

"그리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있어?"

"응. 그리고 유언장도 가지고 있어… 오로리에 유리하게 작성된."

"다 보여 줘."

"내일. 수표와 맞바꿔." 요도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내일 수표와 맞바꿔. 악수하자. 이걸로 계약의 서명이야. 그럼 헤어지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잘 가요." 라울이 말했다.

면담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지금까지 나눈 말과 약속은 모두 요지부동한 조도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수문 위치였다. 조도트가 입을 열까? 라울의 방문이 가진 숨겨진 의도와 실제 상황을 조도트가 눈치챌까?

라울은 그 어느 때보다 초조했다. 그는 태연한 척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것'을 좀 보고 싶었어. 수문을 열어주는 건 안 될까?"

조도트가 반대했다.

"마르퀴의 기록에 따르면, 수문이 완전히 작동하려면 일곱에서 여덟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좋아, 지금 당장 열어봐. 내일 아침, 넌 여기서, 오레리와 나는 저기서 '그것', 즉 보물을 확인하자. 수문은 바로 근처지, 우리 아래에 있잖아. 문 근처에?"

"직행 길이 있어?"

"조작법 알아?"

"쉬워. 설명서에 나와 있어."

라울이 제안했다. "내려가자. 내가 도와주마."

조도가 일어나 전기 손전등을 들었다. 그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기욤이 그 뒤를 따랐다. 지나가다 그들은 라울이 처음엔 자기 곁으로 끌어당겨 잠시 더 멀리 밀어놓았던 총들을 보았다. 조도는 그중 하나를 어깨에 메었다. 기욤도 똑같이 했다.

라울은 등불을 들고 두 도둑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기쁨에 겨운 마음으로 속삭였다. 그의 얼굴 표정이라면 바로 그 기쁨을 드러냈을 것이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아마도 몇 차례의 경련 같은 반발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승리는 이미 거둔 셈이다.

그들은 내려갔다. 호수 가장자리에서 요도는 모래와 자갈로 만든 제방을 따라 방향을 잡았다. 그는 절벽 기슭을 감싸고 있던 바위 하나를 돌아, 깊은 틈새를 가리고 있던 그곳으로 향했다. 그 틈새에는 작은 배가 묶여 있었다. 요도는 무릎을 꿇고 큰 돌멩이 몇 개를 치웠다. 그러자 네 개의 손잡이가 일렬로 늘어선 것을 발견했다. 그 손잡이 끝에는 네 개의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고, 사슬은 도자기 파이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수문 손잡이 바로 옆이죠." 요도가 말했다. "이 사슬들이 바닥에 깔린 주철 판을 작동하게 합니다."

라울은 손잡이 중 하나를 당겼다. 라울도 똑같이 했다. 그리고 즉시 명령이 사슬의 다른 끝으로 전달되어 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나머지 두 번의 시험도 모두 성공했다.

호수 한쪽 구석,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물보라가 연이어 일었다.

라울의 시계는 아홉 시 이십오 분을 가리켰다. 오를리는 구원받았다.

"총 좀 빌려줘." 라울이 말했다. "아니, 말고. 네가 직접 쏴라. 두 발만."

"왜요?"

"신호야."

"신호?"

"그래. 오를리를 동굴에 남겨뒀어. 동굴은 거의 물에 잠겨 있고, 그녀의 공포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겠지. 그래서 떠날 때, 더 이상 위험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어."

요도는 깜짝 놀랐다. 라울의 대담함과, 아직까지도 오렐리가 겪고 있는 위험을 자백한 그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옛 적수에게서 위엄을 더해주었다.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단 한 순간도 생각지 않았다.

총성이 두 번 바위와 절벽 사이를 울렸다. 그러자마자 요도가 덧붙였다.

"자네는 정말 리더야. 말만 들으면 돼, 망설일 필요도 없어. 여기 공책과 마르퀴의 유언장이 있네."

"좋아, 잘했어." 라울이 외치며 서류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너를 써먹을게. 절대 착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쓸만한 악당으로는 만들어 줄게. 자네는 그 배가 필요 없나?"

"글쎄, 필요 없네."

"이제 내게는 그 여자가 꼭 필요해. 오레리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아, 한 가지 더 조언해 주마.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나라면 오늘 밤 바로 클레르몽페랑으로 떠날 거다. 내일 봐, 친구들."

그는 보트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했다. 그러자 조도가 밧줄을 풀었다. 라울은 떠났다.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군!' 라울은 힘을 주어 노를 저으며 생각했다. "한번 그들의 선한 마음과 타고난 관대함에 호소하기만 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움직이거든. 물론 친구들, 너희는 두 수표를 반드시 받을 거야. 내 리메시 계좌에 아직 자금이 남아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맹세한 대로, 그들은 성심껏 서명할 테니까."

이십오십 미터. 좋은 노를 저으면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다. 그토록 성과가 큰 모험을 치른 뒤라면, 라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몇 분 만에 동굴에 도착했고, 바로 안으로 들어섰다. 배의 앞부분을 먼저 내밀고, 등불도 앞쪽에 고정해 둔 채였다.

"승리다!" 그가 외쳤다. "내 신호를 들었어, 오를리? 승리다!"

기쁨의 빛이 그 좁은 구석구석을 채웠다. 두 사람이 죽을 뻔했던 그 좁은 공간이었다. 해먹은 벽에서 벽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었다. 오를리는 그곳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친구의 약속을 믿었고,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확신했으며, 위험에 대한 불안과 원하던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결국 피로에 지쳐 잠들었던 것이다. 아마도 두 번의 총성 소리를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소음은 그녀를 깨우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동굴 안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낮의 빛과 등불의 빛이 섞여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이미 빠져나갔다. 벽에 기대어 놓은 보트 안쪽에서 라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양치기들의 두꺼운 겉옷과 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마도 노 후작의 유품 중 평판 위에 놓인 것들을 가져다 입은 듯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운명의 결정에 맞서고, 행적마다 기적 같은 의미와 외모를 지닌 그 놀라운 존재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마레스칼의 비난과 형사가 내뱉은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무슨 상관이랴?

라울이 바로 아르센 뤼팽인가?

'당신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당신은 누구인가?'

아우렐리는 생각했다.

'당신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마치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사명인 양.'

'푸른 새.'

라울이 눈을 떴다. 아우렐리의 침묵 속 질문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행복한 어린 소녀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괴물과 악녀로부터 지켜주며, 그들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파랑새."

"그럼 나도 왕국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라울?"

"그래. 여섯 살 때 그 안에서 한바퀴 돌았지. 이제 그 왕국은 네 것이라네. 한 노령의 백작이 그렇게 원했거든."

"오, 빨리 봐, 라울! 빨리!"

"먼저 밥이나 먹자고. 배가 고파 죽겠어. 그다음에 볼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리고 그건 오래 걸려서는 안 돼.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은, 네가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야 하니까."

그녀는 평소처럼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묻지 않았다. 조도와 기욤은 어떻게 되었을까? 탈랑세이 후작에 대한 소식은 없었을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인도에 따르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섰다. 오레리는 다시 감정에 휩싸여 라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오, 라울. 정말 그게 맞아요… 바로 제가 예전에,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니와 함께 봤던 것이에요…"

제14장

역시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들 아래, 물이 빠진 깊은 원형 경기장 안에는 아직 서 있는 기념비들과 신전들의 폐허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기둥은 잘려 나가고, 계단석은 어긋나며, 포로스는 흩어져 있었다. 지붕도, 정면 장식품도, 처마장식도 없었다. 천둥에 의해 머리가 잘린 숲 같았지만, 죽은 나무들조차도 여전히 뜨거운 생명력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멀리서 로마 길이 다가오고 있었다. 승리의 길이었다. 깨진 조각상들이 양옆을 지키고, 대칭을 이루는 신전들이 길을 감싸고 있었다. 그 길은 무너진 아치들의 기둥 사이를 지나 해안가까지, 그리고 제사가 행해지는 동굴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곳곳이 젖어 빛나고, 진흙 투성이 외투를 입은 듯했으며, 석화나 종유석 때문에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햇살 아래 대리석 조각이나 금빛 조각들이 반짝였다.

좌우로 긴 은빛 리본처럼 물줄기가 구불구불 흘렀다. 물길을 다시 찾은 폭포들이었다.

"포룸……" 라울이 낮게 읊조렸다. 얼굴이 다소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서려 있었다. "포룸…… 크기와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노마르크 후작의 문서에는 계획도와 설명이 들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주뱅 시는 큰 호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 아래로는 건강의 신과 힘의 신에게 바쳐진 온천과 신전이 있었고, 모두 '청춘' 신전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죠."

라울이 손가락으로 지점을 가리켰다.

"지금 보시는 그 둥근 기둥들이 바로 청춘 신전의 모습입니다."

라울은 오를리를 허리춤으로 받쳐 주었다. 그들은 성스러운 길을 내려갔다.

큰 돌판들이 발底下에서 미끄러웠다. 이끼와 수생 식물이 번갈아 나타났고, 그 사이사이는 잔자갈이 깔린 공간이었다. 때때로 그곳에서 동전 한 닢씩 발견되기도 했다.

라울이 두 닢을 주워 들었다. 동전에는 콘스탄티누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그들은 '청춘'에게 바쳐진 작은 건물 앞에 다다랐다. 남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독자들은 머릿속으로 조화로운 원형 구조물을 그려낼 수 있었다. 몇 계단 위에 올라선 그 건물에는 분수가 있었고, 그 위에는 네 명의 통통하고 튼튼한 어린이상이 받치고 있는 물동이(바스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꼭대기에는 '청춘'의 동상이 서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동상은 두 개만 남아 있었다. 형체와 우아함이 훌륭했던 두 상은, 물동이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예전에는 네 명의 어린이상이 이 물동이에서 물줄기를 뿜어냈었다.

두꺼운 납 파이프들이 물웅덩이에서 솟아올랐다. 예전에는 아마도 절벽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터인데, 그곳이 바로 샘물의 근원일 것이다.

파이프 한쪽 끝에는 새롭고 용접된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다. 라울이 그것을 돌렸다.

따뜻한 물줄기가 치솟더니, 살짝 김이 서렸다.

"영생의 물이군요." 라울이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 침대맡에서 압수한 병에 들어 있던 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병의 라벨에는 이 물의 제조법이 적혀 있었죠."

두 시간 동안 그들은 환상적인 도시를 거닐었다.

오레리는 옛날의 감각을 되찾았다.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묘지의 비석들을 보았고, 다리가 잘린 여신의 조각상을 보았으며, 고르지 않은 돌길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아치형 통로도 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것을 보았다. 정말 많은 것들이 그녀를 떨게 했다. 슬픈 기쁨에 몸이 떨리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당신. 이 모든 행복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없이는 저는 고통만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곁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열 시, 클레르몽페랑의 종소리가 대미사를 알렸다.

오를리와 라울은 협곡 입구에 도착했다. 두 폭포가 그 안으로 파고들더니, 승리의 길을 따라 좌우로 흐르며 네 개의 헐거운 수문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경이로운 견학이 막 끝났다. 라울이 말했듯,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비결을 목격할 수 있는 때는, 그 소녀가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뿐이었다.

그는 배수구를 막고, 천천히 수문의 손잡이를 돌려 문을 조금씩 열었다.

물이 좁은 공간에 고이기 시작했다. 큰 호수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갔고, 두 개의 작은 폭포는 돌로 된 바닥을 벗어날 듯 치솟았다.

그들은 라울이 전날 밤 두 위장범과 함께 내려왔던 길을 따라 다시 올라갔다.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보니, 빠른 물결이 작은 호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물은 사원 기단을 감싸며 마법의 분수로 재촉하듯 흘러갔다.

"네, 마법 같은 샘물이죠." 라울이 말했다. "그게 바로 노경작이 쓴 표현이에요."

그는 계속했다. "로야트의 온천 성분 외에도, 그 샘물에는 에너지와 힘을 주는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을 위한 샘물이라는 뜻이죠. 그 힘은 놀라운 방사능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수치가 '밀리큐리' 단위로 측정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예요."

"고대 로마의 부자들이 삼사세기 때부터 이 샘물에 몸을 담그며 젊음을 되찾으려 왔죠." 라울이 이어갔다. "그리고 갈리아 속주의 마지막 총독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제국이 무너지자, 침략해 온 야만인들로부터 이 신비로운 샘을 숨기고 보호하려 했답니다."

"그걸 증명하는 비밀 비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하나를 들어볼까요?"

라울이 비문 내용을 읽어냈다.

"'총독 파비우스 아랄라의 뜻에 따라, 스키타이인과 프로이센인의 침입을 대비해, 호수의 물이 내가 사랑했던 신들과 내가 경배했던 신전들을 덮었노라.'"

"그 위에 십오 세기란 세월이 더해졌다고요! 석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걸작들이 풍화되고 무너진 십오 세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죽음은 백 년 더 걸려 완전히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가 친구 탈랑세의 버려진 영지를 산책하던 중, 문수문의 메커니즘을 우연히 찾아낸 것입니다."

두 친구는 곧장 움직였다. 더듬고, 관찰하고, 머리를 짜냈다. 수리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작은 호수의 수위를 유지하고 건물들의 높은 부분을 잠기게 하던 두꺼운 목재 문들을 다시 작동시켰다.

"이제 다 말씀드렸소, 오레리. 당신이 여섯 살 때 보았던 곳의 모든 이야기말이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크 공작은 주뱅의 영지를 떠나지 않았소. 그는 영혼과 몸을 바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되살리는 일에 매달렸지. 두 목동의 도움으로 그는 땅을 파고, 발굴하고, 청소하고, 보강하고, 과거의 흔적을 재현했소.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에게 선물한 것이오."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오. 당신에게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불가측의 부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로야와 비취의 모든 샘물보다 더 귀중

한 하나의 샘을 주게 되오. 게다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술 작품들과 기념비들을 한데 모아 주게 되오."

라울은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서도 한 시간 이상 흘렀다. 라울은 가라앉은 도시의 모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흥분을 안겨주는지,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물이 차오르는 모습, 그리고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기둥과 동상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를리는 침묵을 지켰다. 끝내 라울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오를리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잠시 후 속삭였다.

"타랑세이 후작의 최후를 아직 모르시나요?"

"아직은 몰라." 라울이 말했다. 소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집, 즉 마을로 돌아갔을 거야. 아플지도 몰라. 아니면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고."

"변명이 부족해." 오렐리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다. 라울은 그녀가 지금까지 겪은 충격과 공포가 사라진 지금,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두 도둑이 밤을 보냈던 오두막이 있던 곳, 즉 해안 절벽 위까지 올라갔다. 라울은 여기서 높은 성벽을 넘어, 목동들이 영지를 빠져나갔던 출구를 향해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옆에 있는 바위를 돌아서던 중, 오렐리가 라울에게 이상한 것을 일러주었다. 절벽 가장자리에 놓인 꽤 큰 포대 하나였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녀가 말했다.

라울은 한눈瞥어 보고는 오렐리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급히 달려갔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를 재촉했다.

그는 가장자리까지 올라가서 가방을 잡았다. 그리고 안으로 손을 넣었다.

몇 초 후, 그는 무언가를 잡아당겼다. 아이의 머리가 먼저 나왔고, 이어 몸통이 드러났다.

그는 즉시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조도가 데리고 다니던 작은 동반자였다. 조도는 그를 족제비처럼 부렸고, 지하실로 보내거나 철창과 울타리를 넘어가게 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잠이 반쯤 든 상태였다.

라울은 격분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흔들었다.

"갈로팽! 네가 우리 뒤를 쫓아온 거지? 쿠르셀 거리부터?"

"응? 네가 맞지? 조도가 내 차 뒷좌석 트렁크 속에 네가 숨어 있게 했어. 그리고 너는 클레르몽페랑까지 그렇게 여행했지. 거기서 우편국에 편지를 보낸 것도 네가 한 일이고?"

"인정해. 안 그러면 너 때려줄 거야."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불량아 특유의 창백했던 얼굴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이는 중얼거렸다.

"응, 온수가 원했어…"

"온수?"

"응, 조도 삼촌."

"지금 삼촌은 어디 있니?"

"우리 셋이 밤에 나갔다가 돌아왔어."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물이 빠진 아래쪽을 내려갔어. 그리고 여기저기 뒤져서 뭐든 주워 모았지."

"나보다 먼저?"

"응, 나보다 먼저, 그리고 그 아가씨보다 먼저. 너희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물이 빠진 바닥 깊숙한 곳, 저기 벽 뒤에 숨었어."

"하지만 난 다 봤어. 온수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

"지금 둘은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깨어났더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네, 뭔가를 두고 싸웠어요. 금처럼 빛나는 무언가였죠. 그들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톤톤이 칼로 한 대 찍고…… 그리고……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아마 또 잠들었나 봐요. 벽이 무너지면서 그들을 모두 덮치는 게 보이던데, 마치 꿈만 같았어요."

"뭐라고? 뭐라고 한 거야?" 라울이 놀라서 더듬거렸다. "대답해. 어디서 일어난 일이야? 언제?"

"종이 울릴 때였어요. 아주 멀리서…… 정말 멀리서요. 저쪽이요."

소년이 공중으로 몸을 내밀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오!" 그가 말했다. "물이 다시 차올랐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물이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들은 빠져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바닥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삼촌……"

라울은 아이의 입을 막았다.

"입 다물어."

오렐리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요도와 기욤이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움직이지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밀려온 물바람에 덮여 질식당해 사라졌다는 것. 무너진 벽돌들이 그들의 시신을 눌러 짓눌러 두고 있었다.

"참으로 끔찍하군요. 두 사람에게 무슨 고문이었던지."

오렐리가 헛간거렸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거세졌다. 라울은 그녀에게 돈과 한 장의 명함을 건넸다.

"받아. 여기 백 프랑 있어. 파리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 이 주소로 가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집 앞에서는 작별 인사가 무거웠다. 운명은 두 연인을 짓눌렀다.

"며칠 떨어졌다가 만나요." 오를리에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할게요."

라울이 반박했다.

"떨어진다니?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떨어지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죠. 삶이 우리를 항상 다시 만나게 하니까요."

그는 슬픔을 안고 결국 동의했다. 그녀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일주일 후 그는 짧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립니다. 우연히 시아버지 브레자크의 죽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살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탈랑세이 후작이 도랑 바닥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실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살인이었을 거예요. 명백한 살해였죠… 그리고 조도와 기욤의 끔찍한 죽음까지. 그뿐인가요? 백 수녀님, 그리고 두 형제도… 과거에는 제 할아버지 다스토도 있었죠."

"라울, 저는 떠납니다. 제 whereabouts를 알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제 삶을 돌아보며,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요, 제 친구여. 저를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울은 기다리지 않았다. 편지가 분실된 일, 오레릴에게서 느껴진 고통과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걱정과 불안. 모든 것이 그를 행동으로 내몰았고, 수사를 재개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는 오레릴이 생마리에 은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사방으로打听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친구들을 총동원해 보았자 헛수고였다.

절망에 빠진 라울은 새로운 적들이 소녀를 괴롭히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는 두 달 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오레릴은 내일 브뤼셀로 오라고 청했고, 캉브르의 숲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단호한 태도로, 끝없는 자애로운 기운을 머금고, 모든 나쁜 기억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도착하는 것을 본 라울의 기쁨은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용서해 줄래, 라울?"

그들은 잠시 함께 걸었다. 마치 영원히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를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라울, 네가 말했잖아. 내 안에는 서로 충돌하며 나를 괴롭히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고. 하나는 행복과 기쁨의 운명이지. 내 진정한 본성에 맞는 거야. 하지만 다른 하나는 폭력과 죽음, 애도, 그리고 재앙의 운명이야.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히며 나 abyss(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는 적대적인 힘들의 집합체라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만약 네가 나를 열 번 구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열 번이나 그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주뱅에서 보낸 이틀 동안의 일을 겪은 뒤로, 라울, 저는 너무 지쳐버렸어요. 우리 사랑이 깊어도 깊었건만, 삶이 저를 혐오하게 만들 정도였죠. 당신이 마법 같고 환상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이, 저에게는 어둠과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울?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왕국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왕국을 원하지 않아요. 과거와 저 사이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이나 제 곁을 떠나 지낸 것도, 제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생존자라는 이 모험의 포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수년, 아니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일이 결국 저에게로 수렴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안에 담긴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만약 제가 그 부와 영광의 상속자라면, 동시에 그 죄악과 범죄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후작의 유언장은요?"

라울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건넸다.

오렐리가 종이를 받아 바람에 날릴 듯이 찢어 버렸다.

"라울, 내가 이미 말했잖아. 모든 건 끝났어. 내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범죄와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 게 두렵거든. 난 영웅이 아니야."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인가?"

"사랑하는 여인, 라울… 내 삶을 다시 만든 여인. 그리고 그 모든 걸 오직 사랑 때문에, 사랑만을 위해 다시 살았지."

"오, 초록 눈의 아가씨. 그런 맹세를 하다니, 정말 무거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비극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제 목숨을 바치려 하는데, 당신의 목숨에서 원하는 건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뿐이니까요. 당신 곁에 있는 그 신비는 당신을 즐겁게 하죠. 그걸 제가 막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고귀하고 매혹적인 분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요."

"항상, 오레리."

"아니요, 라울. 당신은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슬프게도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사랑이 짧게 이어지더라도, 저는 그토록 큰 행복을 느꼈으니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에요. 로얄 극장에 와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헤어졌다.

저녁이 되자 라울은 왕립극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새로 입단한 젊은 가수 루시 고티에가 주역을 맡은 <보헤미안의 삶>이 공연되고 있었다.

루시 고티에, 그것은 바로 오레일리였다.

라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가로서의 자유로운 삶은 여러 가지 관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오레일리는 자유로웠다.

공연이 끝난 뒤, 그야말로 만장의 박수 속에 그녀는 승리의 여왕이었다. 라울은 그녀가 있는 화장실로 곧장 안내되었다. 곱고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가 그에게 기울어졌다.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 닿았다.

이렇게 해서 쥐뱅의 기막히고도 무서운 모험은 막을 내렸다. 그는 열다섯 년 동안 수많은 범죄와 절망의 원인이 되었다.

라울은 조도트의 작은 동조자를 악의 손아귀에서 구하려 애썼다. 그는 아이를 앙시벨 과부에게 맡겼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과부, 곧 기욤의 어머니는 술에 빠졌다.

너무 일찍 타락한 아이는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요양원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탈출해 과부를 다시 찾았고, 두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마레스칼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여성 쟁탈전에 집착하며 승진했다. 어느 날 그는 레노르망 경감, 즉 명성 높은 수사국 국장을 만나고자 청했다.

대화가 끝난 뒤, 레노르망 경감은 부하인 마레스칼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이렇게 말했다.

"불 좀 붙여주실래요?"

그 말투는 마레스칼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뤼팽을 알아챈 것이다.

그는 뤼팽을 다른 가면을 쓴 모습에서도 다시 발견했다. 늘 장난기 가득한 표정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리고 매번 그는 마레스칼에게 예상치 못한, 날카롭고 거친, 하지만 그가 보여준 당황스러운 반응 덕분에 더욱 희화적인 한 마디를 직격탄처럼 날렸다.

"불 좀 붙여주실래요?"

라울은 주뱅 영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초록 눈의 아가씨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주뱅 호수와 영원의 샘은 프랑스가 아르센 뤼팽으로부터 물려받을 기적과 전설 같은 보물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